hyunbulnews.com

현대불교

제844호 2011년 7월 13일 수요일 (음력 6월 13일 · 불기 2555년 · 주간)

중생은 욕심의 장벽에 가로막혀 극락세계나 천당세계가 보이지 않고 항상 괴로운 일에 허덕이게 됩니다. 한마음으로 밝혀주세요.

– 조계종 전계대화상 고산 스님





백두산 정기 받으세요 무등산 증심사가 운영하는 대원장학회가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백두산 순례를 6월 17~21일 까지 진행했다. 정상에 오른 청소년들의 표정이 백두산 정기를 받은 덕분인지 희망에 가득차 있다. 〈관련기사 5면〉 글 · 사진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가 없어진다

불교계와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인촌로길'로 불릴 뻔 했던 '개운사길'은 되찾았지만, 뒤늦게 성북구가 '흥천사길'을 '아리랑길'로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다. 최근 정부의 새 도로명주소 개편 작업에 의해 화계사길, 도선사길, 보문로 등 지명이 속속 사라진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MB정부의 새 도로명주소 시행은 (불교식) 고유 지명에 대한 대량학살" "서울시 봉헌 발언과 지도에서 사찰 없애기의 결정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명진 스님(前 봉은사 주지)과 함께하는 수행모임 단지불회는 7월 7일 성명서를 통해 "MB정부가 효율성만을 따져 기존의 주소를 새 도로명 주소로 바꾼다면서 불교지명을 낱낱이 찾아 없애버린 것은 지도에서 사찰명 없애기처럼 불교 죽이기의 입장이 한 치도 바뀌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지불회는 "불교식 주소가 말살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도로명주소 업무편람〉에서 '특정종교시설의 이름을 사용한 도로명은 부적절하다'는 지침을 내리면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수천 년 이어져 내려온 불교와 200년 남짓한 개신교를 단순 비교해서 종교와 연관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불교명을 쓰지 말라는 지침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도로명주소 업무편람〉에는 "같은 시 · 군 · 구 내에서 도로명 변경으로 폐지된 도로명은 폐지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다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해 원상회복도 어렵게 해놓았다.

단지불회는 "기존주소와 새주소를 혼용해서 쓰는 2013년까지 조계종 혹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없어진 불교지명에 대한 조사작업에 착수해서 최종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도로명주소를 확정해도 늦지 않다"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도로명주소 개편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새 도로명주소 시행으로 불교식 지명 사라져 얼마나 없어졌는지 파악조차 안되고 있어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법응 스님은 8일 성명서에서 "이명박 정부의 새 도로명주소 사업은 승려에게는 승복을, 국민에게는 민족전통의 한복을 강제로 벗기는 일이다. 한반도에서 유전자화 된 불교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님은 "종단은 불교 관련 지명은 물론 전통 지명이 새 주소에서 사라지지 않게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며 "총무원은 지금이라도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는 긴급히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이의신청 기간이 이미 끝난 곳이 많아 당장 주소명 변경을 바로 잡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상태이다.

사무처장 혜일 스님은 "정보가 너무 없었다. 이제는 2년간 새주소 시행이 유보된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지가 관건이다"라며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현재 불교계에서는 불교식 고유지명이 정부의 새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얼마나 사라졌는지 현황 파악조차 안된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불교식 지명을 연구해 온 박호석 법사(前 농협대 교수)는 최근 조계종과 본지 등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불교식 지명 100여 곳을 알려왔다.

박호석 법사는 "불교식 지명이 사라지는데 불교계가 소홀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라며 "새 도로명주소 시행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국의 불교식 지명을 되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관련기사 7면

시행 전부터 '자부담' 딜레마에 빠진 승려복지

10월 의료·요양 분야 시행… 보완 필요

'승려복지법'이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예산 운용 및 집행 방안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조계종은 '승려복지법'을 10월부터 시행, 65세 이상의 무소득 · 무소임 승려를 대상으로 의료비와 요양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당초 공포된 승려복지법에는 수행연금, 의료급여, 요양비용 보장이 중점적으로 포함돼 있다.

의료비와 요양비는 지난 해 일반회계와 승려복지특별회계에서 확보된 10억원 가량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종단은 우선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의료비와 요양비 일부를 지원하고 향후 지원을 확대해 수행연금, 수행거주 지원 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령연금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3년 뒤 시행할 예정이다. 수행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29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돼 3년 동안은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3년 안에 적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행연금 시행은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보류된다.

종단의 이런 방안을 놓고, 무리한 복지제도 시행보다는 현실에 맞는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의료 · 요양비 지원을 위해 투입될 예산 10억이 조계종의 예산 구조상 적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이다.

연꽃마을 대표이사 각현 스님은 "복지는 특성상 증액만 있을 뿐 감액이 없다. 적은 혜택이라도 내실 있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 특성상 감액 힘들어 철저한 수혜자 파악 우선 재원 확보에 성공 여부 달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이상효 사무국장도 "승려복지는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혜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행 연금 지급을 보류할 경우 수행 연금 시행 자체가 요원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종회 의원 정범 스님은 "대상은 축소해도 예산 범위 내에서 혜택을 넓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목표 예산을 확보해도 3년 뒤 승려복지 대상자가 더 늘어나면 수행연금 시행은 또 보류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종단은 자부담이 실현되면 현 구조상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종단은 9월 경 모금 법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종단 수익사업 중 일부의 승려복지에 투입도 예정했다.

종단은 승려노후복지의 완성과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자부담이 필수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자부담을 승려복지제도 시행 첫 해부터 시행할 경우 상당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하고 잠정 보류했다. 종단 예산으로 의료와 요양 분야 지원을 시행하면서 스님들로 하여금 승려복지 제도의 장점과 필요성을 이해시킨 뒤 자부담을 확대할 방침이다. 종단은 이 밖에도 재가불자들이 스님들의 복지를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총무원 총무부 관계자는 "재원 마련의 최우선은 자부담이다. 자부담과 종단 수익사업, 모금, 재가불자의 제도적 동참 등이 실행되면 재원마련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관련기사 7면

출·재가의 역할은?

출가와 재가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는 7월 2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출가와 재가의 역할을 찾다'를 주제로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7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일문 스님이 주제발제를, 중앙종회 사무처장 성효 스님, NGO리서치 윤남진 소장,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조기룡 연구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조동섭 기자



BBS 사장후보에 선상신·이채원 씨

공석 중인 BBS불교방송 사장 후보에 선상신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이사와 이채원 前 강릉MBC 사장이 최종 추천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7월 6일 불교방송 사장 후보지망자 9명 중 4명에 대한 면접 심사 후 불교방송 공채 1기 출신인 선상신 이사와 불교문화 프로그램 편성 등에 노력한 이채원 前 사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이어 진흥원은 두 명의 최종 후보자를 불교방송(이사장 영담) 이사회에 공식 추천했다. 조동섭 기자

BBS, 이번엔 노조에 보복성 인사

노조위원장 지방사 전보

밀린 임금 등으로 노사갈등을 겪어온 불교방송(사장 직무대행 김영일)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받고 본사 복직한 노조위원장을 또다시 지방사로 전보 발령했다.

불교방송 노동조합(위원장 장용진)은 7월 5일 보도자료에서 "사측이 1일 공문을 통해 장용진 노동조합위원장을 춘천지사로 전보하겠다고 알려왔다"며 "이는 명백한 노동조합 탄압이자 파괴공작"이라고 반발했다. 조동섭 기자

844호 CONTENTS

참회하면 징계 낮춘다? 2
상반기 주목받은 사찰·조계사 3



증심사 대원장학회 동북아 기행 5
기획·승려복지 진단 7
특집·수륙대재 11
티베트 불교 특집 13~15
자비의 미얀마 돕기 22





나눔 중심, 단위별 결사

조계종, 자성과 쇄신 제3차 결사 입재

조계종 총무원 등 중앙종무기관들이 자성과 쇄신 2차 결사를 회향하고 3차 정진을 입재했다. 3차 정진은 나눔 결사를 중심으로 한 대외 활동과 부서 · 기관 등 단위별 결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7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성과 쇄신 결사, 중앙종무기관 3차 100일 정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에 대한 중앙종무기관의 의지 결집과 결사의 범종단적 확산 도모, 중앙종무기관 결사정진의 사회화(실천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이를 위해 2차 정진 때까지 진행돼 온 〈금강경〉 독송 대신 매일 오전 각 부서 및 기관별로 작성된 발원문을 낭독한다.



조계종은 7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 결사추진본부를 마련했다. 본부장에는 도법 스님, 사무총장에는 혜일 스님이 임명됐다.

나눔 결사 실천을 위해서는 ▷7월 14일 독거노인 위문을 위한 중계동 백사마을 방문 ▷8월 아름다운동행 비움나눔 108배 행사 동참 ▷9월 수해복구 및 농촌봉사활동 등 대민지원 활동 등을 계획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장애인과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를 개최하고, 총무원장 스님 등 교역직 스님을 중심으로 축구팀을 꾸려 연습상대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뇌성마비 장애인 국가대표 축구팀과 친선경기를 갖기로 했다.

조동섭 기자

기대는 하지만…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본부 출범 각 계 반응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본부가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7월 4일 마련했다. 불교계 안팎에서는 추진본부의 출범에 대해 기대와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이 마지막"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자성과 쇄신 결사를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 한다. 우선은 좀 두고 볼 일이다."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사진)**은 자체적으로 결사를 추진하던 총무원이 별도의 조직을 출범시킨 만큼 일단 시일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별도의 조직을 세운 것은 총무원도 내부 추진 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노력을 시도한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정 집행위원장은 지난 6개월 간 성과를 내지 못한 일이 이번에도 반복된다면 종단의 자성과 쇄신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단이 자성과 쇄신을 위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추진본부의 위상에 맞는 권한과 인적 구성 및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웅기 집행위원장은 "이번에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정부의 국고보조를 받거나 권력에 가까이 있는 스님들이 결사의 주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성과가 없었던 것이다. 결사의 내용과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흥기폭제 기대"

불교와 정책 운영위원 법응 스님



"방계 조직이 아닌 총무원장 스님이 직접 의지를 갖고 종단 각 부서에서 직접 수행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불교와 정책 운영위원 법응 스님**(사진)**은 별도 조직으로 발족한 추진본부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별도 조직보다는 종단 차원의 집중적인 추진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스님은 또 추진본부까지 발족시킨 종단이 무엇을 어떻게 자성하고 쇄신할 것인지 여전히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응 스님은 추진본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 종헌종법의 개정을 이끌어내야 하며 총무원장 스님의 계파 탈피 및 중립화 의지 천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진본부장인 도법 스님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추진본부에 전념해야 자성과 쇄신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법응 스님은 "추진본부 각 조직의 현황과 사업의 적정성 여부, 인적 구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이들의 유기적 관계를 모색하고 성과 증진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추진본부가 담당해 불교 중흥을 위한 활동을 보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질적 권한 줘야"

청정승가대중결사 의장 만초 스님



"5대 결사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기대할만 하지만 공허한 외침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

청정승가대중결사 의장 만초 스님**(사진)**도 추진본부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고 추진본부에 대한 종단 종책모임들의 결의 · 위임 등 실질적인 권한이행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종도 신뢰와 5대결사 추진을 위해서는 결사추진본부 발족과 함께 지속적인 5대 결사 추진을 위한 것인 만큼 총무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결사추진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6개월간 전국적으로 5대결사를 일으킨 종단이 자성하고 쇄신할 것인지 기구를 만들어 새로 고민하자는 것은 책임회피란 시선과 함께 종도들의 자조 · 실망감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화쟁위 · 민추본 · 종평위 등 종단 기구를 통합한 것에 대해 분야별 활동이 지장을 받지 않을지 우려를 표하고 기존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범 기자

김재일 대표 뜻따라 불교수목원 설립

조계종, 불교수목원 설립 추진에 박차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7월 2일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을 방문했다.

故 김재일 대표와의 약속에 따라 49재일인 이뤄진 이날 방문에는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 사회부장 혜경 스님, 환경위원회 위원장 장명 스님, 조계종 환경위원 이병인 · 윤여창 · 이영경 · 신준환 · 오충현 교수 등 60여 명이 참석해 불교수목원 건립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자승 스님은 "김 대표의 49재에 함께 던 이곳에 김 대표의 49재일에 오게 되었다"며 "김 대표의 발원이었던 불교수목원 건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김용하 국립수목원장에게 수목원 건립 요건과 종자 분양절차를 묻는 등 불교수목원 건립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자승 스님은 "일찍이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안타깝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좋은 수목원을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이어 "4000여 평의 임야가 있는 직지사가 제일먼저 불교수목원 건립해 보는 것이 어떠냐"며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에게 수목원 건립을 제안했다.

또, 자승 스님은 추진 위원회를 금년 안에 발족할 것을 지시하고 불교수목원 건립을 위한 자문을 국립수목원장이 맡아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용하 국립수목원장은 "불교는 수목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자연림을 가지고 있어 좋은 수목원을 만드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불교수목원에는 염주를 만드는 나무를 모아 심을 수도 있고, 인도 식물원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불교수목원 건립에 자문을 약속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사찰생태연구소에 불교수목원 건립을 위한 연구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천진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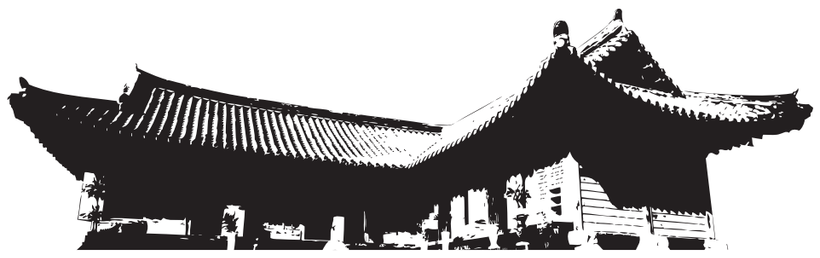

故 김재일 소장의 49재인 7월 2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가운데)과 유가족이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을 방문했다.


"더반 OK 평창 YES!" 7월 7일,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평창이 확정되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도 21일 기도 회향법회를 연 조계사 사부대중이 환호하고 있다. 조계사는 6월 16일부터 이날까지 21일 동안 매일 정오 23번 타종을 하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마음을 모아왔다.
조계종 · 천태종 · 태고종 · 진각종 등 불교계와 지역종교지도자 모임인 강원도종교평화협의회는 잇따라 축하 논평을 발표하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을 축하했다.

조동섭 기자

박구원 만평





한국불교태고종 경남남부종무원 범음 · 범패 교육원

2011년도 신입생 모집

모든 종교에는 의식 절차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하신 부처님의 미묘한 법과 장엄한 이 의식 절차를 우리 종무원 교육원에서 여법하게 부처님전에 공양올리는 범음 · 범패 · 작법(바라춤,나비춤)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스님, 교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❶ 교육기간 및 과정 [1년]

◇천도재(49재)실전위주교육 – 시련, 대령, 관욕, 응호게(신중작법)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시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 바라, 화의재 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작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특 강 – 괘불이운,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달림(다비식), 예수재의식

◇강사진 – 김영담스님(영봉정사) / 김경보스님(경보사) / 이일각스님(일각사선원) / 한철암스님(무상정사) / 이성암스님(미타사)

❷ 입학안내

· 입 학 식 : 2011년 9월 5일 오후 1시
· 입학자격 : 종단 관계없이 비구, 비구니, 교임
· 강의장소 : 경남남부교구종무원 설법전
· 접 수 처 : 한국불교태고종 경남남부교구종무원
·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5시까지
· 수 강 료 : 교육비 5만원(교재비 별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종무원에서 교부)
· 접수기간 : 상시 모집

❸ 문 의 처 · 경남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263번지(광천사 승모회관 4층) · 종무원 ☎ 055)381-1199,383-3721
영담스님 011-852-8595

한국불교태고종 경남남부교구종무원 종무원장 강무호

상반기 불교계 결산 – 사찰① 조계사

도심포교의 정석을 새롭게 제시하다

올해 상반기에도 불교계에는 많은 이슈와 논란들이 발생했다. 그런 와중에서도 각 사찰들은 저마다 특색있는 활동을 펼치기 위해 분주했다. 본지에서는 매주 각 사찰들의 상반기 주요 활동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한다.



조계사가 특색있는 활동으로 도심 포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은 7월 1일 초하루 신중기도에서 반야용선을 이운하고 있는 조계사 스님들.

조계사(주지 토진)는 2011년 상반기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인 사찰 중 한 곳이다. 조계사는 도심포교 100주년 기념관 설립, 선림원 개원, 다양한 봉축행사 실시, 내포 가야산 성역화 동참 등 불자들에게 힘이 되는 소식들을 많이 전달했다.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오체투지 삼보일배는 현재까지도 매주 토요일 마다 진행되고 있다.

조계사는 수행공간이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성역화 불사의 일환으로 삼오모텔을 인수했다. 3월 7일 열린 인수식은 성역화 불사를 위한 사부대중의 노력이 '도심포교 100주년 기념관 설립'으로 완성됐음을 알리는 자리였다.

조계사는 '도심포교 100주년 기념관'을 신도들의 수행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지하 1층은 어린이, 청소년 전용법당으로 사용해 불교계의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상2층은 설법전 및 사무공간, 지상 1층은 신행생활 휴게공간과 사찰 음식점으로 활용된다. 사찰 음식점은 저렴한 가격과 담백한 맛으로 문을 열면서부터 많은 대중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3월 개강한 '선림원'은 2년 4학기제로 운영되며 전문적인 수행을 원하는 대중들을 위해 마련됐다. 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참선을 쉽고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선림원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참가자를 선별하며 교육도 각 분야별 최고의 강사들이 담당한다.

'부처님 오신날'에는 종교평화음악회와 다문화가정 결혼식, 동자승 단기 출가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올해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동자승 단기 출가에 참여해 화합의 정신을 살렸다.

숙원 사업 삼오모텔 인수 마무리
참선 수행 대중화 위한 선림원 개원
불교계 사찰 협력의 새 모델 제시
하반기에도 특색활동 계획 중

조계사는 특히 지방 교구본사와 협력해 '내포가야산 성역화 사업'에도 동참하기로 해 주목을 끌었다. 동일 사안에 대한 지방과 중앙 교구의 협력은 그동안 불교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워 사찰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 받았다.

내포가야산 성역화는 제7교구 본사인 수덕사와 보원사가 2004년부터 민족의 성지를 지키기 위해 교구차원에서 노력해 온 사업이다.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수덕사와 보원사의 활동이 종단의 자성과 쇄신 결사 중의 하나인 '문화결사'에 부합하며 동참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3월 경 협력의사를 밝혔다. 조계사와 수덕사는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을 증명으로 모시고 추진준비위를 구성하며 성역화 불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6월 28일에는 수덕사가 매년 실시해오던 '백제의 미소길 걷기' 행사에도 참여해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 날 조계사 및 수도권 불자들은 옛 가야사터에서 보원사까지의 5㎞ 구간을 묵묵히 걸으며 가야산에 스며있는 한국 불교의 자취와 소중함을 깨달았다. 특히 그동안 종교 행위가 금지돼 온 서산마애삼존불 앞에서는 최초로 공식 법회까지 마련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반기 중 왕성한 활동을 보인 조계사는 하반기에도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우선 4000여 명 참가를 목표로 하안거 방생을 준비 중이며 9월 29일에는 조계사 창건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때, 함평군과 함께하는 국화꽃 축제 등을 준비 중이다.

박기범 기자

주인없는 틈에 암굴 '일제 정비'

수락산 대암사 신도들 담당 관청에 항의

노원구가 수락산 내 암굴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무단 철거해 반발을 사고 있다.

노원구 상계동 대암사와 신도들에 따르면 노원구청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일제 정비'라는 이유로 암굴 밖 5평 크기의 가건물을 철거했다. 그러나 신도와 스님들은 장마철에 무리하게 일제 정비를 단행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담당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피해를 본 대암사는 수락산 8부능선 자연암굴에 80세 노스님 두 분이 기거하고 있는 태고종 등록 암자다. 집중 호우가 쏟아진 6월 28일 철거가 실시돼 스님들은 생필품과 귀중품을 전혀 건지지 못한 상황이다.

대암사 신도들은 노원구가 암굴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노 스님들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장마철에 철거를 시도한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원구청은 법 절차에 따른 철거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원구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4월부터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자진 철거를 통보했다.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다렸으나 자진 철거되지 않아 법 절차에 따라 철거한 것이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혜초 스님의 도전 정신 따라 대장정

동국 혜초원정대 5일 출발 중국–파키스탄–인도까지

동국대 교수·직원·학생 20명으로 결성된 동국대 혜초원정대가 중국-파키스탄-인도에 걸쳐 혜초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20일간의 대장정에 나섰다.

혜초원정대 프로젝트는 동국대 김희옥 총장 취임 이후 건학이념 구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혜초원정대는 올해를 시작으로 4년간 매 여름방학을 이용해 혜초 스님의 발자취를 좇는다.

대장정의 첫회인 올해는 중국 실크로드와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다녀온다. 중국의 시안, 둔황, 투루판, 쿠차, 카슈가르, 타슈쿠르간과 파키스탄의 길기트, 훈자, 라왈핀디, 라호르, 그리고 인도의 델리 등이 주요 목적지로 이들 지역은 혜초 스님의 마지막 여정지로 알려져 있다.

동국대는 "원정대 활동을 통해 ▷혜초 스님의 도전·탐구·세계정신 습득 ▷불교정신 이해 및 리더십 함양 ▷혜초의 서역기행과 〈왕오천축국전〉이 갖는 문명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사는 지금 감성경영으로 변화 중"

행정국장 성진 스님



"종무원들이 감성적 공감을 통해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기계적 분류보다 이것이 더 큰 효율과 화합을 가져옵니다."

행정국장 성진 스님은 변화와 발전을 위한 조계사의 노력을 '감성 경영'으로 요약했다. 감성 경영은 주지 토진 스님 취임 후 작년부터 많은 것들을 준비해 왔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조계사는 매주 화요일 아침이면 스님들과 모든 종무원들이 승소에 모여 건강식으로 마련된 식사를 하면서 전체 종무회의를 진행한다. 여느 종무회의와 달리 스님과 종무원들이 함께 섞여 앉아 대화를 나눈다. 주지 스님도 한 손에 아이패드를 들고 회의에 참석해 일반 종무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회의 방식도 안건을 순차적으로 논의하던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진행한다. 일반 종무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구석에 말없이 앉아 있는 종무원을 주지 스님이 불러내 노래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 전체 종무회의에 정해진 틀은 없다. 직무교육도 스토리텔링과 토론식 교육이 진행돼 직원들의 참여와 이해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회의가 거듭 될수록 조계사 대중들은 서로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교감하게 됩니다. 업무적 스트레스와 긴장이 완화되면서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는 것입니다."

감성적으로 타인을 이해하면서 일을 하다보니 업무 효율도 높아지고 있다. 도심포교 100주년 기념관에 마련된 승소도 휴식 개념을 강화할 계획이며 조계사 마당에 설치된 가피, 참선 프로그램 '구미호를 쫓다!'도 모두 '감성'이 반영돼 있다.

조계사는 주지 토진 스님의 감성 경영 후 조직 에너지가 강화됐다고 보고 있다. 또한 매주 토요일 실시되는 오체투지 삼보일배는 수행을 강화시켜 감성 경영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런 변화는 나부터 달라지겠다는 조계사의 의지가 담겨 있다. 또한 종단이 추구하는 결사와도 일맥상통한다. 자성과 쇄신을 통한 변화를 종무 행정 안에서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조계사는 지금 먼저 다가서서 변화하려고 합니다. 주지 스님도 권위를 벗고 먼저 마음을 열고 화합하려 합니다. 이런 노력이 타인의 마음을 열고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범 기자



내성천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율 스님이 남준기 내일신문 기자, 박용훈 초록 사진가 등과 함께 찍은 내성천 사진을 조계사 경내 전시관 '모래'에서 7월 30일까지 전시한다. 사진은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인 내성천 모래밭 풍경사진. 지율 스님은 7일 개막식에서 "내성천은 4대강 사업으로 영주댐이 건설되면서 위기에 처해 있다. 아름다운 내성천이 생태와 소통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수불 스님과 함께 한 중국 강호江湖 12 선찰禪刹 순례기

행복한 禪여행 글·정찬주

※신국판 변형, 304쪽, 올컬러, 값 15,000원
사진가 유동영의 생생한 사진으로 공안의 역사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과학시대가 바로 禪의 황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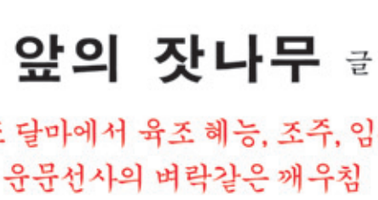
불교적 사유로 웅숭깊은 글을 써온 소설가 정찬주가 선의 황금시대를 연 중국 강호(장시 성과 후난 성)의 대표적 선사들이 주석했던 열두 사찰을 순례했다. 안국선원 수불 선원장 스님과 그 재가 불자들이 함께한 순례에서 순례일행은 천년의 시공을 넘어 선사들과 조우하며 행복한 구도의 향연을 펼친다. 저자는 아인슈타인이 "자연의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를 모두 포함하면서, 자연과 정신 모두의 경험에서 나오는 종교인 불교야말로 현대과학의 요구에 부합하는 종교"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고 수불 스님의 말씀대로 선의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고 공간의 제약을 넘어 쉽게 옛선사들의 발자취를 접할 수 있는 21세기 과학시대가 바로 선의 황금기라고 주장한다.

일주일만 앉을 수 있으면 당신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이 책은 4세기에 걸친 선의 황금시대 진면목을 저자의 빼어난 안목과 수불 스님의 친절한 해설을 통해 보여주며, 순례 일행의 선 체험 이야기와 함께 일주일만 앉을 수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전광석화 같은 수불 스님의 가르침을 전한다.



수불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는 저자 정찬주. 수불 스님은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조사와 공안의 역사 현장에서 수시로 법석을 펼치며 순례일행의 눈을 열어주었다.



※신국판 변형, 336쪽, 올컬러, 값 15,000원
사진가 윤명숙의 생생한 사진으로 공안의 역사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뜰 앞의 잣나무 글·정찬주

초조 달마에서 육조 혜능, 조주, 임제, 운문선사의 벼락같은 깨우침

중국 10대 선사의 삶과 자취를 따라 허베이河北, 허난河南, 안후이安徽, 후베이湖北, 광둥廣東까지 광활한 중국 대륙 2,000Km를 세 차례 종단한 소설가 정찬주의 혼이 담긴 禪순례 이야기.

현장에서 취재한 새롭고 친절한 禪 입문서

미들하우스

tel. 02. 333. 6250 미들하우스

일 주 문



천태종 상월원각조사 사진전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8월 15일까지 천태종 종조 상월원각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 사진공모전을 연다.



월정사 제73기 단기출가 졸업식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7월 23일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제73기 단기출가 졸업식을 봉행한다.



통도사 제5회 작은전시회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현근 스님은 7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제5회 작은전시회를 개최한다.



고운사 요사 상량식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7월 5일 고운사 요사 상량식을 봉행했다.



금산사 내비둬 콘서트
김제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7월 20일부터 8월 2·6·20일 4회에 걸쳐 금산사 내비둬 콘서트를 경내에서 개최한다.



포항 12대 사암연합회장
포항 보경사 주지 효웅 스님은 6월 27일 포항불교사암연합회의 1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동대전산원과 MOU
서울노인복지센터 센터장 청원 스님은 7월 6일 동국대 전산원 사회복지학과와 산학협력 MOU 협약을 체결했다.



김의정 회장, 문화재시민위원장으로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은 7월 1일 제2기 서울시문화재찾기 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인사〉 은해사 신도회장



영천 은해사는 7월 3일 큰법당 앞에서 신임 김제용 신도회장 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김제용 신도회장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사심없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겠다"며 신도회 사업 동참을 호소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고시생 돕는 장학재단 세울 터

'국민추천포상' 수상한 부산 천불정사 성부 스님



성부 스님(부산 천불정사 주지)은 부산대학교 법학도들의 신장(神將)으로 유명하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들에게 경내 '고담정'을 개방하고, 공부방은 물론 숙식 등을 보시하며 5년째 공부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내 고시원인 '신목정'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도 매년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100여 명 이상의 장학생을 배출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성부 스님은 행정안전부로부터 7월 15일 '국민추천포상'을 수상했다.

"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의 작은 일을 행한 것일 뿐, 우리 절에서 열심히 공부해준 부산대학생들에게 공로를 돌립니다. 이번 상이 이제 막 사회로 나가려는 대학생들에게 어려운 현실 속에 주저앉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처음 고담정에 고시생들이 방부를 들이게 된 계기는 가정불화 등의 이유로 마음의 안식을 찾으려는 신도와 그 가족들을 위한 쉼터의 마련이었다. 이윽고 대중에게 법당과 경내 모든 곳을 개방하면서 점차 요사채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 현재 고담정에는 22명의 법학도가 법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경내에서 마주치는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합격하라'는 식의 말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길 위에 있든 내 삶의 주인공이나 임을 잊지 말고, 자신의 삶에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적인 삶을 살라고 당부합니다."

향후 성부 스님은 '고담정'과 '신목정'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고시생들을 돕는 장학재단을 설립할 서원을 세웠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을 사회로 이끌어 주는 것은 물론, 불자들도 인재 불사에 동참하는 공덕을 쌓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중생심이 불심으로 변하기 위해서 불법을 알아야 하듯 불자대학생과 비종교, 이웃 종교의 신앙을 가진 학생들이, 이러한 장학 포교를 통해 각자 마음 속에 자리한 불심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 방편은 우리를 돕는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스님이라는 것으로도 충분하겠지요."

박지원 기자

제26회 불이상 시상식 개최

불이회(회장 홍라희)가 7월 5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제26회 불이회 시상식을 봉행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실천분야에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원장 선재 스님, 연구분야에 강성용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HK조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각각 2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정인숙 불이회 운영위원이 평창올림픽 유치지원 차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한 홍라희 회장을 대신해 대독한 인사말에서는 "불이회는 불교의 참모습을 깨우치기 위해 시작된 모임이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기 위해서는 불교를 위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며 "선재 스님은 음식을 통해 부처님의 뜻을 알렸고, 강성용 교수님은 한국불교를 넘어 세계불교에 기여할 촉망받는 학자"라고 말했다.

이번 불이상 심사위원장인 최병헌 서울대 명예교수는 "선재 스님은 1990년대 초부터 사찰음식의 연구·개발은 물론, 사찰음식을 현대인들에 널리 알리고, 더불어 한식의 세계화 이바지에 기여했다. 또한 강성용 교수는 국제학술회의와 국제 저명학술지를 통해 인도불교의 연구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격상시키는데 공헌했다는 점을 높이 인정해 이번 불이상 수상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재 스님은 수상소감에서 "수많은 강의를 진행해 오면서 건강이 악화돼, 많은 분들이 강의를 대기하고 있지만 쉬고 있는 상태였다"라며 "내 강의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만큼 값지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상을 빌어 다시 한 번 용기를 내 많은 분들에게 음식을 통해 부처님의 뜻을 전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용 교수는 "이번 수상은 앞으로 나의 연구가 미래의 후학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밑거름이 돼 줄 수 있겠다는 믿음과 격려차원에서 주신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많은 스승님들과 선배들이 쌓아올린 거대한 탑에 돌 하나를 보탠다는 생각으로 후학들을 위해 필요한 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가수 장사익 씨가 즉석에서 무대에 올라 축하공연을 펼쳤다. 불이회는 한국·여성·재가불교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1974년 설립돼, 1985년부터 불이상을 제정·시상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동국대, LG U+와 U-헬스 협약

동국대(총장 김희옥)와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가 차세대 블루오션으로 각광받는 U-헬스(Ubiquitous-health) 사업에 함께 진출한다.

동국대 김희옥 총장은 7월 5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을 만나 4세대 통신 네트워크 기반의 U-헬스(Ubiquitous-health) 관련 '신개념 의료기기' 개발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4G LTE(Long Term Evolution)를 비롯해 초고속인터넷, WiFi 등과 같은 통신 네트워크와 다양한 의료기기 및 서비스를 접목시켜 U-헬스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과 신개념 의료기기 개발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또, 의료기기 개발과 관련한 온·오프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일산 동국대 바이오메디융합캠퍼스에 무선 통신 네트워크 구축 투자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동국대 경주캠퍼스, 필리핀 엔더런大와 협약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김영종)는 필리핀 엔더런대학과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김영종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구본철 국제교류교육원장 등이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필리핀을 방문하여 체결한 이번 MOU는 양교 교수들의 파견과 연수, 학생교환 프로그램, 인턴십, 학술회의 및 공동 연구프로그램 구성, 어학연수 프로그램, 정보 및 학술 교재의 교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종 경주캠퍼스 총장은 "양 대학은 이번 협약에 따라 교수 및 학생의 교육, 학술, 문화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엔더런대학은 필리핀 교육부 고등교육부서의 교육인증을 받은 4년제 대학으로, 호텔경영, 조리학, 경영학 관련 학문이 특성화되어 있으며 약 2,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번 MOU로 대학영어 교육 진흥에 큰 기대를 받고 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이번 여름학기에 2명의 동국대 재학생을 엔더런대학에 교환학생으로 파견하며 활발한 학술교류를 시작했다.

노덕현 기자

천태종 대구 대성사 관음정진백만독 입재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김도산)는 7월 2일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 일심청정 관음정진 백만독 백일기도에 입재했다.

3차 3년째로 대성사 서원당에서 열린 이날 입재식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감사원장 춘광 스님 등이 참석해 정진을 당부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주경야선을 통해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평등사회를 구현하자"며 "백만독 수행으로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성사 주지 도산 스님은 "정직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마음가짐으로 하루에 한가지 잘못을 고치고 계행을 지켜 선업에 동참하자"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한국사찰음식문화연구소 개소

의성 고운사가 부설기관으로 한국사찰음식문화연구소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간다.

7월 5일 고운사 경내 우화루에 문을 연 한국사찰음식문화연구소는 문경대 호텔조리학과 황은경 교수를 소장으로 유석사 주지 도륜 스님 등 스님과 각계 전문가 16명이 운영위원과 연구위원으로 참여했다.

연구소는 앞으로 사찰음식 재료와 조리법을 연구·개발하고 사찰음식의 대중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사찰음식체험관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봉 축

일붕신문사 창간 28주년 기념대법회

초대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맹하지절에 법하의 가내(사내)에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일붕존자님의 가호가 항상 깃들기를 합장 기원합니다
금번 세계불교법왕청 초대법왕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 대학선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국가보위입법의원, 경주 불국사 주지 등
수많은 행적을 남기시고 세계최다 박사학위(문학, 철학박사 등 126개) 등
세계기네스북에 5관왕을 기록한 일붕 서경보 존자님께서
창간한 일붕신문이 어느덧 2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창간28주년을 경축하는 기념대법회에 법하를 초청하오니
부디 동참하시여 법석을 빛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기 2555(2011)년 7월

◐ 일 시 : 불기 2555(2011)년 7월 20일 수요일
(음력 6월 20일) 오후 2시 ~
◐ 장 소 : 백범 김구 기념관 대회장 전화 02)799-3424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255 (효창공원 내)
◐ 문의전화 : 02)777-0959, 777-0901 일붕신문사

※점심공양은 드시고 오십시오
※행사가 끝난 후 저녁식사 드립니다.
※경품추천 (일붕 큰스님 전지1점, 도기 큰스님, 동봉 큰스님 작품, 일붕 큰스님 전집)

일붕신문

초 청 인 회장 김도기, 사장 동 봉, 상임부회장 법 홍, 부 사 장 각 운, 부회장 정 림, 발행인 서병열 합장

백두산 순례길따라 청소년의 미래를 그리다

증심사 대원장학회 동북아 역사기행

무등산 증심사가 운영하는 대원장학회가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백두산 순례를 다녀왔다. 기행단 청소년들은 백두산에서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느끼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주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무등산 증심사에서 운영하는 대원장학회(이사장 지장, 증심사 주지)는 6월 17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20명의 청소년 및 교사들과 함께 고구려 옛 땅인 단동, 집안, 환인, 통화를 거쳐 백두산 천지를 순례했다.

대원 장학회는 매년 2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역사회 인재들에게 전달해왔다. 그러나 매년 지급되는 장학금의 의미를 이해하는 학생들도 적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들어 올해부터는 동북아 역사기행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민족역사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로 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구청장 유태명)도 행사 취지에 동감하고 백두산 순례에 함께했다.

16일 저녁 9시. 여행을 떠나기 전 기행단이 증심사에 모였다. 지장 스님, 유태명 동구청장, 이영자 후원회장(대원장학회)을 비롯한 기행단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 역사기행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날 유태명 총장과 이영자 후원회장은 기행단 아이들에게 선물과 후원금을 전달했다.



동북아 역사기행 참가 청소년들이 압록강변 단동에서 첫 일정을 시작에 앞서 결의를 다지는 모습


순례 중 카메라를 꺼내 주변을 촬영하는 청소년들.

북한과 중국의 경계도시, 단동

인천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1시간 30분 만에 중국 대련에 도착했다. 기행단은 대련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단동으로 이동했다. 단동은 두만강변의 도문시와 함께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는 대표적인 중국 국경도시이다.

기행단은 첫 일정으로 압록강 유람선을 탑승했다. 유람선은 10여분을 돌아 위화도, 월량도를 지났다. 위화도는 대륙으로 진출하려던 고려의 마지막 소망을 담은 이성계 군대가 회군을 한 곳이다. 압록강 중간에는 크고 작은 섬들이 많다. 대부분 북한 땅이다. 위화도도 마찬가지다. 배는 그 옆 월량도를 지났다. 월량도는 중국 땅으로 중국부자들의 휴향지인 곳이다. 섬에는 고가의 아파트와 쇼핑센터가 들어서고, 저녁마다 네온사인을 밝혔다. 해가지고 어둠이 찾아들자 북한 땅은 암흑세계로 변한 북한과 대조를 이뤘다.

광개토대왕의 혼이 깃든 곳, 집안

집안은 고구려 두 번째 수도인 국내성이 있고, 광개토대왕과 그의 아들 장수왕이 묻힌 곳이다. 고구려가 가장 큰 대제국을 건설했던 역사적 장소이다. 집안은 평양성과 더불어 고구려 유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다.

유적답사에 앞서 지장 스님은 "지금은 고구려의 옛 땅을 잃어버렸지만, 언젠가 우리의 힘이 커지면 다시 찾아야 한다. 중국은 고구려 역사를 자신들의 소수민족 역사로 만들어 왜곡하고 있다. 이것이 동북공정이다"라며, "우리가 조상의 역사를 모르면, 그것은 영원히 우리의 역사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단동, 집안, 백두산 등 차례로 방문
청소년들에게 민족의 자긍심 고취

버스는 1만 2000개의 고구려 무덤들이 널려있는 시내를 돌아 광개토대왕비로 향했다.

광개토대왕비는 1775자나 되는 동북아 고대사의 비밀을 간직한 아시아의 블랙박스이다. 1600년간 비바람을 맞고 견뎌낸 이 고대유물은 이제 중국양식으로 된 건물 유리벽 안에 갇혀있다.

안타깝게도 기행단은 비문 가까이서 사진을 찍을 수도, 현수막을 꺼낼 수도 없었다. 유물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것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기행단은 고구려 유적지에서 백두산 천지까지 끝내 사진을 찍을 수 없었다.

기행단은 광개토대왕비를 지나 500여m를 이동해 태왕릉에 도착했다. 그러나 태왕릉은 도굴과 심한 훼손으로 그 원형조차 짐작하기 힘든 지경이었다. 고구려의 전형적인 돌무지 무덤이지만 기단부분의 돌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훼손됐다. 중국인들은 무덤의 가장 윗부분까지 계단을 만들어 광개토대왕이 안치됐던 석실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했다.

집안에서 가장 놀랄만한 것은 1만 2000기의 무덤이었다. 그중 아시아의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장군총은 그 웅대함에서도 고구려의 기상을 엿볼 수 있었다. 엄청난 크기의 돌들은 흠을 파서 서로 맞물려 쌓아 무너지지 않게 정교하게 건축됐다. 꼭대기 층에는 왕과 왕비의 관실이 놓여있었으나 이미 도굴 당해 아무것도 없었다.

동북공정으로 빼앗긴 역사 비통
기행단, 우리사회 건강한 주인공 다짐

두 번째 날 일정의 마지막으로 기행단은 오회분 5호묘를 갔다. 5개의 봉토 중 5번째에 해당하는 분묘라는 뜻으로, 6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고구려시대의 벽화고분이다.

석실통로를 따라 들어간 분묘에서는 1600년 전 고구려인들의 아름다운 그림을 볼 수 있었다.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사신도와 함께 고구려인들의 문화와 생활상을 그린 벽화이다.

석실은 그림 보존을 위해 조명을 사용하지 않아 매우 어두웠다. 어두운 석실에서 손전등의 불빛을 통해 바라본 사신도의 모습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강렬하고 아름다웠다. 이곳에서 죽은 고구려 귀족은 사신의 보호를 받고 영생을 누리는 염원을 했을 것이다.

고구려의 유적을 둘러본 기행단은 두 번째 숙소가 있는 통화로 이동했다. 첫날과 달리 둘째 날부터는 아이들에게 연극 만들기 미션이 주어졌다. 유적지를 둘러보고 느낀 점을 연극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스스로 극본을 쓰고, 배역을 정하는 등 연극을 만들기 위해 분주했다. 이날 대부분의 아이들은 장수왕과 광개토대왕에 관한 연극을 준비했다.

민족의 영산, 백두산

기행단은 백두산 순례를 위해 새벽같이 호텔을 나섰다. 천지를 볼 수 있는 확률이 채 2%도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던 것이다. 기행단은 백두산의 서파를 통해 천지에 올랐다. 서파는 백두산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코스 중 최근에 개발된 곳으로 언덕을 따라 하늘로 이어지는 듯한 얕은 계단을 트레킹하듯 올라가서 천지를 볼 수 있는 코스이다. 하지만 무려 1200여개의 계단이 펼쳐져 있어 쉽게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백두산의 위엄을 나타내는 듯 했다. 백두산 천지에 오르는 길은 아직 여름이 오지 않은 봄날의 날씨였다. 여기저기 핀 야생초와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경이 백두산의 신령스러움을 자아냈다.

1200개의 계단을 힘겹게 오르자 눈앞에 천지가 아름답게 펼쳐졌다. 구름 한 점 없이 날씨가 좋아 전경을 볼 수 있었다.

대원장학회 이사장 지장 스님은 기행단에게 "오늘 천지를 본 것은 큰 복이다. 오늘 천지의 모습을 두고두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민족의 앞날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기행단 최훈석(정광중)군은 "빨리 통일이 되어 우리땅을 통해 백두산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 국내성

중국 북구 요령성에 위치한 환인현은 만주족 자치구로 고구려의 시조 주몽의 첫 번째 수도인 졸본성 터로 추정되는 오녀산성이 있다. 원래 졸본의 평지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산성인 오녀산성만 남았다.

오녀산성은 적의 침입에도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곳이다. 깎아지른 절벽과 정상에는 식수와 밭을 일굴 수 있고 족히 1~2만 명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실제로 이곳은 전쟁시에만 사용됐다.

험난한 길을 걸어 정상에 올라 내려다본 압록강과 평야는 장관이었다. 이곳에서 주몽이 전쟁을 지휘하고, 자신의 영토를 둘러보았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다. 험난하기 그지없는 지형은 오랜 기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방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고구려는 이 험준한 산골을 방어기지로 삼아, 서쪽으로 펼쳐지는 끝없는 몽골평야로 영토 확장을 시작했던 것이다.

고구려 이야기를 연극으로

역사기행의 마지막 밤은 단동에서 지냈다. 이날 저녁 기행단은 3개 팀으로 나누어 연극발표회를 준비했다. 엘리베이터 로비에서 진행된 이날 발표회에서는 시종일관 웃음이 그치지 않았다. 지장 스님과 현지 가이드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아이들은 기발한 웃음과 감동을 주는 연극을 선보였다.

첫 번째 팀은 주몽의 활쏘기 대회와 백두산 여행기를 선보였다. 두번째 팀은 장수왕릉의 도굴과 훈계, 세번째 팀은 광개토대왕의 일대기를 연극으로 표현했다. 직접 만든 연극대본에, 소품을 준비하고, 분장까지 한 아이들의 모습에서 늠름한 고구려 후손의 기상이 넘쳐 흘렀다.

지장 스님은 심사평을 통해 "고구려는 다시 찾아야 될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땅이다. 연극을 통해 이를 표현한 기행단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한국에 돌아가 민족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둥으로 성장해 달라"고 말했다. 대원장학회는 이번 순례를 통해 새로운 장학 사업을 시도했다. 아이들에게 세계문화의 견물을 넓히고, 민족의 역사 현장을 보여줌으로써 돈으로 다할 수 없는 심안을 열어 주었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LEADER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2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대법회

- 국 제 포 교 사 (승려, 재가법사) 품수식 -

출가승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중생교화 ,인간방생의 사명아래
승가의 본분을 이루고자 봉사와 헌신의 땀을 흘려 보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고 환경에 오염되어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에 때로는 포살과
참회의 기도로 더더욱 정진하곤 합니다만, 왠지 부족함을 늘 느끼곤 합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는 300여 종단을 불문 어느 종단의 스님이든
모두가 출가 법납이 10년, 20년, 30년이라도 새롭게 출가승으로 거듭나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겠다는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 공화국 종교성의 후원과 미얀마 연방 승가회
원로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具足戒를 주실 三師 七證 大元老 큰스님들을
모시고 상좌부 불교 승려로 거듭나는 남방불교 비구, 비구니 수계를
50분의 큰스님들과 5백여 스님들의 독경에 맞추어 봉행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 법석, 국제 금강 계단을 마련했습니다.

연방 승가회 계첩(戒牒) 수여

■ 일 시 : 8월 18일. 수계의식 6박 7일
■ 장 소 : 미얀마 양곤 연방 승가회 원로원 (종교성내)
■ 신청기간 : 7월 10일까지 모든 서류 접수 완료
■ 참가신청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층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02) 733-5670. 5665
이력서 1통, 승려증 사본1통, 사진3매, 여권을 우편으로 우송.

* 법종단 차원으로 어느 종단, 어느 스님이든
모든 스님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 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한국주재미얀마문화원
후 원 : 미얀마연방공화국 종교성, 미얀마 연방 승가회

라오스에 핀 자비의 꽃

태고종 나누우리 밴마우스초교 건립·기증

태고종이 첫 해외구호 지원사업으로 진행해 온 라오스 초등학교 건립공사가 회향됐다.

자비나눔 실천도량 나누우리(이사장 월운)는 6월 22일 라오스 루앙프라방주 시앙은시 나누우리 밴마우스 초등학교 교정에서 준공식을 봉행했다. 2010년 10월 17일 기공식을 가진지 8개월만이다.

나누우리 이사장 월운 스님은 준공식사에서 "수행자라면 솔선수범해야 한다. 봉사활동을 통해 배운 사랑을 나누는 것이 진정 아름다운 봉사"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라오스 루앙프라방주의 관계자와 나누우리 회원의 노력과 땀의 결실이 밴마우스 초등학교라는 초석을 놓았으니 이 결실이 영원한 인재양성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게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탄문팽 루앙프라방주 교육청 책임비서는 루앙프라방 주지사를 대신해 이사장 월운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탄문팽 책임비서는 기념사에서 "나누우리를 통해 대한민국을 자세히 알게됐다"며 "이곳의 어린이들은 나누우리 회원들의 자비정신에 따라 남을 도울 줄 아는 훌륭한 인재로 자라날 것"이라고 말했다.

준공식에 앞서서는 학교 교정에서 부처님 봉불 점안의식이 한국불교 전통의식으로 봉행됐다. 이날 나누우리 밴마우스 초등학교에 봉안된 불상은 석가모니 좌불로, 나누우리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한국에서 제작해 이운한 것이다. 불상은 좌대 포함 1m 30cm 크기이다.

나누우리 회원들은 준공식에 이어 지역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했다. 이사장 월운 스님은 초·중학생들을 위한 구충제 600통을, 부이사장 혜산 스님은 위생구급함과 구급약품 등을 전달했다. 이어 회원들은 책걸상 세트 칠판 공책 등 교육기자재와 티셔츠 등을 전달했다.


나우누리가 라오스 지역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는 모습.

한편, 나누우리 밴마우스 초등학교는 유네스코에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루앙프라방시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한다. 특히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한국 등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동섭 기자

박기범 기자의 라후나존자를 찾아서

"도반에 대한 믿음이 중요"

'금강 합창단' 안산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봉사팀

안산 지역 사찰 연합 합창단 성격인 '금강 합창단'은 조별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중 안산부곡종합사회복지관 봉사팀은 매월 1회 복지관 식당에서 어르신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다. 이들은 복지관이 개관하던 2005년부터 6년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봉사에 참여해 왔다.

박정숙(58), 이계순(58), 임귀숙(55), 임지향(52), 장태선(65)씨로 구성된 봉사팀은 봉사활동 날이면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배식도 담당한다. 정성껏 마련한 식사를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흐뭇한 미소가 절로 지어진다.

"몇 년째 활동하고 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아직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그저 즐겁기만 합니다."

장태선씨는 올해 65세로 봉사원 중 가장 나이가 많다. 사회적으로도 봉사를 받아도 될 나이에 남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 다른 봉사자들의 귀감을 사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한 보림 스님의 소개로 복지관과 인연을 맺었다. 보림 스님이 안산 보문선원 주지로 있을 당시 인연을 맺게 돼 스님에게서 봉사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운 것이다. 안산 사할린 마을 돕기 등 나눔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스님은 현재 안동 연미사의 주지로 있다.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며 몇 년째 합창과 봉사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이들은 서로를 도반으로 느끼며 항상 존중하고 있다. 혹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도 도반들이 힘들 것을 걱정하며 봉사활동에는 꼭 참석한다. 도반에 대한 배려와 믿음을 중시하는 팀웍이 이들의 장점이다.



"우리는 절대 결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빠지면 그만큼 도반들이 힘들 것을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합니다."

임지향씨는 자신을 비롯한 봉사자들이 절대 빠지지 않는다면서 서로를 먼저 배려하는 팀의 분위기를 전했다. 6년 동안 딱 한번 봉사에 참여하지 못한 일이 있는 이계순씨는 다른 사람을 대타로 봉사활동에 참여시켰다. 그만큼 이들은 서로에 대해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도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과 봉사를 통한 보람과 뿌듯함이 이들을 몇 년째 함께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고 있는 셈이다. 식사를 다 마치고 잘 먹었다며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어르신들을 볼 때면 봉사자들 입에도 절로 미소가 떠오른다.

불심을 바탕으로 생활하는 이들에게 봉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순간이다.

임귀숙씨는 "설겆이를 하면서 내 마음도 닦고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익힙니다. 타인이 행복한 것을 보면서 뿌듯해 하고, 피곤한 것도 잊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봉사활동 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한다고 믿으며 그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에게 봉사활동은 해야 할 일의 하나일 뿐이다. 어르신들이 다소 까탈스러운 모습을 보여도 자애로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미소를 지어 보인다.

합창과 봉사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이들은 무엇하나 소홀히 하지 않는다. 매주 수요일이면 2시간 정도 함께 합창 연습을 하고, 안산은 물론이고 논산 훈련소 수계식, 여수 엑스포 개막식 등 전국 각지의 불교 행사에도 참여한다. 올해 10월에는 안산예술의전당에서 정기연주회도 개최한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봉축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동국대 앞에서 열린 행사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합창 실력을 선보이며 수많은 불자들과 함께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했다.

이계순씨는 "환희심이 절로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불자들도 많고, 여러 사찰들이 준비해 온 것도 정말 대단 했습니다"라며 그 당시를 떠올렸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더 많은 불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남겼다. 박정숙씨는 "봉사활동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한 번만 시작을 해보면 쉽습니다. 남을 돕는 기쁨을 더 많은 불자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불자경제인들 사회적 실천 더 키우고 넓혀야

빈부의 격차, 양극화 갈등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인간정신의 개발을 제창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를 따르는 불교인들의 대 사회적 실천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불교계 안팎에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두 '경불련'이 각각 20주년 1주년을 맞았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공동대표 혜자·지현)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7월 13일 오후 6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불교계 최초의 NGO 단체로서 지나온 20년의 성과와 역할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하고 기존 봉사자와 회원들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은 1991년 7월 13일 탄생한 불교계 최초의 시민운동단체로 여러 계층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설립됐다. 산하 법인 (사)이웃을 돕는 사람들(이사장 지현)을 만들어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 △희망만들기 방과 후 교실 △네팔 현지 NGO '아침을 여는 작은 마을' △실직자들을 위한 '아침을 여는 집' △외국인노동자 인권센터 등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 기아와 질병에 고통을 받고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을 해오고 있다.

한편 7월 7일 남산 리옌에서는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회장 구자선, 경불련)가 창립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경불련은 5월 19일 조계종 신도단체에 등록한 이후 동국대 제2건학기금 모금인 'RE-START DONGGUK' 등 많은 후원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국, 대전, 광주, 경남, 전북, 강원, 제주 등 9개 지역에서 경불련지역회를 발족 추진 중이다.

이날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부처님은 경제에 있어 '수익의 4분의 2는 재투자에 쓰고, 4분의 1은 생활비로 쓰고, 4분의 1은 이웃에 쓰라'고 하셨다"라며 "세상은 더불어 사는 것이다. 세속의 경제와 불법 경제의 차이를 알고 자신의 할 일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나은·이은정 기자

원각사 불교스카우트 발대식 개최

7월 16일 원각사에서 봉행

홍법사, 청계사에 이은 세 번째 불교스카우트 발대식이 일산 원각사(주지 정각)에서 봉행된다.

일산 원각사는 7월 16일 오후7시 원각사 대웅전에서 원각사스카우트 발대식 및 선서식을 개최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각 스님을 육성단체 대표로, 컵스카우트 12명, 스카우트 6명, 벤터스카우트 2명의 대원들과 내빈들이 참석해 발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각사 측은 "이날 정각 스님이 전 대원들과 대장들에게 단복을 기증하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자랑스러운 불교스카우트 대원이 될 것을 당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정 기자

'비만', 템플스테이로 해결하자

양주 육지장사는 7월 25일~8월 5일 청소년 비만 치유를 위한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육지장사 다이어트 템플스테이'는 오늘날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와 비만을 해소하는데 스님들의 전통적인 수행법들을 통해 비만치유를 돕는다.

템플스테이는 파비스월드 비만관리 애니원프로그램을 결합해 정신수양 및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이미 50만 명 이상 체험해, 비만해소와 건강회복 효과를 거둔바 있다.

육지장사 측은 "한국의 밝고 경쟁력 있는 미래는 청소년들에게 달려있다"며 "비만예방을 위한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삶을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031) 871-0101 이은정 기자

연등축제 시상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은 7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2011 연등축제 시상식'을 봉행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한마음선원 합창단과 봉은사 신도회 등 7개 단체가 정진상을, 수국사 어린이회, 화계사 어린이회 등 7개 단체가 보현상을, 영화사 방생회 등 6개 단체가 원력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이날 정진상 등을 수상한 한마음선원 합창단과 청년연희단 서연주 씨 등이 수상 후 기념촬영한 모습.

글= 이나은 기자, 사진= 노덕현 기자



부처님을 찾아서

스님들과 함께 떠나는 불교 성지 순례단

1차 성도, 티벳(라샤), 아미산, 낙산 대불 6일 (확정)
출 발 : 2011년 8월 17일(수요일) 인천 출발
동 참 금 : 2,050,000원 (일체경비포함)
접수마감 : 7월 24일 (일요일)

2차 중국, 위해, 석도, 연대 (장보고 유적지) (예정)
출 발 : 2011년 10월 4일(일요일 부산출발). 국적기 이용
동 참 금 : 890,000원 (일체경비포함)
접수마감 : 9월 4일

3차 출발 10월 23일. 출발예정

※15명이상 단체는 언제라도 출발가능 하오니 문의 바랍니다.

불교 성지 순례 전문 여행사 JCC
전화 02)778-5412 / 팩스 02)771-7165
김재한 010-5514-7852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단기출가자 및 행자 모집
◑ 기간 : 일주일 이상 자유, 전액무료
◑ 대상 : 만 50세 미만 남자, 출가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행자 생활에 준하며 사찰의 기도, 참선, 공부, 울력 등 모든 수행에 동참
◑ 단체 시간외 1인 1실, 삭발
◑ 수련 후 바로 출가할 경우 모든 뒷바라지
◑ 대구큰절과 감포 무문관 선방에서수행
※ 행자(예비스님)모집합니다.
문의 : 053)474-8228, 010-2488-8228

무문관 재가수행자 및 스님 모집
◐ 입방 후 문 폐쇄, 하루 한끼 공양 제공
◐ 연령 제한 없음. 남,녀 선착순
◐ 기간 : 보름이상 자유
◐ 입방날짜는 개인별로 함
◐ 동참금 있음
◐ 문의 : 054)753-8228
※ 감포무문관에서 동안거 입방하실 스님 모십니다.
• 대상 : 법랍 10년 이상인 비구, 비구니
• 선착순 모집
• 문의 : 010-2488-8228

회주 우학스님의 신간
"하루 한가지 마음공부법", "감사하고 사랑하며"

쾌적한 법당형 극락 납골 봉안당
문의 : 053)474-8228, 010-6296-0108

다비… 걱정은 태산 법제화는 먼 산

스님들이 다비에 관한 걱정과 불안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단이 장기적으로도 다비에 관한 승려복지 시행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가 2008년 발표한 '각종 조사·통계로 본 조계종승려 노후생활보장의 제문제'에 따르면 스님들은 의료 및 요양과 더불어 다비에 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는 조계종 스님 대상인원 7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응답자는 73.9%인 560명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스님들은 장례방법으로

스님 대다수 다비장 선호
종단 "법제화 검토 없다"

전통적 다비장을 선호했고, 전국교구본사 단위의 다비장 설치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 재적스님의 다비 및 제반 비용에 관한 관리주체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절대다수인 91.7%(필요하다 50.7%, 매우 필요하다 41%)가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다비 및 제반비용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35.8%의 스님들이 중앙종단이라고 답했고, 교구본사가 36.7%, 거주사찰이 24.8%로 조사됐다. 비구는 53.4%가 교구본사, 사미는 44.6%가 중앙종단이라고 답했다.

스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례방법은 다비장(77.8%), 일반적 화장(12.6%), 수목장(7.2%)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님을 위한 별도의 화장장 필요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89.6%(매우 필요하다 49.5%, 필요하다 40.1%)의 스님들이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와같은 설문조사를 토대로 열린 2008년 승려복지 세미나에서 이덕진 창원전문대학 장례복지학과 교수는 다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다비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종단차원에서 법률화하고 구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조사를 분석하면 당장 종단차원에서 다비장 시설을 서둘러야 하며 전통적 다비장법의 형식과 절차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중앙종단, 교구본사, 거주사찰에서 부담해야 하며 중장기적 안목에서는 중앙종단과 교구본사, 더 나아가서는 중앙종단의 몫이라고 분석했다. 이승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무국장도 "다비에 관한 스님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 승려복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종단을 비롯한 일부 스님들은 현 종단 구조상 다비의 법제화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선운사 노후수행마을 착공식. 선운사는 승려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대표적 사찰이다.

종회 의원인 정범 스님은 "사찰들의 상황이 다르고, 형편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비까지 법제화하는 것은 심사숙고 할 일이다"고 말했다.

연꽃마을 대표이사 각현 스님은 "사찰마다 재정 규모와 여러 가지 상황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현실상 법제화는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님은 장기적인 검토와 시행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각현 스님은 "종사급 인물이 대종사급 다비를 치룬다면 삼보정재를 낭비하는 꼴이다. 장기적으로는 다비에 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다비 비용 등에 대한 규정과 이를 실천하려는 의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수 억 원이 소요될 만큼 대규모로 진행되는 다비의 법제화를 통해 본래 의미를 되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종단은 다비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총무부 관계자는 "다비장이 필요하겠지만 법제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승려복지와 관련해 다비에 관한 법제화는 장기적으로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MB정부의 새 도로명 사업으로 사라진 불교식 지명

서울 성동구 도선동(道詵洞)
서울 은평구 신사동(新寺洞)
서울 구로구 천왕동(天旺洞)
서울 강북구 미아동(彌阿洞)
부산 연제구 연산동(蓮山洞)
인천 강화군 양도면 도장리(道場里)
인천 강화군 양사면(兩寺面)
인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蓮化里)
대전 동구 내탑동(內塔洞)
대전 대덕구 법동(法洞)
대전 중구 대사동(大寺洞)
광주 서구 염주동(念珠洞)
경기 고양구 덕양구 대자동 ←大慈寺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老溫寺
경기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觀音寺
경기 동두천시 탑동동(塔洞洞)
경기 안성시 대덕면(大德面)
경기 양주시 회천읍 회암리 ←檜巖寺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노탑리(老塔里)
경기 이천시 호법면(護法面) *戶法으로 씀.
경기 평택시 청북면 후사리(後寺里)
경기 평택시 포승면 도곡리(道谷里)
경기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埋香里) *梅香으로 씀.
강원 강릉시 연곡면(蓮谷面)
강원 양양군 서면 서림리 ←西林寺
강원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法興寺
강원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清平寺
강원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啓星寺
충북 괴산군 불정면(佛頂面)
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사리(大寺里)
충북 제천시 백운면 도곡리(道谷里)
충북 제천시 수산면 다불리(多佛里)
충북 충주시 신니면 견학리(見鶴里) *見佛과 학성을 합친 이름.
충북 충주시 연하하남길 * '연하'가 '보련(寶蓮)'과 '하남'을 합친 이름이므로 '보련 하남길'이라 해야 함.
충남 공주시 사곡면(寺谷面)
충남 논산시 광석면 이사리(梨寺里)
충남 당진군 면천면 율사리(栗寺里)
충남 보령시 남포면 제석리(帝釋里)
충남 부여시 내산면 천보리 ←天寶寺
충남 부여시 석성면 정각리 ←正覺寺
충남 부여시 은산면 각대리 ←崇覺寺
충남 서천군 기산면 황사리(黃寺里)
충남 양촌면 거사리(居士里)
충남 홍성군 결성면 무량리(無量里)
전북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古寺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대불리(大佛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미천리(彌川里) *美川으로 씀.
전북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淸凉里)
전북 익산시 왕궁면 용화리(龍華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如意洞)
전북 정읍시 정우면 대사리(大寺里)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木寺洞面)
전남 담양군 대덕면(大德面)
전남 담양군 창평면 장화리 ←華陽寺 * '장전'과 '화양'을 합친 이름.
전남 보성군 문덕면 봉갑리 ←鳳岬寺
전남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大光寺
전남 영광군 백수면 죽사리(竹寺里)
전남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佛目里)
전남 임실군 관촌면 도봉리 ←道峰寺
전남 장흥군 대덕면(大德面)
전남 화순군 이서면 보산리 ←寶安寺
경북 경주시 황용동 ←黃龍寺
경북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大栗寺
경북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南寺里)
경북 산청군 삼장면 내원리 ←內院寺
경북 산청군 삼장면 ←三壯寺
경북 성주군 가천면 법전리(法田里)
경북 안동시 운흥동 ←雲興寺
경북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上柱寺 * '상계'와 '와평'을 합친 이름.
경북 영양군 청기면 무진리(無塵里)
경북 영주시 안정면 안심리(安心里)
경북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普賢寺
경북 영천시 화북면 공덕리 ←公德寺
경북 예천군 상리면 명봉리 ←鳴鳳寺
경북 예천군 상리면 보곡리 ←甫國寺
경북 예천군 하리면 동사리(東寺里)
경북 예천군 하리면 양전리 ←良田寺
경북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正明寺
경북 청도군 매전면 장연리 ←長淵寺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大覺寺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恒沙寺
경남 김해시 불암동(佛巖洞)
경남 김해시 상동면 감로리 ←甘露寺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大寺里)
경남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知足里)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제보리(諸寶里)
경남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法坪里)
경남 의령군 낙서면 여의리(如意里)
경남 진주시 사봉면(寺捧面)
경남 진주시 지수면 압사리(鴨寺里)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鳳林寺
경남 통영시 산양읍 미남리(彌南里)
경남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高節里)
경남 합천군 가야면(伽倻面) * '가야시장로'와 '가야산로'가 있음.

(자료제공=박호석 법사 · 前 농협대 교수)

특별기고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

승려복지 초기 시행착오 있어도 수희동참하길

스님들의 노후 복지란 일반인과 같이 65세 이상 스님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이란 스님들이 마음 놓고 수행하며 정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상생활의 욕구를 충족하고 교단, 사회, 문중으로부터 소외됨 없이 조화로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함은 스님들에게 필요한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개발해 연결시켜 주거나 보충해주며, 개인의 발전을 위한 욕구충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줌을 의미한다. 65세 이상의 스님들의 노후대책은 수혜가 낮고 몸과 정신이 건강치 못해 수행정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교단에 부적응하는 승려들의 노후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

몇 년 전부터 총무원 총무부에서는 승려 노후에 관한 설문조사와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노후복지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관장부서와 직무에 대해 살펴보면 조계종은 승려복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산하에 승려복지회를 두고, 총무원 총무부가 이를 관리감독 한다. 또한 교구차원에서는 교구복지회를 둘 수 있으며, 중앙의 승려복지회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토록 하고 있다. 승려복지회의 업무는 부담금의 수납 및 관리, 수행연금 결정과 지급, 수혜권자 기록의 관리 및 유지, 기금 조성 및 증식을 위한 수익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스님들의 소득보장과 주거·의료보장은 민감한 부분이나 소득보장에 있어 조계종 승려들은 매월 교단의 승려복지회, 교구복지회에서 종령에 따라 승납 기준으로 일정액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수행연금 지급액은 연금액과 국가의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받는 국민연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또한 세납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조계종 승려는 국가의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적승을 기준으로 해당교구에서 부담하되 승려복지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 종정법상의 주지 및 소임자 또는 일정보시를 지급 받는 자는 해당사찰에서,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기관에서 부담한다. 그리고 부담액 및 지원액의 규모와 대상 등에 대해 종령으로 정하고 있다.

주거보장에 있어서는 승려복지법 제24조 조계종 승려로서 분한신고를 필하고 세납 65세 이상의 조계종 승려로 입소를 신청한 자는 승려노후복지시설에 입소해 승려에 적합한 수행 활동을 할 수 있다.

스님들의 노후복지는 불교종단과 교단의 정책적인 뒷받침 아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사회보장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각 종단과 교단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개인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료를 통해서 보면,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의 승려노후복지에 대한 법을 제정했으나 재원의 마련과 세부사항등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가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미래의 종단을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잘 정비하고 실천함에 모든 스님들이 적극 동참해 미래지향적 종단이 되기를 바란다.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 심신 치유프로그램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 템플스테이

신라 화랑들의 기상과 조선시대 승병들의 혼이 깃든 함월산 선무도총본산 골굴사의 선무도 화랑사관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치유를 위해 **제 39회 (20년전통)** 여름계절 학기를 개최합니다.

컴퓨터 게임이나 과중한 학습으로 신체가 허약하고 정서가 불안한 청소년들에게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와 심신치유 프로그램
☞ 스님의 불교 강의와 인성교육
☞ 원어민 영어 강사가 함께 지도하는『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엔터테인먼트 선무도 공연단 **"사천왕"**
공연시간 : 오전 **11**시, 오후 **3**시



※ 언 제 : **2011년 07월 24일 ~ 2011년 08월 20일 (4주간)**
※ 모 집 인 원 : 매주 일요일 10시~15시 입소. 토요일 12시 퇴소.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합니다.
※ 대 상 :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일반인 템플스테이)
※ 수 련 회 비 : 1주-49만원 · 2주-9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농협 721107-51-021211 (예금주 : 골굴사)
※ 준 비 물 : 세면도구 · 수건 · 필기도구 · 운동복 · 운동화 · 모자 · 개인 컵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 접수 및 문의 : Tel 054)775-1689 / 744-1689 / Fax 054)775-1689 / 홈페이지: www.sunmudo.com
* 환 불 규 정 : 입소당일 취소는 하루수련비(7만원)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교육프로그램 : 1.건강회복 • 심신단련 :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산행
2.호연지기 : 호신술, 국궁수련, 승마교육 3.심성정화 :108배, 참선, 운력
4.정서치유 : 명상치유, 선무드라 테라피, 상담치유, 미술치유, 무용치유,음악치유(판소리,전통악기),생태체험치유
5.교양수업 :문화관광(성지순례, 박물관) 원어민 영어회화, 불교강의와 한문교육, 다도

<< 일 과 표 >>

시간	내 용	시간	내 용	시간	내 용	시간	내 용
5:00	기상	10:00	선무도 수련	13:00	독서와 사색	17:30	저녁 공양
5:30	새벽 예불 · 좌선 · 행선	11:00	108배 참회기도 · 자아를 찾는 명상	14:00	승마, 다도, 활쏘기, 선무도, 치유프로그램	18:30	저녁 예불
6:30	아침 공양 (주 1회 발우공양)					19:00	자율학습 및 참회록 쓰기
8:30	영어회화 · 불교 강의	11:30	점심 공양	16:30	울력(도량 청소 및 정리)	21:00	점호 및 취침

1500년 전통사찰 · 연인원 3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골굴사 ·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8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1년 8월 3일까지
◆ 개강일시 : 2011년 8월 4일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해병대가족법회 창립

해병대전우와 가족을 위한 법회가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에서 최초로 봉행된다. 범어사는 6월 26일 설법전에서 일요법회를 겸한 '범어사 해병대가족법회'의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6개월간의 준비기간에 돌입했다.

이날 법회에는 부산해병대전우회, 웅상해병대전우회, 금정전우회, 부산메아리산악회, 고엽제전우회 등 지역 해병대 전우회원 50여명이 참석해, 법회의 창립에 뜻을 모았다. 범어사 해병대가족법회는 매월 1, 3번째 주 수요일 저녁 7시 경내 설법전에서 운영되며 해병대 전우와 그 가족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박지원 기자**

관자재병원 개원법회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재활전문 요양병원인 부산 관자재병원(이사장 원광, 정수사 주지)이 7일 오후 3시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관자재병원은 3월 22일 문을 열고, 현재 정원 128명 중 75명의 불자환우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박지원 기자**

상락정 연화홈 개원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대표이사 혜총, 조계종 포교원장)산하 가정형 노인요양원 상락정 연화홈이 부산 도림사 주지 정찬 스님의 후원으로 6월 30일 부산시 금정구 명륜2동 주택가에 문을 열었다.

연면적 430m²(130여 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요양원 정원은 16명이며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다. 그밖에 의사의 정기적인 진료 및 어르신 개별진료, 24시간 응급상황대처 및 의료협약기관 연계 등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는 물론 원예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도 병행한다. (051) 912-8909 **박지원 기자**



두송 복지센터 "만족도 100%"

늘기쁜마을(이사장 지현, 관음사 주지)이 운영하는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두송노인복지센터(센터장 김진수)가 사하구 방문요양시설 가운데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두송노인복지센터는 7월 5일 관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 사하구에서는 유일하게 A등급을 받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5794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과 환경, 권리, 급여제공 등 5개 서비스분야에서 요양보호사의 교육이나 만족도, 이직률 등 56개 항목별로 이뤄졌다.

두송노인복지센터 관계자는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최우수기관으로 성장하는 주요 요인이 됐을 것"이라며 "어르신에게 일방적인 서비스의 제공보다는 사전 욕구조사를 통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인지해 만족도를 100%로 끌어올리려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요양보호사들은 담당하는 어르신의 질병에 대해 현직 의사로부터 기초상식과 응급처치법에 대해 배우고 있으며, 마사지와 요가 강사를 초빙해 직접 배워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요양서비스는 고령 및 노인성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08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중인 사회보험제도다.

박지원 기자

인터뷰 | 두송노인복지센터 김진수 센터장



"사회복지를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부처님은 가장 오래된 선배 사회복지사입니다. 생로병사로 고통 받는 중생을 번뇌에서 구제하기 위해 평생을 길 위에서 설법하고 보살펴주시던 그 모습을 닮고 싶습니다."

김진수 두송노인복지센터장(사진)은 2004년 개소 때부터 6년째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900여 세대 어르신들의 듬직한 장남 역할을 도맡고 있다. 센터가 자리한 부산시 사하구 다대2동은 부산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3번째로 높은 지역이다. 그중 제4지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는 1920세대 중 차상위 계층 500세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400여 세대가 살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장애인으로 6~7평 남짓의 공간에서 사회와 등 돌린 채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칫 어르신들을 불편한 대상으로 치부하거나 불쌍하다는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잘못을 범할 수 있지요. 하지만 어르신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작은 관심부터 갖기 시작하면 그분들의 삶에 비추어 현재의 나를 반성하고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데 큰 교훈이 됩니다."

독실한 불자집안에서 자란 탓에 김 소장의 경영방침은 철저한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 있다. 경영 이익을 배제한 채 전 직원이 불자로서의 소양을 길러, 경전으로 공부한 지식을 봉사를 통해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 **박지원 기자**

법당 코앞 아파트 공사에 '조석예불 불가'

부산 진흥사(주지 정법)는 7월 6일 포스코더샵 아파트 건설현장 입구에서 사찰에서 2m 떨어진 아파트 신축 건설로 받는 신행생활의 피해 등에 대한 보상 집회를 열었다.

사찰 측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공사가 진행돼 조석예불은 물론 불교대학 등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전혀 이뤄지지 않을 만큼 소음과 분진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땅을 뚫는 작업에 절 건물이 통째로 흔들려 붕괴의 위험도 높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사찰과 맞닿은 조합 소유의 땅에 승용차 5대 가량을 주차하고 드나들 수 있는 진입로와 주차공간을 양해를 얻어 사용하고 있었으나, 공사현장의 철벽이 들어서며 그마저도 사라져 차량이 들어올 수 없게 됐다. 사찰 관계자는 "1년 전 부터 지금까지 수영구청과 민락재개발조합, 포스코건설에 신도들의 서명을 받아 민원을 제기하고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왔다. 구청장과 국회의원을 만나서 대책수립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사찰 측은 △사찰 붕괴 위험에 따른 추후 책임 △소음, 분진 등에 따른 대책 및 보상 △완공 후 조망권, 일조권, 홍보권 등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3년간 진흥사 주지스님 이하 신도 등의 신앙생활 파괴와 종교생활 위축으로 나타날 제반 문제에 대한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락재개발조합 관계자는 "공사가 1%도 시작되지 못했는데 벌써 사찰 측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면 추후 원하는 바를 조율하기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각서를 쓰라고 해 거부했다. 만일 공사 중 피해가 일어나면 그때 보상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포스코건설과 민락재개발조합이 각각 시공사와 시행사를 맡아 2014년 완공을 목표로 27층 12개동 1006가구 규모로 아파트 공사를 진행 중이다. **박지원 기자**



부산 진흥사 스님과 신도들이 7월 6일 사찰에 인접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신행생활 피해 등에 대한 보상 집회를 열고 있다.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나보다 남이 더 잘되길 기도합니다"

대광명사 김성수 씨



불교 행사는 대체로 의의는 있지만 재미는 없다. 진지한 가운데 예불 의식이 끝나면 점잖게 둘러앉아 차담을 나누거나 불교합창단의 찬불가 공연을 감상한다. 대광명사 사무량심회 김성수(법명 일진, 57) 회장이 마이크를 잡으면 다르다. 법당에는 웃음이 흐르고 특유의 언변과 좌중을 압도한다. 동참한 사부대중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그의 말 한마디에 대중은 박장대소하다가도 이내 눈시울이 붉어지며, 부처님을 향한 경외심에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한다.

> 봉사를 위한 봉사가 되서는 안된다 단 10분이라도 마음을 나눠야 한다

김성수 회장은 부산 불교계의 국민 MC로 통한다. 대광명사(주지 목종)의 봉사단체인 사무량심 회장을 맡으면서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홍보이사, 허허원(원장 정타) 사무국장, 부산불교방송산악회 산행대장, 前 부산시자원봉사교육원과 간병인센터 등 교계는 물론 사회봉사 교육기관을 넘나들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에게 주어진 소임은 기획과 홍보 분야지만, 실제로 여러 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기획부터 홍보, 현장 진두지휘, 음향장비 설치 등 어떠한 행사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의 손을 거쳐야 완성된다. 그런 탓에 본업은 뒷전이고, 일주일 중 6일 이상을 부산지역 여러 사찰에서 기획회의를 하며 보낸다.

"교계에서 일하는 시간과 실제 본업에 임하는 시간을 따져보니 7:3이더라구요. 수첩을 보면 개인적인 시간은 거의 없고, 전부 '몇시에 어느 절에서 어느 스님과 무슨 내용'이라는 글 뿐 이지요. 스님과 사찰에게는 한 달에 한 번인 회의지만 저는 그런 월례회의를 매일 다니는 셈입니다. 그래도 나를 인정해주는 가족들이 있어 힘이 납니다."

홍길동처럼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듯 열정적으로 불자로서의 삶을 사는 김성수 회장이 처음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어릴 적 독실한 불자이던 모친의 영향이 컸다. 중학교 무렵, 단짝친구의 동진출가로 절은 친구네 집이 되었고, 청년이 돼서도 집 근처 사찰에 스스로 찾아가 참배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 후 평생 도반인 아내를 만나면서 함께 수행하고, 이를 다시 실천하기 위한 봉사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김 회장은 "봉사를 위한 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도시락만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단 10분간이라도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목적은 반찬 배달이 아니라 어르신이 한 끼 공양을 행복하게 드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항상 '십시일반(十匙一飯)'이라는 말을 되새긴다. 열사람이 한 술씩 보태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이 된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을 합치면 한 사람을 돕기가 쉬워짐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그의 진심은 마이크를 타고 대중의 마음에 전달되는 것이다. 어느 덧 불자로서 당당한 삶을 사는 스스로가 자랑스럽다는 김성수 회장은 오늘도 부처님을 든든한 후원자로 모시고 유쾌한 신심을 세상에 전한다.

"저는 부처님께 '나와 우리 가족이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이 잘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남이 잘되면 결국 긍정의 에너지가 나에게도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법석에서 사부대중의 앞에서 많은 분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제 인생의 최종 목표입니다."

박지원 기자

동산불교대학 39기 신입생 모집



"끝없는 열정"
신행 교육 포교 전문도량 동산

동산불교대학은 각 분야의 권위있는 교수님들을 통해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각종 수행을 통하여 보다 행복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꿈을 실현시켜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지성인들의 배움의 공간입니다.

▶ 교과목 및 교수

불교학과	대승불교,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불교사회복지론, 불교학 개론, 선학의 이해, 불교미술,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근본불교, 반야사상, 유식사상, 불교상담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법화사상 18과목
교 수 진	무진장 대종사 학장스님, 주명철 교수, 정엄스님, 김형준 교수, 보광스님, 종석스님, 보각스님, 최종석 교수, 윤열수 교수, 김호귀 교수, 활안스님, 최봉수 교수, 김상현 교수, 묘주스님, 정성준 교수, 권경희 교수, 박종 교수, 정병조 교수, 차차석 교수 외

▶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 불교학과 (180명) (토요반 · 목요반 · 통신반 각 60명) · 불교다도학과 (3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한문학과 (30명) · 사찰음식문화학과 (30명)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11년 6월 27일~8월 6일 [9월 개강학과] 2011년 7월 1일~9월 8일 **입학금 250,000원**	[불교학과]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토요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목요반) (통신반)은 교재와 테이프 제공.

▶ 개강일시
불교학과 : 2011년 8월 6일(토) 오후 5시(동산불교회관) 입학식 및 개강
불교다도학과 9월6일(화), 사찰음식문화학과 9월7일(수), 불교한문학과 9월8일(목)
불교미술학과 9월8일(목) 개강

▶ 원서문의 · 교부처
본대학 사무처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특전사항 : 불교학과, 불교한문학과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올 여름 사찰서 특별한 경험을

전북 지역 조계종 교구본사인 금산사(주지 원행)와 선운사(주지 법만)가 여름 휴가 기간을 맞아 아주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준비했다.

올해부터 초기불전 전문대학원을 개설한 선운사는 7월 26~29일과 8월 5~8일 2차례에 걸쳐 아나빠나(수식관) 집중수련회를 개최한다. 3

금산사
'내비둬 콘서트'

선운사
'아나빠나 집중수련회'

박 4일간의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 초기불전 대학원장 재연 스님의 법문과 교수사 환성 스님이 아나빠나 시대 경전 강의, 학감 도정 스님의 수행 지도가 예정돼 있다.

아나빠나 수행이란 수식관이라고도 하며, 코끝의 호흡에 번호를(1~8까지)붙여가며 관하며 집중력을 계발하는 수행법으로 주로 남방 불교권에서 이뤄져 왔다.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는 7월 29일~ 8월21일까지 금산사에서 '나는 쉬고 싶다'라는 주제로 여름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금산사는 2박 3일간 총 4회에 걸쳐 100명씩을 초청할 계획이다. 금산사는 이번 템플스테이가 더욱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불교문화 콘텐츠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행사는 금산사 일감 스님과 함께 3~40대 직장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여름 한번 잘 쉬어볼 수 있게 '나를 내비둬'라는 콘셉트로 준비된다. 금산사 템플스테이에서는 2박 3일 동안 나를 구속하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는 'ESC', 숲길포행, 일감 스님의 내비둬 콘서트, 108배, 참선명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섬마을 여행가 강제윤, 섬진강 시인 김용택, 달팽이 사진골방 주인장 임종진, 이야기가 있는 사찰음식 선재 스님이 매회 게스트로 초대돼 토크쇼 형식으로 일감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내비둬 콘서트'는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산사 수련원장 일감 스님은 "'내비둬 콘서트'는 있는 그대로의 평등함을 지향한다. 긴장으로부터 여유를 누리며, 화내기 이전의 분별하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가 즐거운 열정을 만들자는 다짐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콘서트에는 이창선 퓨전국악밴드, 인디밴드 유&김, 아쟁 김영길, 이태연씨 등 지역에 활동하는 음악인들이 함께 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 지역 사찰들이 특색있는 템플스테이를 준비했다. 사진은 금산사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의 모습

선사들의 수행결사 한자리서 조명

백양사 제3차 야단법석

고불총림 백양사가 한국불교의 선지식을 초청,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은 누구인가'에 대한 토론 법회를 개최한다.

고불총림 백양사는 8월 4일부터 7일까지 백양사 경내에서 '수행결사와 참스승을 찾아 떠나는 길'이라는 주제로 제3차 백양사 야단법석을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중요경전에 나와 있는 선사들의 수행결사를 조명하는 자리로 △영축총림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의 '율장에 담긴 수행결사'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의 '선어록에 담긴 수행결사' △동사섭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의 금강경에 담긴 수행결사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의 '생명평화경과 나의 수행' △익산 사자암 향봉 스님의 '육조단경에 담긴 수행결사'에 대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된다.

참수행자들의 뜻을 모으는 결사는 예로부터 한국불교 수행의 근간을 이루고 수행자들에게 끊임없는 화두와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백양사 야단법석은 각 경전에 나와 있는 결사의 의미를 되새겨, 오늘날 한국불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슬기로운 대안을 만들어 낼 예정이다.

행사를 준비하는 백양사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한국불교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선지식들이 참여하여, 열린 이야기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며, "뜻있는 불제자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061)392-0100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해남 대흥사 천운 스님 1주기 추모다례재 봉행

복지 포교 주력한 호남불교 큰 별

지난해 입적한 호남불교계의 큰 별, 천운스님의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

해남 대흥사(주지 범각)는 대흥사 보현전 앞마당에서 제1주기 천운당 상원대종사의 추모다례재를 7월 3일 봉행했다. 추모다례재에는 원로의원 진제 스님, 명선 스님, 암도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700여 명이 동참했다.

추모다례재는 원행 스님(금산사 주지)의 행장소개에 이어 원로의원 진제 스님의 추모 법문,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추모사, 주요 인사들의 추모사, 헌화 등으로 진행됐다.

자승 스님은 이날 추모사를 대신해 영정 앞에서 삼배의 예를 올렸다.

진제 스님은 추모법문에서 "천운 스님은 복지포교에 남다른 보살상을 실천하신 호남불교의 큰 어른이셨다"며 "스님의 원력을 받들어 사부대중 모두는 쉼 없이 정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천운 스님은 7월 14일 오전 10시 광주 향림사에서 법랍 64세, 세수 79세로 열반에 들었다. 스님은 입적 전 문도들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말고 선행을 받들어 실천하며, 마음을 늘 청정하게 수행하면,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유훈을 남겼다.

스님은 1958년 고창 선운사에서 구족계를 각각 수지하고, 구례 화엄사와 해남 대흥사 주지와 조실을 역임했으며, 지역 장애인과 노인, 불우아동 등 평생을 호남지역 불교포교와 교육, 복지에 큰 업적을 남겼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대흥사 천운대종사 1주기 추모다례재

통일쌀 경작으로 일치된 한마음

화엄사·기아차·조선대 구례농민회


화엄사, 구례농민회, 기아차, 조선대가 통일쌀 경작에 지속적 협력을 다짐했다.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구례농민회(회장 김종옥)와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와 더불어 7월 1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방문하고,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2007년부터 어려운 북한 동포를 위해 통일쌀경작단을 구성하고, 매년 통일쌀 공동 모심기와 모내기 행사를 갖고 만남을 이어왔다. 수확된 쌀은 조계종 민족공동체지원본부를 통해 북에 지원했다.

구례 화엄사는 이날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에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이라는 백장 청규의 내용이 담긴 액자를 전달했다.

화엄사 재무국장 우석 스님은 인사말에서 액자의 적힌 글의 의미를 설명하며 "절에서 함께 노동을 하는 운력은 구름처럼 힘을 모은다, 여럿이 같이 힘든 일을 나누어 한다"라는 의미라며, "스님들의 마음가짐이 농부와 노동자들의 마음가짐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구내식당에서는 구례에서 경작한 쌀 1만가마를 매년 소비해 주는 광주공장과 노동조합에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어 한층 의미를 더했다.

한편 2007년 시작된 통일쌀경작은 화엄사 소유의 땅 900평에 화엄사 스님들과 구례 농민회,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동조합,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공동으로 경작한 400여 가마를 매년 북한에 지원해 왔다. 2006년 당시만해도 쌀 시장 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농촌경제와 농민들의 마음은 피폐해 있었다. 이에 화엄사는 농산물 직거래 전시장을 경내에 개설하고, 구례지역 쌀로만 부처님 공양물을 올리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민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새로 조성된 삼존불에 헌향을 하는 수산 스님

화재의 아픔을 이겨낸 복원불사

대원정사, 소실된 대웅전 삼존불 점안법회 봉행

대원정사(주지 일화)는 3년 간의 복원불사로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 대웅전 복원불사를 마무리하고, 삼존불 및 후불탱화 점안법회를 7월 2일 봉행했다. 이 날 행사는 고불총림 방장 수산큰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됐다.

점안식에서 수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새로운 대웅전에서 자신이 마음자리를 깨우치는 불자들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복원된 대웅전은 2007년 6월 화재로 소실됐으며 2008년 4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복원공사가 진행돼 작년 4월에 완공됐다.

그 후 비로자나불, 석가모니불, 로사나불인 삼존불을 모시고 후불탱화와 불단 등이 마련돼 이날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대원정사는 지역의 불교대학을 확대하고, 향후 어린이와 노인복지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승속이 함께 하는 공동체 정신으로 지역발전 도모

선운사, 선운골 공동체 화합한마당 개최

전북 고창의 천년고찰 선운사(주지 법만)가 지역주민 등과 함께하는 화합의 시간을 7월 5일 마련했다.

선운사 생태공원 앞에서 열린 '선운골 공동체 화합한마당'은 전북 고창군 삼인마을과 석상마을, 상가 번영회와 협의회, 선운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활공동체인 선운골 공동체의 발전과 화합을 다졌다.

참가자들은 족구, 농구공 넣기, 제기차기, 윷놀이, 고리 던지기, 림보, 볼링 등의 놀이를 겸한 게임을 펼치며 승속이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을 발휘했다.

법만 스님은 "선운사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보다 나은 친절과 서비스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의미를 담아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이 고리 던지기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전국 사찰전문 공급업체

다영보이 茶瑩普珥

1. 중국 운남성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북부 청정지역의 야생차엽을 현지인들이 채취하여 현지 공장에서 제품화하고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 포장한 제품입니다.
2. 정식 수입통관 절차 및 부산세관 식약청의 무농약·중금속 검사를 모두 통과 하였고 2010년 한국식품연구소에서 무농약 입증검사 실시 통과한 제품입니다.
3. 다영보이는 1996년 약 12년 이상 정성을 다해 산차로 숙성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증기로 쐬어 숙차병차로 만들었으며 철저한 관리에 의해 보관하여 부드럽고 깊은 보이차만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산차 ~~75,000원~~ 38,000원
산차 ~~70,000원~~ 65,000원
병차 ~~165,000원~~ (500개 한정수량) 99,000원

순수자연 야생보이차



• 판매원 : 마하몰 02)732-1520
• 제조원 : 다 영 보 이 02)959-887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7 토마토파르코오피스텔 1507호
www.dayoungtea.co.kr / www.다영보이.kr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엠프 소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ital Echo


• 高音質 무선마이크

고장난 마이크 완벽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 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 일반 마이크 V-606LC


◇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 가격 : 135,000원(일반형)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조선 국행수륙재, 삼화사가 최초이다”

차장섭 교수, 학술발표회 통해 삼화사 국행수륙대재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촉구

“국행수륙재는 개인의 천도가 아닌 사회통합의 의미가 강하다. 삼화사 국행수륙재는 최초로 설행됐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의 역할을 담당했다.”

동해시가 지난 4월 정부에 삼화사 국행수륙대재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와 삼화사 국행수륙대재보존회가 7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삼화사 국행수륙대재 학술발표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차장섭 강원대 교수는 ‘동해삼화사 국행수륙재의 배경과 전개’를 주제로 열린 주제 발표에서 국행수륙재가 삼화사에서 시작했음을 주장하며, 삼화사 국행수륙대재의 문화재 지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차 교수는 “조선시대 수륙재는 동해 삼화사에서 처음으로 설행됐다”며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개국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은 고려왕족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동해 삼화사에서 수륙재를 거행했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삼화사 국행수륙대재에 대해 〈태조실록〉을 근거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국행수륙재 설행을 통해 건국과정을 정당화하고 친고려 성향의 세력들을 포용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태조실록〉 7권에는 ‘임금은 수륙재를 관음굴과 견암사, 삼화사에서 베풀고 매년 봄과 가을에 항상하였다. 고려의 왕씨를 위한 것이었다’고 기록돼있다.

이중 관음굴은 강화도에 있으며 견암사는 거제도에 있다. 강화도와 거제도는 조선 개국 후 고려 왕씨 일족이 유배된 곳이다.

차 교수는 이중 삼화사 수륙재 만의 의미를 고려 마지막왕인 공양왕과 두 아들이 교살된 곳이란 점에 주목했다. 〈고려사절요〉에는 당시 공양왕이 태조 3년 갑술년(1394년)에 삼척부에서 요절한 내용이 나온다.

이와 함께 차 교수는 삼화사 국행수륙재의 배경으로 동해·삼척 지역이 조선왕실의 건국세력의 기반지역인 점을 들었다.

차 교수는 “삼척은 태조의 4대조인 목조 이안사가 17년간 머문 곳으로 삼척지역에는 목조 부모의 묘가 있을 뿐 아니라 삼화사에는 이안사가 손수 사경한 경전이 보관돼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삼화사와 조선왕실의 긴밀한 관계는 조선건국 직후 최초의 국행수륙재 거행 배경일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내내 왕실이 삼화사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이런 삼화사 수륙대재가 사회통합과 불교대중화의 계기가 됐다고도 주장했다. 차 교수는 “태조는 고려 왕씨를 위해 관음굴 견암사 삼화사에서 매년 봄과 가을에 수륙재 개최를 법식으로 삼았다. 이는 오대산 상원사에 옮겨갈 때 까지 19년간 38회나 계속됐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이후 태종 14년 오대산 상원사가 추가되지만 상원사에서 개최된 수륙재는 왕씨들의 원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재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장섭 교수는 상원사로 국행수륙재가 옮겨진 이후에도 삼화사에서는 사찰중심의 수륙재가 지속적으로 개최됐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16~17세기 간행된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2종이 삼화사에 소장된 것은 삼화사에서 수륙재가 지속적으로 거행됐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동해·삼척이 군사적 요충지로 전쟁으로 인해 희생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삼화사의 호국사찰로의 성격과 사회통합의 기능을 미뤄보아 우리나라에서 수륙재의 전통을 가장 잘 간직한 사찰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수륙재 중심사찰은 어디?

2010년 10월 불교계에서는 수륙대재 행사가 잇따라 봉행됐다. 동해 삼화사가 삼화사 신도회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2~24일 수륙대재를 재현한데 이어 서울 진관사도 개산 1000년을 기념해 23~24일 수륙대재를 봉행한 것이다.

수륙재의 중요무형문화재 등록을 두고 수륙재 설행 사찰인 삼화사와 진관사는 각각 매년 학술대회를 열고, 수륙재를 재현하고 있다. 마치 수륙재 중심사찰로 두 사찰이 경쟁하는 형국이다.

이중 삼화사는 삼화사가 소장한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1547년판) 의궤를 바탕으로 국행수륙대재를 재현하고 있다.

삼화사
“최초 설행과 함께 고려 추종세력 보듬기 사회통합의 美 지녀 ”

진관사
“수륙사 건물 존재 행차 등 기록 있어 왕실 주도 수륙재 열려”

삼화사 국행수륙대재는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 삼척지방으로 유배된 뒤 이곳에서 교살되자 태조 이성계가 이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던 고려왕족을 위한 수륙재를 연데서 시작됐다.삼화사 국행수륙대재는 조선 건국과정에서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수륙재로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태조 4년(1395년) 고려왕족을 처형한 개성 관음굴, 거제 견암사, 삼척 삼화사에서 국행으로 처음 성행된 후 매년 봄과 가을에 항상 거행했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있다.

삼화사는 2005년부터 학술대회 등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고증해 설행하고 있으며 동해시에서는 이러한 국행수륙대재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성을 인정하여 지난해 11월 강원도를 통해 문화재청에 중요무형문화재 신청을 한 상태다

삼화사 수륙재를 연구 중인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는 “수륙재의 본래 의미는 단순히 개인차원의 재난과 복덕을 위한 종교행위가 아닌 사회적 유대를 공고히 하는 공동체 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며 “수륙재는 갈등구조 해소를 목적으로 해 사회적 불안이 고조될 때 국행으로 열렸기 때문에 고려왕실을 추종하는 세력을 비롯해 왕조 교체 과정의 희생자를 위로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조선 초기 수륙재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관사는 수륙재가 가장 번성했던 사찰로 진관사 수륙대재는 조선왕실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다.

고려왕실을 따르는 이들을 달래는 수륙재와 함께 조선왕실 후손의 안녕을 기하고 새 왕조의 기틀을 튼튼히 하려는 국가 수륙사의 건립이 대두돼 태조 6년(1397년) 59칸에 달하는 대규모 수륙사가 건립됐다. 이후 매년 정기적인 수륙재를 비롯해 조선왕실의 재가 진관사에서 열려왔다. 태종 재위 18년에 성녕대군을 위한 수륙재를 비롯해 연산군이 성종의 수륙재를 열었다. 세종년간부터 문종 1년까지 수륙사가 대대적으로 중수됐다.

이에 진관사는 2009년부터 학술대회를 여는 한편 매년 수륙재를 설행하고 있다.

진관사 수륙대재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 소장은 “진관사는 왕이 직접 행차한 기록이 있으며, 수륙사가 있는 왕조의 수륙재를 담당한 중심사찰”이라며 “조선왕실 주도하에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재가 봉행됐다”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연등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류

소위 구성 재조사 9월 9일 재심사키로

신라, 고구려, 조선시대를 걸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교문화의 화려한 축제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연등회(燃燈會)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7월 8일 중요무형문화재 심사위원회를 열고 연등회의 문화재 지정을 보류, 9월 9일 재심사키로 했다.

이번 심사에서 일부 문화재 조사의원들은 연등회에 문화재 지정에 대해 미진한 점을 개진해 이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조사키로 했다.

불교계는 불교계를 넘어선 의식이자 행사로 오래 전부터 국가 대표브랜드화와 공인을 요구해 왔다. 조계종은 2009년 문화재청에 연등회에 대해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유는 고증과 재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다.

불교계에서는 지난해 조계종이 문화재청에 신청한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이 무산되자 정부의 전통문화인식 훼손의 목소리가 높았다. 조계종은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술세미나 및 전통등 제작·전시회 등을 진행해왔다. 노력 끝에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 이번 심사를 앞두고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문화재청 소속 중요무형문화재지정 조사위원들이 연등회와 연등축제의 모든 과정에 참여해 현장실사를 벌였다. 5월 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연등행렬에는 32만명의 국내외 인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정병국 문화체육부장관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태스크 포스팀 운영도 제안하기도 했다.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불교문화재로는 제27호 승무, 제48호 단청장, 제50호 영산재, 제118호 불화장 등 4종목이 있다.

한편, 연등회는 황해도 고구려 고국원왕(재위 331~371년) 무덤 안악 3호분 벽화에 그려진 행렬도엔 등롱(燈籠)을 든 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으며, 삼국사기에 신라 경문왕(재위 861~875년)과 진성여왕(재위 887~897년) 간등(看燈) 기록이 있는 등 오래된 민족 전통이다.

노덕현 기자

〈학술단신〉

■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 워크샵**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운영위원 미산 등)는 8월 7~13일, 16~22일 2차에 걸쳐 〈선치료〉(Zen Therapy)의 저자 데이빗 브레이저 박사(영국 아미타 트러스트 회장)를 초청 불교심리치료 워크샵을 개최한다.

서울 신정동 국제선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불교심리워크숍은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는 심화 집중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편, 데이빗 브레이저 박사는 2010년 11월 한국을 방문해 불교심리치료 워크숍과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진행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 **대각사상연구원 학술세미나**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은 7월 18일 중국 연변 국제호텔 회의실에서 ‘용성 스님의 민족운동과 연변불교’ 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국대와 연변대 교수진들의 용성 스님과 연변불교에 대한 다양한 발제가 진행된다.

허명철 연변대 교수의 ‘연변불교의 어제와 오늘’, 김광식 동국대 교수의 ‘용성연구의 회고와 전망’,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의 ‘용성 스님의 민족운동과 연변’, 김석주 연변대 교수의 ‘연변지역 유이민사와 불교’, 리관복 연변대 교수의 ‘한용운 문학과 불교’가 발표된다. (02)581-3138 노덕현 기자

■ **문화재청 문화재 환수 아이디어 공모전**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이 국외 소재 중인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환수·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에 나섰다.

문화재청은 개청 50주년을 맞이해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대국민 토론회 개최를 앞두고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기간은 7월 7~18일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국외소재 문화재 대상 종합적인 조사·연구 방안 및 효과적인 보호·활용 방안, 체계적인 환수 방안, 문화재 환수 기반 공고화 방안, 국제적 협력 확대 방안이다.

심사 결과는 21일 개별 통보된다. (042)481-3181 노덕현 기자



이재복 지음(280면)
정가 12,000원



이재복 지음(280면)
정가 12,000원

※ 누구든지 그림을 보고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폐결핵,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쫓겨나서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 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빛 살림
정正골骨요법

침, 뜸, 부항, 물리치료, 척추교정, 무중력 감압치료, 수술, 경락, 지압 등 대증치료를 오래도록 받았어도 증상이 계속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책을 읽고 오셔서 한번만 체험해보시면 대번에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전신의 상쾌함을 곧바로 몸이 느끼게 됩니다.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운동법이 사람을 살립니다.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어깨통증, 오십견, 협착증, 좌골신경통, 목 뻣뻣, 수족냉증, 갑상선, 안면마비, 휜다리, 암, 교통사고 후유증, 우울증, 불면증
당뇨, 아토피, 부정맥, 류마치스, 협심증, 두통, 심근경색증, 생리통, 발기부전, 전립선, 체온저하증, 골병으로 인한 통증, 적취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꽉차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 요법.
자궁근종, 암수술전·후. 항암치료 마치신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책. 강력하고 놀라운 디톡스로 몸속을 대청소한다.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싹~ 뽑아내서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 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NAVER 정골본가 검색

책 구입시 『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 정골본가(이영숙) 서울 성수동1가 14-35(우영B/D 4층) · 제2010-서울성동 0204호 · 207-01-43500

■ 도서구입안내
빛살림 요법 강좌세트(2권). 책값 20,000원을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 농협계좌 : 농협 : 751017-52-024285 김순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책신청 : 054)637-9810



불교의례의 꽃, 수륙재 복원이 바로 민족문화수호

수륙재는 영산재와 함께 대표적 불교의례다. 점차 수륙재를 전승하는 스님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수륙재의 설행빈도는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현대에 이르러 사찰에서 수륙재를 설행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라지게 됐다. 최근 동해 삼화사에 이어 진관사에서도 수륙재의 복원이 시도되면서 수륙재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미등 스님의 자문을 토대로 수륙재에 관해 살펴봤다.

수륙재의 의미

경전에서 수륙재의 의미는 '아귀를 구제하기 위해 바라문선에게 공양하고, 아귀에게 시식하는' 의식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수륙재'는 '물과 뭍에서 죽은 고혼을 위한 의식' 또는 '물과 뭍을 떠도는 외로운 고혼을 위한 의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륙이라는 단어로 인해 의미의 혼선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한다.

〈연담대사임하록〉의 '수륙법어'에서 수륙재에서 수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십법계 중 모든 불 · 성문 · 연각 · 보살, 이 네 성인은 성인이기 때문에 청정하다. 그래서 물[水]에 비유한다. 그리고 천도 · 인도 · 수라 · 방생 · 아귀 · 지옥의 육법은 평범하기 때문에 더럽다. 그래서 육지[陸]에 비유한다"고 수륙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수륙재의 본래의미는 십방법계의 바라문선과 아귀, 성인과 범부, 깨달은 성인과 미혹한 중생, 성과 속, 진제와 속제, 명계와 양계,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등 모두가 둘이 아닌 하나로, 차별 없이 평등하게 한 자리에 모여 법식을 베푸는 재회를 말한다.

수륙재의 역사적 배경

수륙재는 양 무제(502~549)가 천감사년(天鑑四年, 505)에 처음으로 설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설행된 최초의 수륙재는 문헌 기록으로 볼 때 고려 광종 19년에 설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조선시대 들어서 초기에는 국행으로 설행됐다. 점차 억불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왕실에 의해 지속적으로 설행됐다.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성행하게 된다. 후기로 가며 지속적인 억불을 넘어 폐불 정책의 영향으로 수륙재는 사자의례의 통칭적 경향으로 그 성격이 변화한다.

조선시대 국행수륙재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설행됐다. 처음에는 조선의 개국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고려왕실의 왕씨를 위해 견암사, 관음굴, 삼화사 세 곳에서 국행으로 설행됐다.

이후 전염병이 돌거나 악질퇴치 구병을 위해, 축성공사에 동원되었다가 죽은 역부의 혼령을 위안하기 위해, 임진왜란 등 각종 전란에서 전사한 자를 위해, 나라의 세곡을 운반하는 조전선 운항하다 배가 침몰하게 되어 죽은 자를 위하여 설행됐다.

또한 왕실에서 선왕 · 선비의 추천(追薦)을 위해 국행으로 수륙재가 설행되었다. 국행수륙재가 폐지된 이후에도 민간에서의 수륙재는 지속적으로 설행되게 된다.

수륙재의 절차

수륙재의 의례는 수륙도량을 열기위한 준비의식으로 시련의식 · 대령의식 · 괘불이운의식 · 조전점안의식 등이 선행된다. 시련의식은 수륙도량의 결계 경계인 일주문 앞까지 나아가 수륙법회를 증명할 불보살님과 호위할 신중을 모셔오는 의식을 말한다. 대령의식은 고혼들에게 간단하게 음식을 대접하며 본 의식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의식을 말한다.

수륙재의 본의식이 쇄수결계의식으로부터 시작된다. 쇄수의식은 법수를 도량(또는 단)에 뿌려 청정하게 하는 의식을 말하며, 결계의식은 청정한 수륙도량의 경계를 정하는 의식을 말한다. 그리고 사자단의식이 진행된다. 사자는 천상의 부서를 지니고 인간세상을 살피는 첨사의 역할을 하는 자로 해(年)를 주관하는 사천사자, 달(月)을 주관하는 공행사자, 날(日)을 주관하는 지행사자, 때(時)를 주관하는 염마사자 등 사직사자(四直使者)를 말한다. 이러한 사직사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세계 즉 '수계'와 '륙계'에 수륙도량이 마련되었음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어서 오로단의식이 진행된다. 오로단의식은 수륙도량을 공간적으로 활짝 여는 의식을 말한다.

다음 본격적인 의식으로 상단의식이 진행된다.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 그리고 성문과 연각 등 사성(四聖)을 청하여 공양 올린다. 이어 중단의식이 진행되는데 천신 · 천룡 등 천계중(天界衆)과 땅과 허공에 있는 지계중(地界衆), 그리고 염마계(閻魔界)의 명군(冥君) 등을 청하여 공양 올린다. 다음 하단의식이 진행되는데 하단의식은 아귀와 지옥중생, 고혼과 원혼 등 육도윤회중생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하단의 대상을 청하여 목욕시키는 의식으로 시작한다. 목욕을 마치고 상위와 중위에 나아가 공양을 올리고 하위의 고혼이 공양하는 의식이 진행된다. 공양을 마치고 고혼을 대상으로 설법 수계하는 의식으로 하단의식이 마쳐진다.

끝으로 봉송회향의식이 진행된다. 수륙도량에 모셨던 위목과 번, 의식에 쓰인 소문과 방문, 장엄에 쓰인 각종 지화 · 금전 · 은전 · 주망공사 · 반야용선 등을 태우며 보내드리는 봉송의식으로 수륙재를 마치게 된다.



지난 2009년 동해 삼화사에서 설행된 국행수륙대재

"불교의례, 불교사상의 눈으로 봐야"



"의례 자체를 수행의 방편으로 불교사상을 보다 반영하는데 힘을 모을 때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불교의례가 수행의 방편으로 치러지는 경우를 찾아보기란 힘들다. 조석예불을 비롯한 일상 의식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불교의례는 주로 사찰 불사적 목적을 띤 의례와 공연적 목적을 띤 의례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미등 스님(사진)은 이러한 의례의 변천에 대해 불교사상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근본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미등 스님은 불교의례연구 전문가로 고려대에서 민속학을 연구하며 의례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수륙재 복원에도 힘쓰고 있다.

미등 스님은 오늘날 불교의례에서는 불교의례가 갖는 본래기능이 퇴색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그 원인으로 선중심의 불교문화로 인한 의례인식의 저하, 불사중심의 의례 발달, 기능 · 공연중심의 전문화를 들었다.

스님은 "의례는 하나의 수행체계임에도 오늘날 의례는 구복적 성격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불교의례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수행법의 하나로서 의례의 본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런 의례의 변질이 관례화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스님은 "일상의례의 집전자가 대부분 법랍이 어린 스님들로 법회의식에서 주지스님이나 어른스님은 의례의 끝부분에 등장하여 축원이나 설법을 한다. 의례 자체를 소홀히 하는 단초로 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저변에는 의례를 하근기로 여기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불교의 수행법이 다양함에도 언제부터인가 참선을 상근기로 나머지를 하근기로 여긴 인식이 이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인식이 의례의 중요성을 놓친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의례 · 의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며 복원과 재현 등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스님은 이런 과정에서도 기능중심의 전문화로 인한 종교 본연의 신성성 상실을 경계했다.

스님은 "재현과 복원이란 기능적 전문성에 매몰된 나머지 본래 의미를 놓친 경우가 많다"며 "의례와 의식이 지니는 의미를 면밀히 연구해 이를 기반으로 복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국제 선 불교 조계종

회장 : 목탁 혜은 부회장 : 금당 법성

포교원장 : 불도 천장 교육원장 : 현담 송광 감찰원장 : 일해 공심 비구니 회장 : 보현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만만한 감자, 영양은 만만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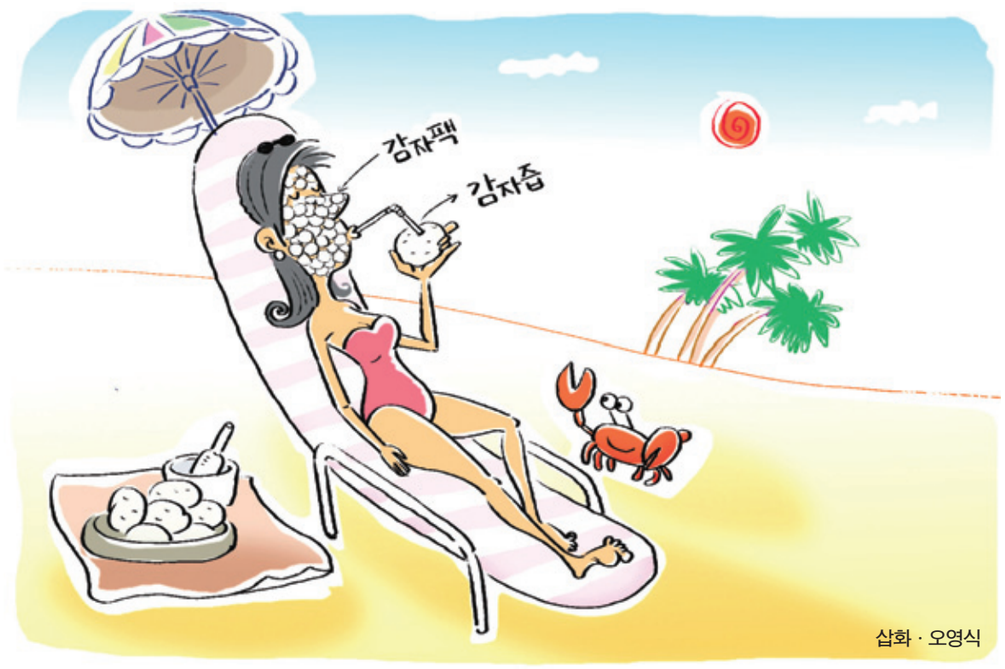
감자의 재발견

감자는 1kg에 1000원 정도 한다. 장마 탓에 값이 올라 현재 시세는 kg당 2000원 정도이다. 그래도 여전히 만만한 식품이다. 비교적 저장성이 좋은 감자는 1년 내내 식탁에서 만날 수 있지만 하지를 지난 7~8월 제철에 먹는 감자는 가장 맛이 좋다.

배고프던 시절 밥을 대신하던 식품으로 고구마와 함께 구황작물인 감자는 어렵던 시절 주린배를 채워주던 고마운 식품이었다. 기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현대인에게는 탄수화물 덩어리로 살찌는 식품으로 오명을 쓴 채 홀대 받고있다.

세계암연구재단은 암예방을 위해서 매일 400g이상의 채소를 섭취하라고 권장한다. 400g의 채소는 생각보다 많은 양이다. 시금치 한 단 또는 4인 가족이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소비하는 쌈 채소의 양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매일 400g의 채소를 매일 먹는 것은 어렵지만 감자가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다.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감자가 비타민이 풍부하고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탁월하다는 것을 알고 먹는 이는 드물다. 고혈압, 당뇨에도 좋고 위장병 치료에도 도움 된다는 감자의 효능 자세히 살펴보자.



삽화 · 오영식

나트륨 배출에 최고

고혈압 당뇨 등 나트륨 섭취에 매우 유의 해야하는 질병들이 있다. 그러나 가공식품인 과자,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양은 1일 권장량을 웃돈다.

김치 등 저장 발효 식품이 발달한 우리나라 식단에는 한식조차 항상 나트륨이 초과되기 마련이다.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좋은 영양소인데 바로, 감자가 칼륨이 매우 풍부한 식품이다.

감자 속 다량의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평소 식단에 소금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좋다. 감자는 포만감이 크고 당분이 적어 당뇨병 환자에게도 좋다. 특히, 사과보다 칼륨이 4배나 들어있을 만큼 칼륨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나트륨을 배출해야하는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산성화된 체질을 바꿔주는 알카리성 식품

사람의 몸은 알카리성 상태인 PH 7.5인 상태가 가장 좋다. 그러나 패스트푸드 등 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즐기는 현대인의 몸은 산성에 가깝다. 몸은 산성으로 변할수록 피로가 쉽게 쌓이고 쇠약해 진다. 칼륨, 칼슘, 무기질, 마그네슘 등의 영양분이 많은 감자는 다량의 칼륨을 가지고 있어 알카리성 식품으로 분류 된다. 감자는 산성인 고기, 생선, 유제품, 밀가루 음식의 섭취로 산성화 된 몸을 알카리성으로 이끌어 균형을 맞춰 준다.

서울대학병원 김원경 영양사는 "사실, 감자뿐 아니라 대부분의 채소가 알카리성 식품입니다. 감자는 포만감과 영양면에서 밥을 대신 할 수 있는 채소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고 말한다.

생으로 먹으면 위장병에 좋아

1990년부터 미국의 국제 암센터인 NIC(National Cancer Institute)에서 암을 예방하는 암을 예방하는 식물을 발표하고 있다. 발표된 40여 종의 식물 중 감자도 포함돼있다. 특히, 위를 보호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위암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 적이다. 생감자에 많은 프로테아제 억제 물질은 바이러스와 발암성 물질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한때 일본에서는 야채와 함께 생감자를 갈아마신 환자에게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 생감자즙을 마시는 일이 유행하기도 했다. 강판에 간 생감자를 삼베에 걸러내 아침, 저녁 식사 1시간 전에 1컵씩 마시는 것이 그 방법이다. 생감자 즙이 암세포를 파괴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면역력을 높여준다.

레오 이경제 한의원의 이경제 원장은 "감자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이 많이 나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가슴에 열을 내려주고 위와 장을 자극해 배변과 이뇨 작용을 원활하게 해 줍니다. 대사 기능이 활발해져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몸이 찬 음인에게는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는 등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비타민 철분 많은 영양식품

잘 알려진 대로 감자의 주성분은 전분이다. 즉 탄수화물이다. 많은 탄수화물에 비해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적기 때문에 몸의 주 에너지 원이 된다. 당분이 낮은 감자는 철분, 마그네슘과 같은 중요한 무기성분이 풍부하다. 같은 양의 쌀밥보다 철분이 많아 빈혈환자에게 좋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C, B1, B2, 나이아신과 같은 인체에 꼭 필요한 비타민도 함유하고 있다. 반면 감자는 비타민A가 없고 단백질이 적어 당근과 브로콜리, 달걀과 닭고기와 함께 먹으면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가 된다.

삶지 말고 쪄서 드세요

감자는 물에 삶거나 오븐에 굽는 것보다 쪄서 먹으면 감자 속 비타민을 더욱 많이 유지 할 수 있다. 감자 1개를 먹으면 같은 양의 야채를 먹는 것보다 비타민의 섭취량도 많고 먹는 것도 수월하다.

감자에는 비타민이 많이 함유 돼 있다. 감자에는 괴혈병과 빈혈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비타민C,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비타민 B1, 식욕부진에 효과적인 비타민 B2, 염증에 효과적인 비타민 B6 등의 함유율이 높다.

보통 비타민은 녹색 야채나 과일로 섭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보통 야채와 과일의 비타민은 물과 열에 많이 파괴되는 반면, 감자의 비타민은 전분이 비타민을 둘러싸고 있어 조리를 하더라도 손실되는 양이 훨씬 적다. 감자를 40분 이상 삶아도 비타민의 70%가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하지만 감자를 얇게 잘라서 삶는다면 전분의 보호능력이 줄어들어 비타민의 손실이 크다.

햇볕에 탄 피부에 효과 만점

벌겋게 햇볕에 타면 감자를 얇게 썰거나 갈아 팩을 하면 좋다. 감자의 비타민C 성분이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환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강판에 간 감자와 밀가루를 1:1로 섞어 얼굴에 거즈를 대고 발라 준 후 20분 정도 두었다가 세안하면 벌겋던 피부가 가라앉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감자에는 솔라닌 이란 독성이 있어 싹과 껍질을 벗겨내 사용하고 가능하면 싹이 난 감자와 빛을 받아 녹색으로 변한 감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

감자 오래 보관하는 방법

감자는 햇빛을 차단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5℃ 이하의 차가운 냉장고에서는 전분이 당으로 변해 감자가 검게 변질된다. 10kg의 감자 한 박스에 사과 하나를 넣어두는 것도 요령이다. 사과에서 발생하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가 싹을 틔우지 못하게 도와준다. 반면에 양파를 감자와 함께 두면 둘 다 쉽게 무르고 상하므로 따로 보관해야 한다.

깎은 감자 갈변 막는 방법

감자의 갈변을 막기 위해서는 찬물에 담가두면 된다. 물에 담가두면 산소와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감자의 영양분이 물속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감자를 2시간 이상 물속에 담가 두는 것은 좋지 않다. **천진영 기자**

참조 〈잘먹고 잘사는법 41 감자〉
도움말 서울대학병원 김원경 영양사
레오 이경제 한의원 원장 이경제 한의사

감자 100g의 영양 성분

성 분	함유량
열량	80kcal
수분	78.1%
단백질	1.5g
지질	0.2g
당질	18.5g
섬유소	0.5g
칼슘	3mg
나트륨	3mg
칼륨	420mg
비타민 B1	0.17mg
비타민B2	0.04mg
비타민C	18mg
나이아신	1.2mg

출처 : 농촌진흥청

이은정 기자의 뻔뻔(Fun Fun)한 레시피⑧

버섯탕수

'웰빙' 열풍이 불면서, 한번쯤 "나도 채식해 볼까?"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고기를 끊고, 채식을 한다는 것은 아마 담배 끊는 일 만큼이나 독한 마음이 필요하다. 실제로도 채식에 성공한 이들을 금연에 성공한 이들과 동일시하는 경향도 있다.

'버섯탕수'는 웰빙 열풍에 힘입어 채식을 싫어하는 이들을 위해 나온 대표적인 음식이다. 약간 거무스름한 표고버섯은 마치 갓 튀겨낸 고기와 비슷하고, 소스는 본래 고기탕수와 별반 차이가 없으니 언뜻 보기엔 그냥 고기탕수라 해도 깜박 속아 넘어가기가 쉽다.

'버섯탕수'는 직접 먹어보면 고기 탕수와는 전혀 다른 육질을 느낄 수 있다. 표고버섯의 쫄깃쫄깃 씹히는 맛과, 입안을 맴도는 알싸한 향은 고기 특유의 냄새보다 훨씬 풍미하다. 이런 표고버섯이 새콤달콤한 소스와 어우러지면 우리가 흔히 먹던 고기탕수보다 훨씬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낸다. 탕수가 흔히 '배달음식'의 대표음식이라 생각하지만, 가끔은 건강을 생각하며 집에서 가족들과 버섯탕수를 만들어 먹어 보는건 어떨까.



알고가기 표고버섯은 지방이 적고 식이섬유소가 풍부해 다이어트 음식에 제격이다. 특히 콜레스테롤 흡수를 지연시켜 돼지고기 등과 함께 먹으면 좋다. 암의 증식을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어, 혈관개선과 변비예방에 탁월하다.

재료는 이렇게 준비 하세요

표고버섯 15장, 당근 2분의1개, 오이 2분의1개, 파프리카 각 1개, 파인애플 통조림, 감자전분2큰술, 식초 2큰술, 설탕2큰술, 간장1큰술, 오렌지주스1컵, 파인애플 국물 반 컵, 물 반 컵, 소금 1작은술, 참기름, 식용유, 후춧가루

음식 만들기

① 생 표고버섯일 경우, 끓는 물에 살짝 데치고, 마른 표고버섯은 깨끗이 씻어 물에 불린 후 마른 거즈에 물기를 뺀다.
② ①은 소금, 참기름, 후춧가루를 넣어 밑간을 한다.
③ 오이, 파프리카, 당근, 파인애플 등은 적당히 먹기 좋게 썰어 둔다. 이때 파인애플 국물은 버리지 않는다.
④ 오렌지주스와 파인애플 국물, 물을 냄비에 넣고 식초, 설탕, 간장, 소금을 넣고 간을 한다.
⑤ 감자전분은 미리 물에 풀어놨다가, ④가 끓을 때, 넣어 잘 저어준다. 어느 정도 끓으면, 미리 썰어놓은 야채들을 넣어 한 번 더 끓여준다.
⑥ ②를 감자전분에 묻인 뒤, 달궈진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튀겨낸다.
⑦ 표고버섯을 다 튀겨내면, 완성된 소스를 부어준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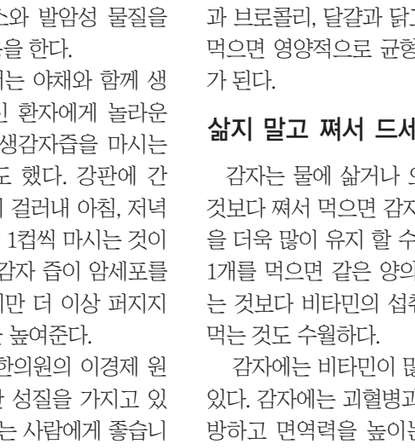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핫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 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 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2011년형 여름 신상품 특별 할인 판매



휘나핫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암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욱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 강봉대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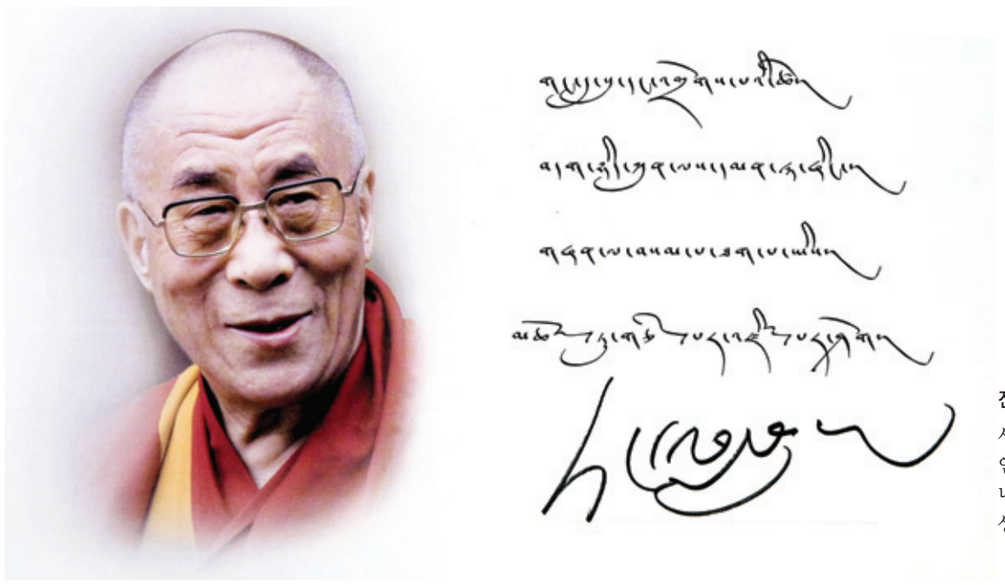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 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숱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왜 티베트 불교인가



전 세계인에게 전하는 달라이 라마의 기도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나 자신을 가장 미천한 사람으로 여기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상대방을 최고의 존재로 여기게 하소서

티베트 불교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 달 영화배우 리차드 기어 방한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티베트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월 6일 달라이라마 생일을 전후로 불교계 안팎에는 티베트 불교를 주제로 학술회와 초청강연이 잇따라 진행됐다.

티베트 불교의 힘은 리처드 기어의 방한에서 더욱 부각됐다. 그의 방한은 단순히 한국불교를 배우고자 온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사진전 '순례의 길' 기자회견에서 티베트의 실상은 물론 중공 감옥에서 갖가지 고문을 당한 티베트 승려들의 사진을 소개하며 중국의 티베트 불교 말살 정책을 고발하는 등 티베트 인권 문제를 시사했다. 리차드 기어는 달라이 라마의 특사격으로 티베트하우스 미국(Tibet house US)의 공동 창립자이자 회장으로 티베트 국제 활동기구(ICT)에서 활동해왔다. 그는 달라이 라마의 5번에 걸친 미국방문을 공동 후원할 정도로 티베트 불교를 알리는데 힘써왔다. 또, 티베트 불교 뿐 아니라 티베트 문화 보전과 티베트인을 옹호하는 등의 인권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구에서 티베트 불교는 종교이기에 앞서 불교학과 불교예술, 명상 등을 통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구에서는 불교와 티베트 불교의 역사에 대한 연구소와 책, 자료도 수없이 많고 하루가 다르게 티베트 불교 수행을 하겠다는 이들이 늘고 있다.

티베트 불교가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된 것은 1959년 티베트 망명정부 이후의 일이다. 티베트 불교는 수행법이나 가르침, 예측 등 본연의 종교유산을 스스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보존해오고 있다. 삶의 질을 생각하는 많은 현대인들은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이들은 함께 티베트의 독립과 자유도 외치고 있다.

이러한 티베트 불교의 구심점에는 달라이 라마가 있다. 달라이 라마는 불교를 대표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지도자 이상의 세계 평화와, 지성, 선의를 북돋는 불교교황이며 보살이고 티베트 임시정부를 이끄는 국정 수반의 역할을 하고 있다. 3월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활동 은퇴를 선언했지만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평화와 구원의 메시지로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

한국 불교는 티베트 불교보다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세계에 미치는 한국불교의 영향력은 미미하다. 최근 한국불교가 웰빙과 더불어 사찰음식과 간화선 등으로 세계화에 나섰지만 갈 길은 멀기만 하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불교의 한 종단의 종정 이상의 존재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한국불교의 한 종단에 종정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현실과는 분명히 대조된다.

이런 가운데, 7월 6일 전 세계에서 달라이 라마의 생일을 축하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서울 AW컨벤션 센터에서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를 사랑하는 700여 사부대중이 모였다. 티베트하우스 코리아(원장 텐진 남카)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생일 축하법회에는 달라이 라마의 막내 동생인 텐진 최곌 나리 린포체와 그의 아내이자 망명정부 여성지도자 티베트 사마니회 총재 린첸 칸도가 함께했다. 아쉽게도 주인공인 참석하지 못했다. 달라이 라마는 한국에 언제쯤 올 수 있을까.

티베트하우스(Tibet house)는

유럽 각 국가를 비롯해 일본, 미국, 인도, 러시아 등 20여 국가에서 티베트 망명정부 대사역할을 한다. 티베트의 평화와 비폭력, 윤리도덕 가치의 확산, 공생가치 구현 확산 운동을 진행 중이다. 달라이라마는 미국에도 연 1~2회 방문해 법회를 연다. 달라이라마는 7월 5~18일 미국을 방문 중이다. 여전히 그의 법회에는 1만 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고 있다.

티베트하우스는 일본에도 개소돼 있다. 티베트하우스는 일본에 1976년 설립 이후 일본정부, 사회, 종교계의 지원을 받으며 동아시아 대표부 사무소 역할을 하고 있다. 1967년 달라이라마가 일본을 찾은 이후 매년 1~2회 수 천명이 모인 가운데 달라이라마 초청 법회가 이뤄질 정도로 티베트 불교에 관심이 높다. 올 10월 30~31일 일본 법회 일정도 잡혀있다.

이상언 기자

달라이 라마 축하 감사 메시지

저는 언제나 벗들에게 제 친구로서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친구, 평범한 불교 승려인 달라이라마의 주된 수행, 주된 관심사는 인간의 연민, 인간의 사랑을 확대시키려는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연민과 사랑의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성의 도움으로 그것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차원의 사랑은 편향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지성의 도움을 받아 평등한 사랑을 하며, 무한한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무한한 자애와 연민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달라이라마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저의 최고 생일 선물일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종교를 믿든 저 종교를 믿든 그것은 다 부차적인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으로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행복의 궁극적 근원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며 내면적 강인함입니다. 제 생일을 축하하는 벗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물론 축하하는 자리이니 재가자 여러분께서는 술을 즐겁게 드시되 부디 절제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다람살라 前 교육부장관 및 티베트 사미니회 총재 린첸 칸도

"달라이 라마는 민중을 버리지 않았다"

다람살라 前 교육부장관 및 티베트 사미니회 총재 린첸 칸도(**사진**)는 달라이 라마 생일법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전했다. 그는 달라이 라마의 막내 동생의 부인으로서 제수이기도 하지만 "달라이 라마는 내게도 정신적 스승"이라고 강조했다. 린첸 칸도는 이날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 민족의 정치적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고 종교적 지도자의 활동을 선언한 내용을 거듭 언급했다. 린첸 칸도는 7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티베트 여성수행의 전통'을, 같은 날 서울시의 회별관에서 '영성을 통한 생명의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아래는 격려문 요약문〉



달라이 라마가 전하고자 하는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 인간이 모두 지향하는 친절, 자비, 이타심 등의 메시지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전 세계에서 종교 간 상생과 화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그의 헌신은 전 세계에 고루 미치고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2011년 3월 정치적인 권력을 티베트 사람들에게 이양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루아침에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1959년 티베트 망명정부가 시작한 이래 그의 마음에는 한결같이 티베트의 정치와 사회구조적 개혁, 민주주의를 생각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설파하고 실천했습니다. 53년간 정치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티베트인들에게 돌려준 예는 이 시대에 가장 특별하고 의미 있는 메시지이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달라이 라마 성하를 계속 모시고 싶고, 책임을 다 떠안는 것이 주저되지만 이 일을 기꺼이 떠안고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티베트 민중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티베트 민중은 조심스럽지만 성하가 함께 하시기를 믿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든든합니다.

앞으로 민중들의 고단한 여정은 계속 되겠지만 티베트 인들은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고 스스로 뽑은 지도자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한국과 티베트 불교 신라시대부터 교류 해왔다"

'한국불교와 티벳불교의 만남' 주제 학술회 열려

14대 달라이라마의 종파인 겔룩파는 일찍부터 국제화 사업을 다각도로 펼쳐 왔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티베트 명상센터 붐을 일으켰고, 그 붐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티베트 불교의 기초가 신라국의 왕자 김무상 스님(680~756)과 원측 스님(613~696)의 〈해심밀경소〉의 기여가 컸던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끈다.

티벳장경연구소(소장 김성철), 불교학연구회(회장 박경준),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는 7월 9~10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백상관에서 '한국불교와 티벳불교의 만남'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양승규 박사가 '한국불교가 티베트 불교에 끼친 영향'을, 텐진 남카 스님이 '티베트 불교 기도문의 종류와 의미'를, 최연철 박사가 '티베트 불교의 역경사적 전개와 학적 의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양승규 박사는 신라 왕인 김무상 스님과 티베트 사신이 만나 티베트 불교의 기초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또 신라 왕족 출신인 원측 스님의 〈해심밀경소(解深密經疏)〉가 티베트 불교와 유식학을 이해하는데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양 박사는 "김무상 스님과 티베트 사신의 만남은 침체된 티베트 불교를 재건하는 방법에 대한 예언을 받았다는 점에서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 예언에 대한 기록은 후대 까규파 주석가인 빠오쭉라텡와(1504~1566)가 초기 티베트 역사서인 〈바쎄〉와 〈바쎄샵딱마〉를 인용해 저술한 〈최중캐베가뙨〉에 근거한다. 또 무상 스님의 독자적인 인성염불(引聲念佛)과 무억(無憶), 무념(無念), 막망(莫妄)의 삼구설법으로 대중을 교화 시킨 정중선법이 9~10세기 티베트 불교의 암흑기에 소개돼 티베트 불교의 재건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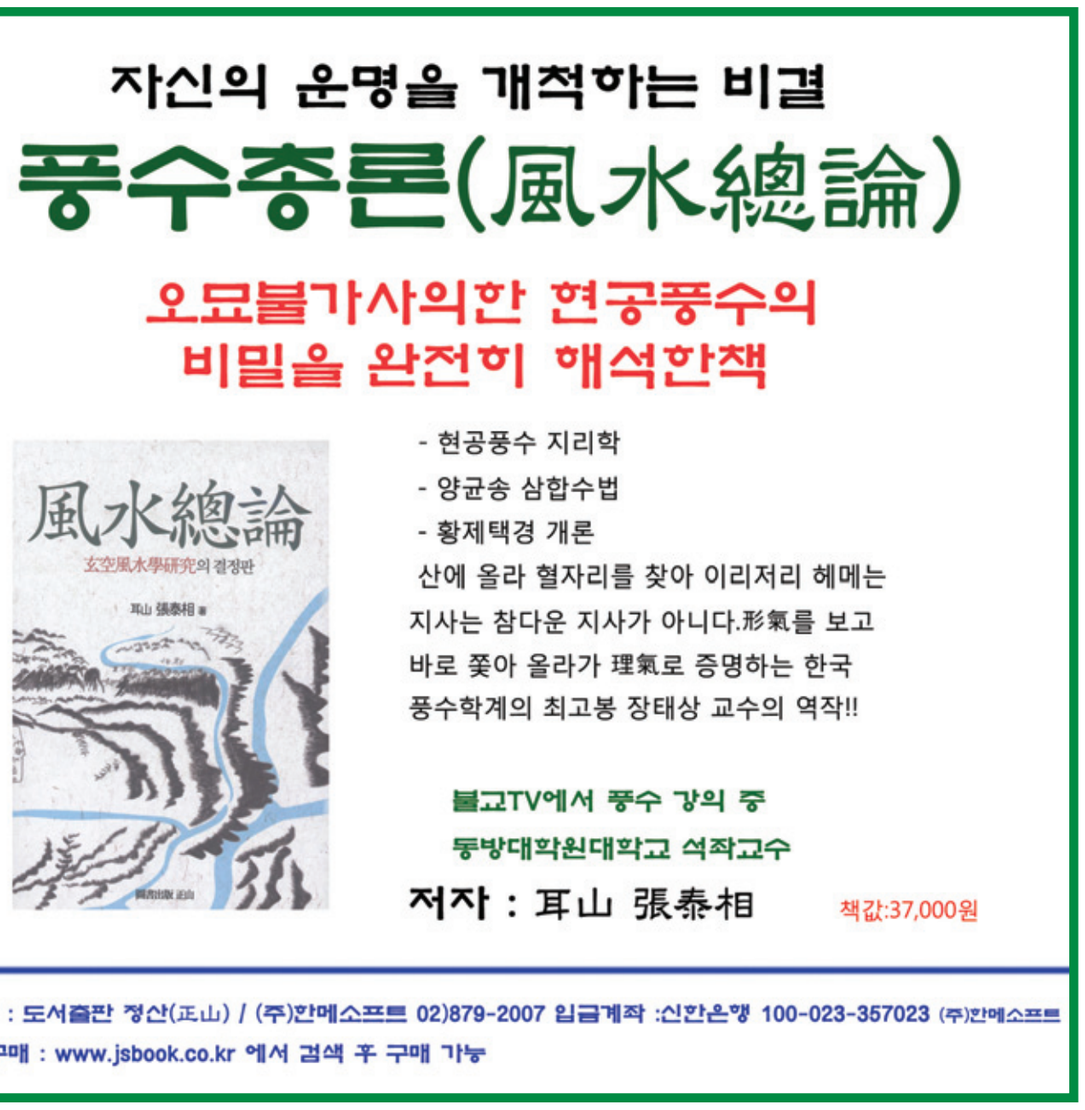
양승규 박사는 겔룩파를 창종한 쫑카빠(1539~1419) 저술에서 티베트 불교에서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의교(依教) 유식학에 대한 독립적인 저술 〈마나식과 아뢰야식〉 〈마나식과 아뢰야식의 나해한 부분을 자세하게 주석한 선설의 바다〉에서 의교유식파에 대한 상세한 언급이 있음을 소개했다.

양승규 박사는 "쫑카빠가 원측 스님의 〈해심밀경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해심밀경〉에서 삼성(三性)과 삼무자성(三無自性: 인연생기의 무자성)과 같은 유식의 존재론에서부터 지관(止觀)의 수행체계 등 유식학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연철 티벳장경연구소 연구교수는 '경전 번역의 학적 의의'에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고도의 선정능력을 키우는 것 못지않게 가르침을 보호하고 전하는데 목적을 실천할 수 있는 지성과 논쟁능력을 갖춤으로써 붓다의 실천적인 삶에 접근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티베트 불교의 일화 중 지적인 학습에만 너무 몰두해 논리와 언어의 맹목적 신념에 빠진 채 오만과 질시를 일삼는 학자들을 경계하는 다양한 내용도 소개했다.

이상언 기자





대한민국이 원하면 달라이 라마는 만사 제치고 온다

티베트하우스 코리아 원장 텐진 남카 스님

티베트하우스 코리아는 2008년 일산 여래사(회주 정우)에 둥지를 틀었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거의 없었다. 한국에는 한국정부와 중국과의 관계 등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창립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달라이 라마 생일에 맞춰 창립을 하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연기된 상태다. 달라이 라마의 생일 하루 전 티베트하우스 코리아 원장 텐진 남카 스님을 만나 티베트하우스와 달라이 라마의 근황, 한국 불교와 티베트 불교를 물어봤다. 글=이상언 기자



텐진 남카 스님은… 1968년 출생. 8세에 남인도 티베트 사원인 간덴 사원으로 출가해 31세까지 5대 경전을 배운 후 5대 경전을 15년 넘게 강의를 하고, 박사(게셰) 중 최고의 지위인 라담을 취득하기 위해 간덴, 데붕, 세라 사원의 스님들과 6년 동안 5대 경을 시험 본 후 2000년 게셰라람빠 학위를 받았다. 2001년 규메 사원에서 1년 동안 밀교를 공부하며 현교를 강의, 2002년 규메 사원에서 간덴, 데붕, 세라 사원의 박사들과 함께 박사 최종시험에서 1등을 수행했다. 2002년부터 간덴 사원의 교수로 임명돼 2003년까지 강의했다. 현재는 동국대 티벳장경연구소 연구초빙교수, 티베트하우스코리아 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티베스하우스 코리아 원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티베트하우스 코리아에서 원장으로 이름만 돼 있을 뿐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티베트 스님 10여 명이 있지만, 그동안 한국과 티베트의 인연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깊지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달라이 라마가 한국에 오지 못한 것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제가 한국에 온 것도 결국 존자님의 뜻이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한국 신도들이 당신의 법문을 듣고 티베트 불교를 배우기 위해 인도로 찾아 온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한국인들의 깊은 신심을 본 달라이 라마가 제게 한국에 가 티베트 불교를 소개하고 교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어떤 존재인가.

달라이 라마는 모든 티베트인들이 부모처럼 생각하는 스승이자 왕입니다. 저는 달라이 라마 성하로부터 비구계, 보살계, 밀교계 등 모든 것을 직접 받았고, 8세 때 출가 이후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를 알게 됐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한국에 올 계획은.

한국에서 초청을 하고, 준비가 된다면 언제든지 존자님(달라이 라마)은 오실 것입니다. 보통 존자님을 초청하려면 2~3년 전부터 말씀을 드려야 하고 망명 티베트 정부로부터 1년 전에 방문 허가가 납니다. 매년 일정이 정해져 있지만 달라이 라마는 "한국에 갈 일이 생기면 다른 일을 취소해서라도 갈 의향이 있다. 한국 방문에는 정치적인 어떤 것도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다"고 말해 왔습니다.

(한국 불교계가 주축이 돼 초청을 시도한 적이 있지만 달라이 라마 초청은 한국과 중국 정부 간 관계 문제로 아직 이뤄진 적이 없다.) 초청에 또 실패하면 존자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주, 자유, 선진국가인 한국이 그렇게 눈치 볼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중국의 압력과 자국 내 국민의 열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국 정부는 다른 쪽에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존자를 한국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단지 대한민국 국민이 원한다면 모실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가 전 세계에서 각광받는 이유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부처님 가르침은 같습니다. 대승불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티베트에서 승려가 공부하는 데에는 20여 년이 걸립니다. 그만큼 철저히 공부를 하고 다른 나라에 가기 때문에 법을 전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1959년 인도로 망명 갔을 때 한국 나이로 25살이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망명을 한 첫 번째 이유는 종교였고, 두 번째는 민족의 자유였습니다. 티베트는 종교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인도는 오늘 끼니를 해결하면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야 할 정도로 가난했지만 존자는 미래 티베트와 티베트 불교를 위해서 학교와 종교재단을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이때 인도 수상이 어린이를 위한 교육 시설을 세우는데 직접 동참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도 종교재단 설립은 어려웠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간절한 부탁과 요청을 해 설립했고 이후 끊임없이 대중을 교육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종파는 겔룩(Gelug), 카규(Kagyu)파, 닝마(nyingma)파, 사캬(sakya)파가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겔룩파 안에는 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처음 출가할 때는 절에 500여 명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4000명까지 늘었습니다. 당시 공부한 스님들이 전 세계에 포교활동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25살 젊은 달라이 라마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존자는 티베트 불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티베트가 없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계획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티베트 승려들은 모두 영어를 잘하는 것 같다. 홍법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티베트 승려가 모두 영어를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영어를 조금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유럽이나 미국에 못가는 것은 아닙니다. 스페인, 프랑스, 싱가폴, 대만에 여러 번 초청을 받았는데 가면 통역이 있어 얼마든지 법회가 가능합니다. 티베트 법사나 승려는 전 세계를 다니며 법을 설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영어를 배우면서 법문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통역이 있으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미국에 티베트 불교가 들어간 지는 40년이 넘었습니다. 연구소가 많아졌고, 불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선진국에 말입니다. 티베트어 통역이 없는 곳은 한국뿐입니다. 불교를 전하는 데는 불교를 아는 이와 불교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 통역자만 있으면 됩니다.

종교의 세속화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불교가 반드시 산꼭대기에 있어야 하고 수행자는 토굴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무슨 행동과 일을 하든지 무엇이든 수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수행자라고 해서 산속에서, 토굴에서 수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이 라마 또한 요즘 수행자들이 깊은 산속이나 암굴에서 민중을 멀리한 채 자기만의 수행을 고집하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반 재가자 중에도 대보살이 있으며, 대보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왕이나 귀신, 다리, 계단 등 무엇으로든 화현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수행은 보리심으로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지나친 것은 또 문제가 되겠지만, 휴대전화나 뭐든 필요로 한다면 써야 할 뿐입니다. 칼이 요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잘못 쓰면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티베트는 더 이상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티베트인의 바람은 무엇인가.

단지 언어, 종교, 민족성에 대한 자유만 원할 뿐입니다. 벌레까지도 자유가 있는데 말입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몇몇 젊은 분들이 티베트의 독립과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망명 티베트 정부가 독립운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티베트 승려들은 사회참여를 어떻게 하는가.

시위와 같은 행위를 통한 참여는 별로 없습니다. 티베트 승려들이 정치에도 참석하고 싶으면 할 수 있습니다. 티베트 망명정부에서 국민 투표로 뽑은 최초의 총리 삼동린포체(Kalon Tripa, prime minister)는 위대한 승려이자 학자이고 수행자였습니다. 이렇게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지 않고 사회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티베트는 사회참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려들은 언제든지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게 "그것은 학자의 일이다. 이것은 학교의 일이다. 수행자의 일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불교는 배우고, 지식을 가지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자기가 수행하지 않고, 눈으로 모양만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한국불교와 티베트 불교의 차이점은

가르침의 핵심은 〈반야경〉에 있으며 불교의 핵심은 '보리심'이라는 기본적인 것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번역본이나 스승이 가르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모르는 사람이 우리의 것, 자신의 것이 최고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한 때는 제가 속한 겔룩파가 최고이고 다른 티베트 종파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존자의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이 점차 바뀌었고 이후에는 기독교와 힌두교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한국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

미국에는 티베트인보다 한국인이 더 많습니다. 또 그들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미국에는 한국불교 수행자를 맞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 내에서 한국불교를 제대로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영국이나 일본 등 전 세계에 불교를 알리고자 한다면 그 나라에 없는 것을 갖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없는 특징적인 것이 있어야합니다. 그래야 한국불교도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달라이 라마는 "현재는 21세기다. 예전 방식대로 그냥 기도만 하고, 부모가 불자이기 때문에 절에 가는 불교는 지났다. 불교를 배우면서 이 시대를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왜 불자가 돼야 하는지, 왜 불교를 따라야 하는지 불교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출재가의 구분 없이 똑같이 불교를 배워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자비심이 필요한 것은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노스님들이 외국에 많이 다녀왔는데, 서양의 정황을 살펴본 스님들은 우리에게 걱정하며 '서양의 불교연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후에 아시아에서는 불교가 줄어들고 서양에서 늘어나면 우리가 가서 배워야 할 시대가 온다'며 경각심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을 맞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티베트보다 불교가 들어온 지 더 오래된 불교국가임에도 자국에서 불교를 배우지 않고 일본·대만·유럽·미국에서 불교공부를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에는 큰 절과 많은 스님들이 있는데 왜 남의 나라에 꼭 가야할까요? 한국 내에서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합니다. 교육과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향후 계획은.

티베트, 한국, 일본 불교를 구분하지 않고 불교에 대한 강의를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것 말입니다. 최근에는 한국 간화선과 선(禪)의 체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티베트는 경전과 논서를 바탕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 불경 뉴룸비니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 특별 할인 판매 대 행사
최고의 명품! 선물로도 최고!


(규격 8.5x5.2x2.0cm) 가격 34,000원(건전지포함)
※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 하시면 수호 신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세롭게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뉴룸비니'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룸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2011년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룸비니는 담배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뉴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제 50호 故송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법주사,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행사로 2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
팩키지 1 뉴룸비니, 아답터(가정에서 전기사용)특별가 37.000원
팩키지 2 뉴룸비니, 아답터, CD 2개 특별가 45.000원
팩키지 3 뉴룸비니, 아답터,테이프 3개, CD2개 특별가 54.000원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문의전화 (02-723-9184)
입금계좌 농협(170-12-056037 정애영)
1,000set 이상 주문시 스님의 독경 및 법문을 입력시켜 드립니다. (독경, 법문 녹음CD가 필요 합니다.)



티베트 천장, 하늘로 가는 길

天 葬

'먼저 긴 칼로 시체의 왼쪽 발뒤꿈치를 턱 하고 쳤다. 그러고는 발목, 정강이, 허벅다리, 팔, 어깨, 목, 머리 순서로 사정없이 쳐댔다. 앞치마는 피로 물들었다. 천장사는 시신을 크게 덩어리 내어 두 명의 보조 천장사에게 던졌다. 보조 천장사 중 한 명은 묵직한 해머를, 다른 한 명은 날카로운 칼과 주걱 비슷한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덩어리로 잘린 육신을 해머로 잘게 부스는가 하면 날카로운 칼로 꾸불꾸불한 장기를 도려내기도 했다. 대화도 표정도 없었다.' 〈티베트 천장, 하늘로 가는 길〉 중

죽음은 쉬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그래서 늘 두렵다. 현세의 행복을 추구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티베트 인들은 "죽음은 옷을 갈아입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심혁주 명지대 교수는 7월 2일 우리는선우(이사장 성태용) 토요법석에서 티베트의 장례문화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티베트에서 머물며 철저한 검증과 현장자료를 기초로 전하는 티베트의 천장(天葬) 문화와 변화하는 티베트의 실상을 실감나게 전했다.

티베트 불교와 천장의식

티베트 전통 장례법인 천장(天葬)은 우리의 시각에서 바라볼 땐 끔찍하고 잔혹한 풍경입니다. 천장의식은 일반인에게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티베트의 대표적인 불교 사원들은 저마다 독특한 전통의식과 종교집회를 정기적으로 주관합니다. 이것은 사원과 민간인들의 정신적 교류를 위한 문화적 제도이고 영혼의 단결을 도모하는 중요한 축제이기도 합니다.

티베트 즐긍 사원 역시 즐긍 카규파의 핵심 도장으로 오래전부터 이 종파만의 특별의식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즐긍 사원이 주목받는 것은 오늘날까지 천장 의식을 거의 완벽하게 전수해오고 있고 거대한 천장터를 온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원의 독특함 때문에 순례객들이 몰리지만 중국 정부의 감시 탓에 이방인들이 이 사원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일은 아주 어렵습니다. 중국 정부의 불시 사원 점검이나 누군가의 밀고로 인해 발각됐을 경우 사원이 받을 불이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이익이라면 중국정보와 사원과의 관계, 라마승들의 종교 활동 자유성 여부, 중국 정부의 사원장악 방법 등을 오랫동안 이방인에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원과 구별되는 이 사원의 전통은 지정된 천장 의식 전날 이 사원 안의 라예(Lha-lye) 경당원 앞마당에 시체를 하룻밤 방치한 후 동이 틀 무렵 천장터로 옮깁니다. 천장터 현장에 어렵게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시체 세구가 보였고 한 구는 벌써 처리했는지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고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인육 냄새에 오감과 내장이 모두 뒤집어 지는 것 같았습니다. 돕덴(Dromden)이라고 불리는 메인 해부사의 한 손에는 긴 갈고리가, 다른 손에는 긴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천장사는 갈고리로 시체의 옷을 능숙하게 벗기고는 본격적으로 해부의식을 시작했습니다.

한 시체당 해체하는 작업은 약 1시간 40분 가량 소요됩니다. 오전 내내 해부작업을 하면 천장사들은 잘 부슨 육신을 티베트인들의 주식인 보리떡 참파와 잘 버무려 먹기 좋게 여기저기 흩어 놓습니다. 이내 작은 송아지만한 독수리 200마리가 달려듭니다. 인육냄새를 맡은 독수리들이 해부를 마치고 의식을 마치기도 전에 인육에 입을 댄다면 망자의 영혼은 올바로 전송되지 못할뿐더러 가족에게도 불길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의식이 마치기 전까지 필사적으로 제지합니다. 의식을 마친 후 망자의 가족들은 무표정하게 독수리들이 깨끗하게 먹어주길 바라면서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티베트 민족은 천장을 통해 껍질에 불과한 인간의 육신은 칼로 다듬고 정성스럽게 해부해 천국의 사자인 독수리에게 아낌없이 보시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주술가에게 일임해 다른 생명체로 전송합니다. 일면 해괴해 보이지만 10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까지 티베트에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여행길입니다. 나와 타인, 자민족과 이민족이라는 습관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우리의 삶을 차갑고 소극적으로 만듭니다. 티베트인들의 경건한 천장 의식을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에 대한 집착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티베트 민족의 장례문화와 죽음관

티베트는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 요소인 산소마저도 모자라는 척박하고 험난합니다. 세계의 지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티베트는 세계와 일정한 정도의 격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인간은 서로 상응하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이며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관계라는 순응의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대자연과 사회 문화가 궁극적으로 하나의 뿌리를 갖는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동물과 식물, 자연의 모든 생물체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주체로서 존경받아야 하는 하나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화장이나 매장을 주로하는 우리의 문화와는 다르기에 기묘하기 짝이 없지만 이 장례의식은 티베트인들에게는 보편적인 자생 문화일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티베트 문화는 불교입니다. 종교가 곧 삶 자체인 티베트에서는 아무리 황량한 산지나 대초원일지라도 마을이 있는 곳이면 티베트어로 '곤빠(寺院, ghen-ba)'라 불리는 크고 작은 불교사원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 현대인들에게 24시간 언제든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불교사원은 티베트인들에게 언제든지 영혼의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 "환생이란 수많은 생을 거쳐 영혼이 성장해가는 과정"

이들의 문화 중 장례문화는 매우 다양하고 독특하며 종교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장례의식을 종교의식의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수장(水葬), 탑장(塔葬), 화장(火葬), 천장(天葬, 조장(鳥葬))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장례법 중에서도 현재까지 가장 인기 있는 장법은 천장입니다. 인구의 대다수가 불교도인 티베트 인들이 왜 불교의 장법인 화장이 아닌 천장을 선호할까요?

설산고원이라는 지리적 환경과 함께 불교의 핵심사상인 인과응보나 윤회가 천장 문화의 사상적 배경입니다. 영혼불멸론, 사람이 죽은 후 육신은 없어지지만 영혼은 연속된다는 믿음은 민중으로 하여금 인간의 육신을 그저 껍데기일 뿐이라고 인식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의 바탕에 불교의 생사윤회설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티베트인들은 영혼을 좋은 곳을 이동시키는 의식에 더 집중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전세(轉世)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의 연속성을 믿습니다. 독수리에게 육신을 보시하고 영혼은 가족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달라는 간절함을 담은 천장의식은 지극히 이타적인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후에 생전의 행위에 따라 내세에서 천계에 들어가게 될지 지옥에 들어가게 될지 결정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망자의 영혼을 윤회의 궤도 안으로 들여보내야 하는데 천장은 망자가 윤회의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즐긍 사원에서 만난 한 라마승이 환생과 윤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환생이란 수많은 생을 거쳐 영혼이 성장해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나지만, 환생은 완전함과 영적의미를 약속해 준다. 현생은 과거의 행위를 수확하는 시간이며, 동시에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다. 즉 우리가 과거에 만든 것이 내일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손에 주어진 '이 순간'에 다음 생을 위한 변형이 일어나며 환생은 실현된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무너져 가는 라마왕국

지금 포탈라궁은 주인을 잃은 박물관이 됐습니다. 입장권을 사는 곳에서 출구까지 모두 한족인 주인행세를 하고 매년 넘쳐나는 관광객들 때문에 궁전은 일년 내내 보수공사를 합니다.

제가 티베트의 수도 라싸에서 어느 노인에게 "티베트가 현재처럼 중국의 일부로 남는 것과 과거처럼 주권이 독립된 라마왕국이 되는 것 중 어느 것이 좋은가? 달라이 라마를 여전히 숭배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주위를 살피며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주권'이나 '독립'이라는 단어는 금기어이고 현 상태에 대한 부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라마 왕국 시절에는 이런 단어가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단어자체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 그 노인은 "독립은 원하지 않지만, 달라이 라마가 언젠가 라싸의 포탈라궁으로 돌아올 것으로 믿는다. 중국 정부가 현 상태를 유지하며 티베트를 포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에 망명정부를 꾸리고 반세기 동안 독립운동을 펼치던 달라이 라마는 현실적인 힘의 한계를 절감하고 '고도의 자치'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방침을 바꾼 상태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중국의 막강한 경제력을 감안할 때 문화적 자치만 보장된다면 독립하는 것보다 중국의 일부로 남아 있는 것이 티베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티베트의 행정권만 인정하면 티베트는 독립국가로서의 외교권과 국방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한화(漢化)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당근과 채찍으로 티베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1989년부터 해외로 망명한 티베트인들의 귀국 사업을 위해 과거 독립운동 참가 여부와 관계없이 귀국만 반면 정착금과 직업을 우선 제공합니다. 반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달라이 라마를 숭배한다는 말만해도 감시가 뒤따릅니다. 중국 정부는 확실한 동화 정책을 추진하며 칭짱 철도를 개통하기에 이릅니다. 한족을 많이 들여보내 티베트인 비율을 낮추고 교류를 활성화해 티베트 민족을 한족에 동화시키려는 중국의 장기적 포석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주도하에 정치 경제 문화적 합병이 진행되고 있으며 라마 왕국의 전통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티베트는 과도한 물적 인적 진입과 현대화로 인해 심적 동요와 빈부격차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하게 형성된 제반 환경은 티베트의 전통과 관습을 강력하게 흔들고 있으며 젊은이들도 참파와 수유차보다는 한족의 음식과 콜라에 길들여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천장의식 대신 화장을 하고 야크보다는 오토바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남은 일은 티베트의 전통과 문화적 자치라도 확보하는 일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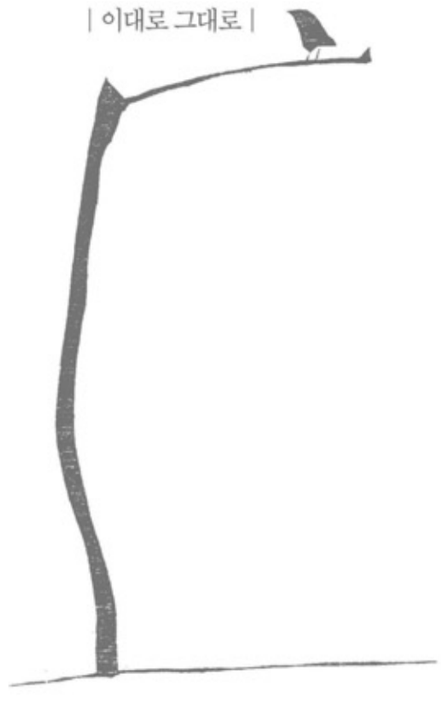


심주혁 명지대 교수

명쾌한 깨달음



| 이대로 그대로 |



존재의 실상을 깨달아야 한다!

깨달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
깨달음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오는가?

연기법 수행과 선법 수행을 통해
존재의 실상을 깨달아 가는
깨달음 공부의 입문서이자 결정판!

아주 간결하고 쉬운 언어로
명쾌하게 써내려간 깨달음 공부의 안내서!

누구나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도록 이끄는 책!

백창우 저 | 국판변형양장 | 316쪽 | 값 15,000원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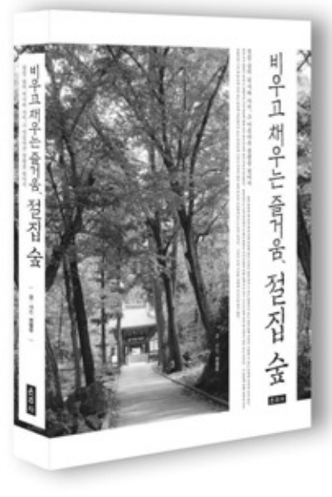
우리 땅 곳곳에 자리한 절집 숲 24곳에 대한 답사기!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

산림학자이자 숲 해설가인 전영우 교수와 함께하는 절집 숲 이야기!

절집 숲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 생태적 문화유산이자
선조들이 우리 후손에게 물려준 매력적인 선물이다.

경쟁과 속도에 지친 현대인에게 마음의 풍요와 안식을 제공하는 절집 숲,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향유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경관이자
아름다운 자연유산, 220여 컷의 풍광 사진과 인문학적 깊이가 있는 글은
독자로 하여금 절집 숲의 정취에 흠뻑 빠져들게 할 것이다.



전영우 저 | 사륙배판 변형 | 컬러 | 396쪽 | 값 2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주문 (02) 3672-7181

이 인생이든 저 인생이든, 선택했다면 맹렬히 살아야



"나는 어머니에게 자식으로서 효행을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모이는 집회가 있을 때면 어머니를 대하는 심정으로 나간다. 길상회에 나로서는 파격일 만큼 4년 남짓 꾸준히 나간 것도 어머니에 대한 불효를 보상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다." 〈오두막 편지〉 '마른 나뭇단처럼 가벼웠던 몸'에 나오는 법정 스님 말씀이다.

어머니는 우리 생명 언덕이자 뿌리라고 하셨던 법정 스님이 남다른 애정을 보인 어머니 모임 길상회 회장이자 맑고 향기롭게 이사였던 법장궁法藏宮, 강정옥 보살(77)과 인사동에 있는 조촐한 카페에서 향이 그윽한 대추차를 앞에 놓고 마주앉았다.

1993년, 파리 길상사 탱화를 그린 재불화가 방혜자 화백과 가까운 지인 한 분이 경복궁 앞에 있는 법련사로 강정옥 이사를 불렀다. 자리에 함께 한 청학 스님은 파리 길상사 개원에 동참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파리 길상사를 후원하며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국문화에서 불교문화를 빼면 얼마나 남습니까? 파리 길상사를 도와 우리불교문화를 세계로 펼치는 부처님 일을 후원하자는 말씀에 선뜻 동참하겠다고 했어요." 길상회 산파 청학 스님은 법정 스님께 길상회원을 위해 정기법회를 갖도록 말씀드렸다. 법정 스님은 "내가 어디 다니면서 법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한마디로 자르셨다. 그러나 유럽에 불교를 전하려는 마음들을 갸륵히 여겨달라는 간곡한 청학 스님 부탁에 끝내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는 분들한테 회비를 걷었는데 스님이 들어오시면서 '주머니 좀 털지 마라.를 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는 속으로 '모임이 운영이 되려면 돈이 드는데 수입이 없으면 뭐가 되겠노.' 하면서 투덜거렸어요." 법정 스님은 길상사 법석에서도 보시함을 도둑놈 아가리로 알라고 막말(?)을 했던 어른이시니 어련하셨을까.

법정 스님은 "길상회 어머니들을 만나러올 때는 목욕재개를 하고 옵니다"고 말씀했다. "당신은 온 정성을 기울여서 모임에 나오는데 저희들이 헛되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오는 분들에게 그때그때 돈을 걷어 쓰곤 했는데, 흘어지면 그 뿐이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강정옥 이사는 "기금을 만들어 일할 터전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길상사가 파리에서 개원이 되어 제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미비했던 관계로 청학스님께서는 길상사 개원으로 인해 빚을 안고 계십니다. 길상사 후원회인 길상회로서 면목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나설 처지는 아닙니다만, 길상회 입회비 겸 길상사 건립 시주금으로 회원 한 사람이 000만 원씩 내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회원 여러분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고 했다. 정회원은 정해진 금액을 내고, 그 밖에 분들도 형편껏 입회비를 내어 정회원, 준회원으로 정리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강정옥 이사는 회장이 되었다. 그 돈으로 파리 길상사에 좌복(방석)도 만들어 보내고, 사월초파일에 등 값이나 그때그때 필요한 경비는 물론, 파리 길상사에 머무는 스님 생활비를 보냈다. 그러다가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하면서, 사무실 보증금과 월세도 내고 길상사가 창건을 할 때도 십시일반 동참해 적지 않은 후원을 했다.

길상회 이전에도 법정 스님을 뵈었을까? "83년인가? 송광사에서 하룻밤을 자고 불일암을 올라갔어요. '스님 뵈러 왔습니다.' 하고 절을 올리고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 끝에 제가 영가천도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때 스님이 딱 한 마디를 하셨어요. '보살님은 그런데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아차, 싶었죠." 스님은 시퍼런 반야검을 바로 들이대셨다. 길상사에 관음상을 조성한 조각가 최종태 선생이 어느 날 법정 스님에게 물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스님은 "불가에서는 그럴 때 독화살 이야기를 합니다"고 답을 했다. 최종태 선생은 이 말씀을 바로 알아들었다. 그처럼 스님은 귀가 열린 분에게 늘 단답형으로 짧게 말씀을 건넸다.

"그 뒤에 법련사에서 법문을 하신다고 해서 갔는데, 글은 유려하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글하고 달라서 확 깼어요. 사투리도 섞이고… '어쩌면 글하고 저래 다를까' 싶었어요. 저는 글 쓰는 분들은 원래 말을 잘 못하는 가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수필은 간결하고 짧으니 쉬이 읽히지마는 법문은 법이 좀 갖춰있어야 알아듣잖아요. 제가 법문을 들을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던 거지요." 누구나 처음은 서툴다. 그 뒤로 스님은 대중을 향한 쉬운 법문 준비에 철저하셔서 길상사에서 하신 스님 법문엔 누구라도 금세 빨려들었다. 길상사가 개원한 뒤 스님 법문이 시처럼 수려할 즈음, 강정옥 이사가 스님께 여쭈었다. "스님은 어떻게 그렇게 글도 잘 쓰시고 말씀도 잘하세요?" 이때도 스님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고 짧게 답을 했다.

"한참 뒤에 제가 인도를 다녀와서 스님께 '제가 이번에 인도를 열흘 넘게 여행을 하면서 살이 쪄가지고 왔어요' 하고 무심코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아니, 그 가난하고 굶주리는 나라에 가서 살이 쪄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고생하는 분들은 생각도 안 하고 철없는 소리를 했더라고요. 괜히 싱거운 소리했다가 아주 혼났어요." 출가자들에게 집 떠날 때보다 몸무게가 더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이르던 단호한 어른이니 오죽했으랴.

"스님께선 섞이는 것이 싫어서 비빔밥을 잡숫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마다 맛이 다른데 그것을 왜 섞어서 먹는지 모르겠다고." '난 나이고 싶다'며 누구나 저마다 타고난 성품을 잃지 않아야 한다던 말씀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그 모습을 보더라도 스님은 단호한 분이셨어요. 질질 끄는 성격이 아니셔서 끝낼 일은 단칼에 탁 끝내시더라고요. 길상회에서 법문을 하시고 난 뒤에도 휭하고 가버리셔요. 길상회원 가운데 한 분이 법련사에서 나오는 회지에다가 '우리는 스님을 너무 흠모해 가지고 법문을 듣는 날을 눈 빠지게 기다려왔는데, 스님은 눈길도 한번 주지 않고 쌩쌩 가버리셨다'고 올린 글을 읽었는데 너무 공감했어요. 먼 산 쳐다보고 법문하고 나면 싹 가셔버리시거든…."

"맑고 향기롭게 첫 수련회는 비구니스님 강원이 있는 운문사에서 1박 2일을 했는데 장익 주교님이 오셔서 두 시간 동안 설법하셨어요. 또 강화도에서도 세미나를 한 적도 있어요. 유스호스텔에서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곳이 '강화군 길상면'이었어요." 우연치고는 놀랍다. 송광사 옛 이름도 길상사였는데, 파리 길상사,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라고 이름을 지은 까닭도 온누리가 상서롭고 복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셨으리라. "그 때 윤청광 선생님하고 옛 멤버들과 젊은 청년회원들이 1박 2일을 했어요. 거기서 저마다 맑고 향기롭게 실천지침을 쭉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주부이니까 물이

> 파리 길상사를 후원하는 일은 유럽에 한국문화를 펼치는 일

> 어머니들을 만나러 올 때 목욕재개를 하고 나옵니다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살색), 코핀1개, 팬던트, 이쑤시개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혀 있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쑤시개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 개의 줄을 빼냅니다.

TIP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 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팬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TIP 8 이때 팬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감용 염주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힘껏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져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실용신안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Dau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오염되지 않도록 부엌에서부터 맑고 향기롭게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주부가 보는 각도가 따로 있네.' 그러시면서 맞장구를 치셨어요. 마침 환경을 크게 더럽히지 않는 소재가 있었어요. 하얀 고체 주방세제인데 그 세제로 설거지를 하면 물도 오염되지 않고, 그릇에 남아도 인체에 별로 해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맑고 향기롭게 회원들이 공장에서 한꺼번에 사서 쓰게 되었어요." 폐식용유를 재활용하고 계면활성제를 크게 줄인 주방세제를 이르는 말씀이다. 요즘 맑고 향기롭게 회원들은 미생물 EM으로 설거지를 한다.

길상사가 생기고 나서 한해가 지난 1999년 정월, 강정옥 이사는 길상회가 길상사에 흡수된다는 편지를 회원들에게 띄우고 활동을 접는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는 회주 법정 스님께서 짝 수 달 셋째 일요일에 정기법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 까닭에, 따로 길상회 법회를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

우리는 옛길을 따라 걷지만
길은 언제나 새 길이다

기가 너무 송구스러워, 길상회는 새해부터 길상사 전체 신도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동안 길상회가 맡아왔던 파리 길상사와 맑고 향기롭게 모임 후원은 앞으로 길상사가 이어갈 것입니다." 강이 바다가 되는 새 장을 여는 말씀이다.

"그 전까지는 길상회 살림 보고를 스님께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류시화 시인이 〈산에는 꽃이 피네〉 가제본을 제게 보여주면서 편집이 어떠냐고 물어요. 선생님처럼 잘하는 분이 했으니 어련하시겠느냐고 답을 했는데, 그 말씀 끝에 류시화 시인이 '스님이 법장궁보살님 말이라면 다 들어주시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듣고 보니 스님을 도와드리는 일이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비칠 수도 있구나싶어서, 스님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뒤로 길상사에 가면 바로 법당으로 들어가고, 스님께 따로 인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맑고 향기롭게 이사회 때도 회의 시간에 꼭 맞춰서 올라가곤 했어요." 조심조심, 어른을 모시는 사람은 늘 조심스럽다. 강정옥 이사는 스님에게 편지 한 장, 글씨 한 자 받은 적이 없다. 스님께 번거로움을 끼치는 일은 가려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살림을 하는 전업주부인지라 가정사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딸만 다섯이나 낳았는데 첫 애가 한 돌 조금 지나고 먼저 갔어요. 그 때 인생무상을 깨달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저희 남편이 외동이에요. 외며느리가 딸만 줄줄이 낳고는 한 번도 울어본 적도 없이 미역국만 맛있다고 먹었으니 곁에서 보기 참 딱했을 거예요. 우리는 관습에 따라 그냥 엉겁결에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관도 서 있지도 않고,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아무런 준비 없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갈등 때문에 사는 재미가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남편이 외동아들이었는데도 딸만 낳아도 별 문제없이 넘어가고, 아이들이 시집을 가지 않아도 큰 흠이 되지 않으니 시대를 잘 만났다싶어요. 그런데다 불교를 믿고 보니까 애면글면 할 일이



시간을 떠받치는 기둥들, 시간을 담는 그릇, 법을 담는 그릇 모두 덤덤하다. 지워진 인연을 차분히 풀면 해탈. 선선히 받아들이고 선선히 내주며, 머무는 바 없이 머물고 흐르는 바 없이 흐른다.

없더라고요." 남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살아온 여정을 그려내는 강정옥 이사, 선선하다.

"큰 아이를 앞세웠으니 넷이 남았는데 막내만 시집을 가서 남매를 낳아 키우고, 위로 셋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여느 사람들은 절에 가서 인연기도를 하면 배우자가 나타난다면서 열심히 빌러 다니던데, 저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우리 아무개 결혼을 하게 해주세요.' 하며 빌 생각이 한 번도 나질 않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걔들이 시집을 가면 또 식솔이 딸리겠죠. 그러면 인연이 더 복잡해지잖아요. 어쩌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결혼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지 않았나싶어요. 결혼을 해도 인생이고 하지 않아도 인생인데, 이 인생이든 저 인생이든, 살아볼만 하잖아요. 선택한 만큼 맹렬히 살면 되지. 틀에 얽매여 전전긍긍하면 낙오자나 마찬가지잖아요. 남들 눈치나 보면서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지요. 얼마나 소중한 삶인데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어서어서 닦아가지고 곁에 있는 이들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주고, 내 할 일 하고 가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다는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눈물이 날 만큼 고맙지요. 지난날 철없을 때 했던 일들을 돌아보면 어떤 일은 부끄럽고 후회가 들기도 해요. 그러나 철이 없어서 한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때는 그 때고. 값지게 주어진 소중한 오늘 이 순간을 맹렬히 살아야지요." 법장궁法藏宮, 진리를 품은 궁궐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피카소가 남긴 말씀이 떠올랐다. "사람들은 내가 데생을 5분 만에 그려낸다고 하지. 그러나 내 손목이 5분 만에 데생을 완성하기까지, 60년이 넘도록 맹렬히 그렸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어."



우리는 옛길을 따라 걷지만 길은 늘 새 길이다. 만물은 저마다 길을 가면서도 한데 어루러진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랑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행운유수



동국대 선학과 교수

구름과 안개가 자주 대지를 감싼다. 떠가는 구름은 고정된 형태를 고집하지 않고 높은 봉우리를 만나면 감돌아 가고 평원을 만나면 온갖 자태를 드러내며 흘러간다.

문수봉과 보현봉을 안고도는 구름은 봉을 안았다가 봉 마저도 허용하지 않고 묻어버리기도 하는 묘용이란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없는 자연만의 오묘함이 아닐까 한다. 일순간도 같은 모양으로 머물지 않는 구름에서 소멸의 이치를 배운다. 악지가 세 누군가가 체벌을 가하여 순치시켜 놓은 것도 아니련만 저리도 유유자적할 수 있단 말인가.

태양에 이르고자 하여 날개를 만들었다는 이카루스의 신화는 인류가 추구한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구름은 날개도 없이 허공에 온갖 모양을 드러내어 인간의 가지가지 상념을 속속들이 파헤쳐 놓고 몽당붓 한 자루 없이 천태만상을 그려내고 있을까. 새삼스레 자연의 오묘함이 여기에 깃들어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저 작은 물방울 입자가 모여 안개를 이루고 있다. 안개의 여유를 생각해 본다. 무거우면 낑낑대며 그 질량을 지니고 있으려 하지 않고 대지에 그냥 부려 놓고 만다. 가벼워 견딜만 하면 흘러흘러 어느 나뭇가지에 앉아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구름과 안개에서 집착이란 정말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마냥 흘러가고 안주함을 자유자재로 한다.

선수행자를 운수(雲水)라고 부른다. 운수란 행운유수(行雲流水)의 약자이다. 수행자는 일정하게 머무는 곳이 없다. 마치 떠도는 구름 같이 흘러가는 물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수행자의 생활 상태를 잘 드러낸 말이다. 다투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혹여 구름이 계곡의 물과 같이 졸졸 소리내며 계곡을 굽이쳐 흘러가고자 유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물 또한 낮은 곳에 있음을 자탄하며 높은 곳에 있는 구름의 영역을 넘겨보지 않는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여건에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운형수제(雲兄水弟)라 했던가.

〈식경록개연보설(息耕錄開筵普說)〉에 '귀를 막고 눈을 가려 번뇌를 피할 수 있다 해도 행운유수 추엽비화(墜葉飛花)를 어찌 멈추게 할 수 있으랴' 라고 읊고 있다. 행운유수와 추엽비화란 결국 허공을 떠도는 구름, 강을 흐르는 물, 나무에서 떨어지는 마른 잎, 초목에서 흩날리는 꽃은 자연이다. 세상의 무상을 표현한 말이요 제행무상을 표현한 적절한 의미이기도 하다.

행운유수와 유사한 말로 운유평기(雲遊萍寄)란 말이 있다. 구름이 광대한 허공을 떠가는 한 곳에 한 순간에도 머물지 않듯이 부평초는 흐르는 물에 몸을 의지하여 표류한다는 말이다. 운유평기 또한 수행자는 한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경지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비단 수행자가 아니라 해도 한 곳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걸어야 한다. 걷는다는 것은 우리 신체가 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일이다. 이 단계를 넘어 속보경기에 나가고자 하는 선수의 걷기는 평범의 단계를 훨씬 넘고 만다. 거기에는 정교함이 따라야 하고 그러자면 일정한 시간을 내어 반복된 훈련을 해야만 한다. 그러한 사람은 걷기의 재미 보다는 어떤 의무감으로 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잊기 쉬운 것이 있다. 느끼고 취하는 습성이다. 무감각한 눈은 추한 광경만을 눈 여

무거우면 질량을 내려놓고
가벼이 흘러 흘러 가는
구름과 안개의 여유
그것이… 수행자의 여여함

겨 보고, 음악적 감각이 굼뜬 귀로는 소음만을 들을 것이다. 세잔느의 〈목욕하는 사람들〉이란 작품을 보고 터질 듯한 살결과 숨 쉬는 맥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베토벤의 제5번 〈운명교향곡〉에서 베토벤이 제1악장 첫머리의 동기에 대하여 자신이 '이와 같이 운명은 문을 두드린다' 라고 말했듯이 그 운명의 선율은 나의 운명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닐까 반문할 때 이미 곡에 취하고 마는 것이다.

권세에 물들고 재물에 오염된 자들이여! 행운유수에서 여여함을 배우자.



since 1973
2012년 "불교달력 출시!" 임박!!



최고의 품질! 최저의 가격!
• 한국제지(주)180~250 g/m² 스노우지
• 무림제지(주)180~250 g/m² 아 트 지
? @000원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농협:121068-56-042256 ◆우체국:612416-02-031008 [예금주:강태규]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현정 소장의 이제는 다문화 시대 4

다 같이 사는데 네 것 내 것 어딨나

이현정
한국다문화센터 소장

고타마 붓다는 출가 전의 쾌락, 출가 후의 고행도 모두 한편에 치우친 극단이라고 하며 이것을 버리고 고락양면을 떠난 심신의 조화를 얻은 중도(中道)에 비로소 진실한 깨달음의 길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의 체험에 의해서 자각했다.

성도 후 그때까지 함께 고행을 하고 있던 5인의 비구들에게 가장 먼저 설교한 것도 중도의 이치였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계시도 계명도 아니고 이는 붓다의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터득된 최고의 빛나는 이치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깨달아야 할 말씀으로 남아있다. 나태와 번뇌, 노여움, 어리석음에 의한 무지(無知)그 무엇에 집착하려고 하는 어떠한 치우침도 모두 버리라고 한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다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이러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야만 차세대에게 멋진 사회상을 물려주고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당당히 권유하고 떳떳해 질 수 있다.

다문화는 말 그대로 그 무엇이든지 복잡 다양한 사회상을 다 포함하고 있다. 다양한 종교, 다양한 인종, 다양한 생활상, 다양한 직업, 다양한 국가 등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데, 종교마다 저마다 자기 것만 인정하는 주장과 닫힌 마음 등이 더 심해지는 양상이다.

국내 이웃종교로부터 지원을 받는 이주민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사찰 운운하면 '그 땅도 밟지 말라'는 지령을 받았다며 곧바로 거부감을 드러내곤 했다. 이웃종교의 이주민 지원단체들은 마치 이주민이 자기종교의 물건인양, 내놓으려 하지도 않고 접촉도 막는다. 우습기 짝이 없는 노릇인데, 이 땅의 여러 다양한 종교에 대한 배려와 한 치의 인정도 없이 다문화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양상이다. 이는 결코 다문화라고 할 수 없으며 단문화, 일개문화, 소극적문화, 닫힌 문화 그 자체이다.

21세기가 국외적으로는 세계화가 되고, 국내적으로는 다문화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국경도 없어지고 우리의 전통문화도 없어지고 전 세계인이 똑같아지자는 것이 아니다. 다문화만 갖고 침소봉대하여 이른바 과잉다문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는 국경의 개념이 없다.

대한민국도 없다. 엄연히 헌법이 있는 국가이고 법치국가임에도 국가의 법 조차도 무시하고 뭉개버리려는 작태를 조장한다. 예를들어,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는 물론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인권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예방과 대책, 그리고 억울한 피해에 대한 보호 등을 위해 애써줄 수는



지금 펼쳐지고 있는 다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진은 이주민 다문화 가정과 이주노동자 가정을 위한 무료 합동 전통혼례식 모습이다. (자료: 현대불교신문)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대한민국이 있고 인권도 있는 것인바, 대한민국은 상실하고 오로지 인간, 그것만 바라보고 이혼을 조장한다든지, 또 다른 사회파장을 안고 올 방향을 제시해선 곤란하다. 불법체류자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불법체류자가 양산되게 끔 한 정책에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불법체류자 자체를 보호해주고 옹호해주고 법망을 피해주도록 유도하려는 일은 옳지 않다. 이주민을 주인공으로 하고 이주노동자세계를 그린 한 영화에서도 마치 불법체류자의 불법을 도와주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이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은 악인으로 그려 넣은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사회는 다종다양하게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악인과 선인의 경계가 참으로 모호하다. 왜 법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을 악한으로 이분화시켜야 하는가? 대한민국이 있고 이주민이 있는 것이며 다문화도 있는 것이다. 이 시대에 우리는 넓은 시야를 갖고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치전 건강칼럼⑧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려면

한의학에서 우주 만물의 변화를 음(陰)과 양(陽)의 작용으로 설명한다. 음기와 양기가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인체는 질병이 없는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여름에는 음양의 균형이 깨어지기 쉬워 심신이 괴로움을 느끼고 심하면 병들게 된다.

예로부터 '오뉴월에는 개도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여름에도 감기 환자가 적지 않다. 추위와 더위의 변동이 심하고 과로·피로가 쌓인다거나 비를 많이 맞고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 혹은 영양부족 등으로 인해 몸의 방어능력이 떨어지면 누구든 감기에 걸릴 수 있다.

여름감기는 기본적으로 열이 나고 바람을 무서워하고 목이 마르고 인후통이 있으며, 누렇고 끈적한 가래나 진한 콧물이 나는 열감기의 증상을 보인다. 몸이 화끈거리고 땀이 많으며 가슴이 답답하고 소변이 노랗고 붉은 증상이 나타난다. 장마철에는 찬바람에 습기가 더해지므로 열은 심하지 않고 머리와 몸이 심하게 무거우며 전신관절에 통증을 호소한다.

더위를 피해 찬바람과 찬 음식을 즐겨 몸을 차게 하다보면 '냉방병(冷房病)'에 걸리기 쉽다. 더울 때 자연적으로 적당한 땀을 흘려야 하는 생리작용을 어긴 탓이다. 장시간 에어컨에 노출되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차를 탈 경우에 체온 조절 중추와 자율신경 기능의 이상으로 이러한 증상이 생긴다. 대체로 몸이 냉하고 추위를 잘 타는 여성에 흔히 발생한다. 코와 목이 시큰거리고 열이 나며 땀이 나지 않고 찬바람을 싫어해 목덜미가 뻣뻣해지는 등 감기 증상과 함께 어깨·등·허리·다리에 냉감을 느끼며 쑤시기도 한다. 또한 소화 장애가 동반되며 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없으며 두통·어지럼증도 나타난다.

여름철의 성기능은 주로 신장의 정기와 연관돼 있으니, 신장이 허약하면 성욕과 성기능이 떨어져 불감증·불임증이 되기 쉽다. 신장은 오행(五行)에서 수(水)에 해당하는데 상생(相生)의 법칙에 따라 금(金)으로부터 기를 받게 되고(金生水), 상극(相剋)의 법칙에 따라 토(土)로부터 제약을 받는다[土剋水]. 그러므로 음력 4~6월에는 성생활을 피하라고 했다. 4~5월(夏)은 오행의 상극으로 보면 화(火)가 왕성해 금(金)을 억제[火克金]하므로 약해진 금이 수(水)를 도와주지 못해 신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6월(長夏, 장마철)은 습기가 많은 시기로서 토(土)에 해당되는데 토는 수(水)를 억제[土剋水]하므로 신장이 상해를 받는다.

여름에는 반드시 혼자 잠을 자고 자극성이 없는 담담한 음식을 먹으며 몸을 보호하기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라고 했지만 성생활을 아예 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봄과 가을에 비해 줄여서 신장의 정기를 보존하면 된다. 여름에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기본으로 새벽에 깊은 잠을 자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햇볕을 싫어하지 말고 적당한 땀을 흘리는 것이 자연에 순응하는 섭생법이다.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일 묵 스님의 위빠사나 수행이야기13 – 사마타 수행

삼매를 계발하라

수행의 목적은 고통의 원인이 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소멸하고 진정한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오염원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상을 바로 봄으로써 대상에 대한 집착이나 성냄을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행자의 마음이 맑고 고요해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염되었거나 동요가 심한 마음은 현상들을 왜곡되게 인식하지만 맑고 고요한 마음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오염되었거나 물결의 동요가 심한 물에는 달이 보이지 않거나 왜곡되어 비치지만 고요하고 맑은 물에는 달이 있는 그대로 비치는 것과 같다.

붓다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삼매를 계발하라. 삼매를 증득한 비구는 법을 있는 그대로 본다." 따라서 삼매를 계발하는 선정수행은 지혜 수행의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된다.

알아차림과 함께하며
대상에 완전히 몰입해야
선정상태의 즐거움 안주해
집착하는 모습 지양해야

선정수행은 팔리어로 사마타 수행(samatha bhāvana)이라고 한다. 사마타란 '고요함, 맑음'이라는 뜻인데 중국에서는 불선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치게 한다는 의미에서 지(止), 마음이 고요하고 맑게 된다는 의미에서 선정(禪定)이라고 번역했다. 그래서 사마타 수행 즉, 선정수행이란 한마디로 고요하고 맑은 마음인 선정 또는 삼매(samādhi)를 계발하는 것이다.

그러면 삼매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알아보자. 삼매는 정해진 하나의 대상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삼매는 반드시 알아차림과 함께 해야 한다.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어야 대상에 현혹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올바른 집중이 되어야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져서 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알아차림이 있는 집중만을 삼매라고 한다.

정리해보면 삼매는 알아차림이 함께하면서 하나의 대상에 완전히 몰입되어 아주 고요한 상태이다. 이때는 외부의 형상, 소리, 냄새, 맛, 몸의 감촉 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삼매에 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명상주제에 집중하는 수행자의 마음이 행복해야 한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난다면 그 만남이 매우 행복할 것이고 만남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흘러갈 것이다.

이처럼 마음이 수행주제에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행복해야 그 대상에 완전히 몰입되어 시간의 흐름조차 잊어버리는 깊은 삼매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붓다께서는 "행복한 사람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삼매의 상태는 매우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하다. 그래서 수행자들이 삼매의 행복에 집착을 하여 지혜를 계발하는 것을 게을리 하고 오직 삼매의 즐거움에 안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불교에서 선정을 닦는 가장 큰 목적은 지혜를 계발하기 위한 것이다. 즉 삼매를 토대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닦아 번뇌를 소멸하고 열반을 증득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따라서 선정상태의 즐거움에 안주하여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삼매는 크게 나누면 근접삼매와 본 삼매로 나누어질 수 있다. 본 삼매는 수행주제에 완전히 몰입되어 수행주제외의 소리나 다른 어떤 대상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한 시간, 두 시간, 반 나 절 또는 온 종일도 지낼 수 있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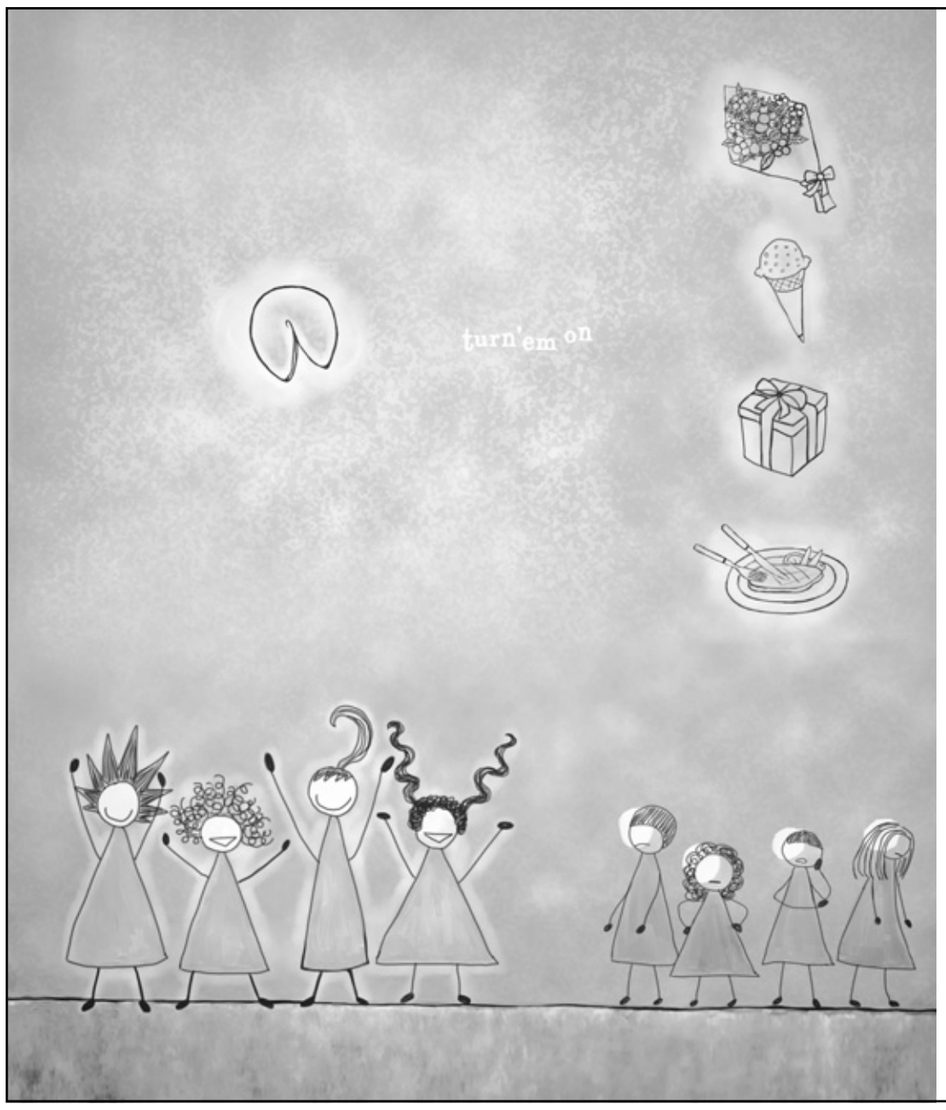
본 삼매에는 삼매의 고요함과 깊이에 따라 색계 선정 네 가지와 무색계 선정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근접 삼매는 본 삼매 바로 직전의 단계를 말한다. 근접 삼매도 매우 깊은 집중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수행주제에 완전히 몰입된 상태는 아니다. 비유하면 문 앞에는 도착했지만 문을 통과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선정수행은 삼매 또는 선정을 닦는 수행이고 삼매는 선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몰입된 상태이다. 삼매에서 나온 마음은 순수하고 빛나고 때가 없고 부드럽고 고요하기 때문에 지혜를 계발하기에 가장 적당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일묵 스님(제따와나 방배선원장)



What is Buddha Cookie!!

법法과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 (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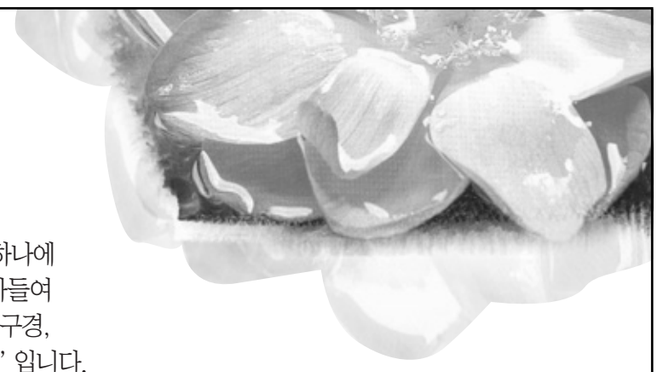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세계의 불교사전, 한국의 불교사전
그리고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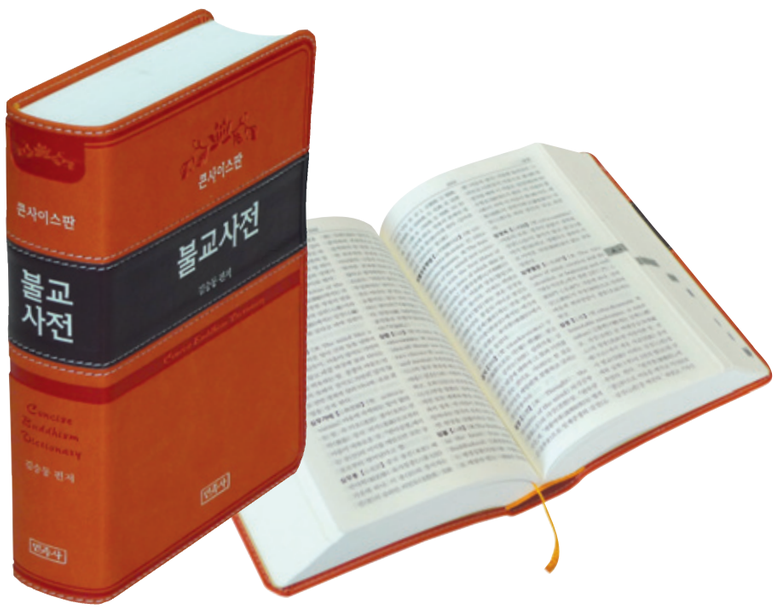
세계 불교사전의 역사

세계 최초의 불교사전은 1917년(대정 6년)에 일본에서 간행된 오다 도쿠노(織田得能, 1859-1911)의 『불교대사전』(1권, 大倉書店)이다. 이 사전이 세계 최초의 불교사전이다. 편자인 오다 도쿠노는 스님으로서 이 사전의 편찬을 위해 1899년(明治, 메이지 32년)부터 1911년(명치 44년)까지 12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편찬에 열중하다, 중병에 걸려 책을 탈고한 그해(1911년)에 병사, 입적했다. 사후 6년만에 간행되었는데, 세계 최초의 불교사전이라면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으나 뜻밖에도 치밀한 불교사전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이 사전을 일명 '오다(織田)불교사전' 이라고도 한다.

그 후 일본에서 간행된 불교사전들은 『모범불교사전』, 『불교대사휘』(전6권), 모치즈키 신코(望月信享, 1869-1948)의 『불교대사전』(전10권, 1933년, 大藏출판),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의 『불교어대사전』(1981, 동경서적), 『종합(綜合)불교사전』 등이 있다. 중국에서 나온 불교사전으로는 정복보(丁福保) 편 『불학대사전』(1925년)이 있는데, 이 책은 오다의 『불교대사전』을 중문(中文)으로 번역한 것이다. 그리고 23여 년 전 대만 불광사에서 『불광대사전』(8권, 1988년)이 간행됐다.

그중 1933년에 간행된 『망월 불교대사전』(전10권)은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적인 불교사전으로서, 불교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전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는 학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다. 논문을 쓰자면 없어서는 안 될 사전이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78년 전에 나왔지만, 아직도 이런 사전이 없고, 향후에도 이 사전을 능가할 사전은 드물다. 그래서 이 사전 역시 편자의 이름을 따서 일명 '망월불교대사전' 이라고 한다. 영어판 불교사전은 현재 스리랑카에서 간행 중인데, 아직 완간되지 않았다.

고전적인 불교사전이라면 『경율이상(經律異相)』, 『법원주림(法苑珠林)』,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 『번역명의집(飜譯名義集)』, 『조정사원(祖廷事苑)』 등이 사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역경승들은 불교경전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동시에 어휘 채록과 그 연구 작업을 병행했다. 그 결과 이상과 같은 어휘집이 만들어져서 경전의 이해를 도왔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엮은 『석원사림(釋苑辭林)』 250권이 있는데, 이런 어휘집이 고전적 의미의 불교사전 성격을 갖춘 책들이다.



우리나라 불교사전의 역사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사전은 1961년 5월 22일에 간행된 운허용하 편, 『불교사전』(법보원, 동국역경원)이다. 그 이전에는 한글로 된 불교사전이 없었다. 이 사전은 주로 일본판 『모범불교사전』과 오다 도쿠노(織田得能)의 『불교대사전』을 참고해 편찬했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용어, 사찰 등을 추가했는데, 우리나라 첫 번째 사전으로 많은 역할을 했다.

두 번째 사전은 27년 뒤인 1988년 9월 16일에 홍법원에서 간행한 『불교학대사전』(홍법원, 1988.09.16)이다. 이 사전은 앞의 사전을 바탕으로 일본판 『망월불교대사전』 등을 참고해 많은 항목을 새로 추가하였고, 서술도 잘 된 편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사전이 김승동 교수가 편찬한 『인도 · 불교사상사전』(부산대학교, 2001.04.30)이다. 이 사전은 새로운 정보와 많은 지식이 추가되었고, 개념도 명확 · 간결하고 설명이 아주 풍부하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 · 설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사상사적인 항목은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에서 기원, 변천까지 자세히 설명해 보다 정확한 지식을 전달한다.

네 번째 사전은 『시공 불교사전』(시공사, 2003.07.30)이다. 다음, 다섯 번째 사전은 『가산불교대사전』이다. 이 사전은 모두 13권으로 현재 간행 중인데, 완간된다면 역사적인 사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최초로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출간

도서출판 민족사에서 최근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을 출간했다. 이는 국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불교사전은 약 5, 6종이 있지만 '콘사이스(concise)' 판형은 처음이다. 콘사이스 사전이라 하면 보통 '휴대용 사전', '소형 사전' 으로 통용된다. 민족사는 불교계에 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풍토를 조성하자는 뜻을 품고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을 기획했다고 한다. 그래서 책의 제목도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으로 정했다고 한다. 민족사에서는 제목처럼 휴대가 용이하도록 최대한 사전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여러 종이를 시험했고, 그중에서도 가장 가볍고 질 좋은 종이를 사용했다고 한다. 따라서 1,216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지만 두께는 무려 3.8cm 밖에 안 된다. 책의 두께가 줄어든 만큼 사전을 넣은 가방도 그 만큼 가벼워진 것이다.

초심자 ~ 불교학자까지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한 권만 있으면 만사형통!

초심자 및 불교학자까지,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한 권만 있으면 만사형통!

책의 두께가 가벼워 휴대가 용이해진 만큼 사전의 내용도 빈약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민족사는 판형은 작은 콘사이스판이지만 그 내용은 백과사전과 맞먹는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무작위로 단어를 찾아 타 사전과 비교를 해봤다.


관세음보살 84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범어 Avalokiteśvara. 阿縛盧枳低濕伐邏라 음역하고, 觀自在·光世音·觀世自在·觀世音自在·觀音이라 번역함. 大慈大悲를 근본 誓願으로 하는 보살의 名號. 無量壽經에 의하면 이 보살은 彌陀三尊의 하나로 아미타불의 왼쪽 補處로서 부처의 교화를 돕고 있다. 觀世音이란 세간의 음성을 觀하는 이란 뜻으로 사바세계의 중생이 괴로울 때 그 이름을 일심으로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곧 구제한다고 한다. 觀自在라 함은 지혜로 觀照하므로 自在한 妙果를 증득한 이란 뜻이다. 또 중생에게 일체의 두려움이 없는 無畏心을 베푼다는 뜻으로 施無畏者라 하고, 慈悲를 위주하는 뜻으로 大悲聖者라 하여, 세상을 구제하므로 救世大士라고도 한다. 이 보살이 세상을 교화함에는 중생의 根機에 맞추어 여러가지 형체로 나타나므로, 이를 普門示現이라 하며, 三十三身이 있다고 한다. 원손에는 연꽃은 중생이 본래 갖춘 佛性을 표시하고, 그 꽃이 핀 것은 佛性이 드러나서 성불한 뜻을 나타내며, 그 봉오리는 불성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장차 필 것을 나타낸다. 그 종류로는 六觀音(聖·千手·馬頭·十一面·準提·如意輪)이 보통이다. 그 중 聖觀音이 本身이고, 기타의 것은 普門示現의 變化身이다.

민족사 『콘사이스판 불교사전』(2011년)


관세음【觀世音】 범어 Avalokiteśvara. 阿縛盧枳低濕伐邏라 음역하고, 觀自在·光世音·觀世自在·觀世音自在·觀音이라 번역함. 大慈大悲를 근본 誓願으로 하는 보살의 名號. 無量壽經에 의하면 이 보살은 彌陀三尊의 하나로 아미타불의 왼쪽 補處로서 부처의 교화를 돕고 있다. 觀世音이란 세간의 음성을 觀하는 이란 뜻으로 사바세계의 중생이 괴로울 때 그 이름을 일심으로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곧 구제한다고 한다. 觀自在라 함은 지혜로 觀照하므로 自在한 妙果를 증득한 이란 뜻이다. 또 중생에게 일체의 두려움이 없는 無畏心을 베푼다는 뜻으로 施無畏者라 하고, 慈悲를 위주하는 뜻으로 大悲聖者라 하여, 세상을 구제하므로 救世大士라고도 한다. 이 보살이 세상을 교화함에는 중생의 根機에 맞추어 여러가지 형체로 나타나므로, 이를 普門示現이라 하며, 三十三身이 있다고 한다. 원손에는 연꽃은 중생이 본래 갖춘 佛性을 표시하고, 그 꽃이 핀 것은 佛性이 드러나서 성불한 뜻을 나타내며, 그 봉오리는 불성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장차 필 것을 나타낸다. 그 종류로는 六觀音(聖·千手·馬頭·十一面·準提·如意輪)이 보통이다. 그 중 聖觀音이 本身이고, 기타의 것은 普門示現의 變化身이다.

타사 A 불교사전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관세음(觀世音)은 ⓢavalokiteśvara의 번역, 보살(菩薩)은 ⓢbodhi-sattva의 음사인 보리살타(菩提薩埵)의 준말. 세간의 중생이 갖가지 괴로움을 받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대비와 지혜로써 자유 자재로 중생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는 보살.

타사 B 불교사전

몇몇 불교사전을 비교했더니,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의 설명은 매우 상세하고 명확했다. 따라서 가볍고 얇다고 해서 그 설명까지 얕다고 생각하면 오산인 것이다.

이에 대해 민족사는 부처님 생애와 인도, 중국, 한국, 티베트, 일본 불교의 역사와 초기불교, 원시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밀교의 교리와 역사, 교리, 사상, 철학, 문화를 모두 망라해 서술했다고 한다. 특히 사상적으로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 개념의 성립과 기원, 변천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서술했다고 한다. 듣기만 해도 반가운 소식이다. 초심자부터 불교를 공부하는 학자까지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한 권만 있으면 만사형통인 것이다.

사전(辭典, dictionary)은 교리 · 철학 · 사상 · 문화 등 다양한 축적된 지식을 종합하고 압축한 지식종합선물상자와 같다. 사전은 반드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한다. 또한 사전은 실용성이 최고여야 한다. 불편하면 안 된다. 바로바로, 즉시, 쉽게 찾아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사전의 원칙에 딱 맞는 사전이 바로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이다.

앞으로 국내에 불교사전이 더욱 많이 출간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어떤 불교사전을 골라볼까, 라는 행복한 고민에 빠지도록 말이다.



저자 약력
김승동(金勝東) 편저

1940년 밀양(密陽)에서 출생했다. 법명(法名)은 승환(承煥), 법호(法號)는 선산(鮮山)이다. 부산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소장 ·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소장 · 대동철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도교사상사전』(부산대학교출판부, 1996), 『易思想辭典』(부산대학교출판부, 1998), 『한국철학사』(부산대학교출판부, 1999), 『佛敎 · 印度思想辭典』(부산대학교출판부, 2001), 『儒敎 · 中國思想辭典』(부산대학교출판부, 2003) 등이 있다.

불자들 간의 선물도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으로 합시다.
불교의 모든 지식이 이 한 권에 다 들어 있다.

불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Concise Buddhism Dictionary

사찰의 각종 행사 때, 불교대학 졸업식 때,
선물은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으로 합시다.



김승동 편저(부산대학교 명예교수)
117×178mm / 고급 사전 용지 사용 / 1,216쪽
4,950여 개 항목 수록 / 고급 양장 / 특수 제본 / 값 38,000원

알고 싶은 것, 궁금한 것은
즉시 해결해야만 지식으로 승화된다.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의 특징

1. 총 1,216쪽, 4,950여 항목을 수록했다.
불자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단어 4,950여 개 항목을 엄선했다.

2. 각 단어에 대한 설명이 상세 · 명확 · 풍부하다.

3. 영어 세대를 위해 각 단어의 개념을 영어로 요약 표기했다.

4. 콘사이스판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
고급 사전 용지를 사용해 두께가 3.2cm로 가볍다.

5. 크기는 작지만 내용은 백과사전 못지않게 풍부하다.
한 단어만 찾아도 관련 지식이 쏟아진다. 부처님 생애는 물론, 인도 · 중국 · 한국 · 티베트 · 일본불교의 역사와 초기 · 원시 · 부파 · 대승불교 그리고 밀교의 교리와 역사 · 사상 · 철학 · 문화가 다 서술되어 있다. 특히 반야, 공사상, 중관사상, 유식사상, 대승불교, 선사상, 무아, 열반 등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 개념의 성립과 기원, 변천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서술되어 있다.

구입 문의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E-mail. minjoksa@chol.com ● 법보시 주문받습니다.

꽃은 시샘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보는 세상은 모두가 다르다. 그것은 보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지 세상이 다른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공(空)하다고 한다. 공은 아주 없다는 말이 아니다. 사람들이 보는 관점인 망상으로 파악된 세상이 허상이며 공하다는 말이다.

〈금강경〉은 자신의 진실한 모습과 우주실상의 이치를 파악해 자신이 누군지, 세상의 진실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 가장 지혜롭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설한 경전이다.

〈꽃은 시샘하지 않는다〉의 저자 성범 스님은 대전 구봉선원에서 대중에게 강의했던 내용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다.



스님은 "〈금강경〉을 반복해서 계속 공부해야 한다"고 말한다. 쓰다 보면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지혜의 안목이 열리기 때문이다. **꽃은 사생하지 않는다 | 성범 지음 | 구본 펴냄 | 1만2000원**

조동섭 기자

신라 도읍지는 경주가 아니다

삼국의 역사는 사기와 유사를 막론하고 신라 중심으로 엮어져 있다. 특히 신라는 불교가 전래된 이후 불교국가로 자리해 불교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는 삼국사를 올바로 이해하기 어렵다.

저자인 정암 스님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삼국유사〉의 내용을 새로운 시각으로 번역해 "경주가 신라의 도읍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삼국사기〉를 비롯해 〈환단고기〉 〈규원사화〉등을 통해 고조선 관련 고기(古記)에서 단군신화에 나오는 태백산은 삼신산(三神山)을 말하고 있다"고 밝힌다. 이어 "한국사의 근간이 되는 신라와 고조선의 실체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신사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책은 대장경 원전과 대조해 오류가 확인하고 원문을 바로잡아 번역한 점이 특징이다. **삼국유사 | 일연 지음 | 정암 역주 | 북스타·광문각 출판사 펴냄 | 2만2000원**

이은정 기자

100원으로 하루를 사는 법

일본 교토 스님의 인생철학 이야기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많은 경계에 부딪힌다. 가난, 부끄러움, 고독, 학대, 다툼 등 살아가는 데 있어 앞을 가로막는 어려운 상황과 감정들로 우리의 마음은 늘 흔란스럽다 .

매일 몇 천 명의 사람이 찾아오는 교토 대선원의 오제키 소엔 스님은 〈흔들리는 마음 버리기〉에서 상황과 감정의 경계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일러준다.

먹고 사는 문제에 늘 민감한 우리에게, 스님은 책에서 먼저 돈이란 무엇인지, 가난을 익히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일러준다.

오늘 하루 중으로 지갑에 있는 돈 전부를 다 쓰고 100원만 남겨놓자. 그 다음날 100원밖에 없는 것에 상쾌한 기분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안한 마음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어서 두 번째 수행이다. 소엔 스님은 주머니 속에 남아 있는 100원 동전 하나로 하루를 보내라고 지시한다. 용도는 자유다. 대중교통 정액권을 이용해 학교나 회사로 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도 좋고 공중전화로 애인이나 친구를 불러내 도움을 받아도 좋다.

스님은 "인간은 2~3일 굶는다고 쉽게 죽지 않는다. 처음부터 비현실적인 수행을 요구한다고 불평하지 않길 바란다. 단, 한 가지 알아줬으면 하는 건 '돈이란 무엇인가' 이다"라고 말한다.

스님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돈에 의해 살아가지 않는다. 돈이 없으면 죽는다는데 그것 은 순 거짓말이다.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하는 생명의 활기가 사라지면 죽는다. 단돈 100원이어도 좋다. 지금 가진 걸 어떻게 쓰며 살아갈지 그 임기응변이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이다.

"왜 다른 사람들이 너를 경멸하는가. 그것은 성적이 나빠서가 아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너를 신뢰하지 않는가. 그것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기 때문이 아니다. 네가 자신의 인생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그저 도망치고 있기 때문이다. 비겁하기 때문이다."

소엔 스님은 우리 생활에서 동떨어진 어려운 철학적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스님의 주변 지인과 신자들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우리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친절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지적해준다. 또한 중간 중간 등장하는 옛 선사들의 이야기 역시 흥미롭고 재미있다. 불교에 문외한이라면 이 책을 통해 선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책에서 스님은 다툼에 대해 "사람과 사람이 다투는 것은 좋다 나쁘자 하는 문제가 아니다. 현실에 그러한 다툼이 있다는 것을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 자신이 그 소용돌이 속애 있고,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인간의 어떠한 모습을 봤는지 중요하다" 고 말한다.

저자 오제키 소엔 스님은 1965년 33세의 젊은 나이에 쿄토 대선원의 주지가 됐다. 스님의 호쾌한 설법은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을 만큼 인기가 있으며, 그는 스물아홉 권의 책을 집필한 매우 유명한 인물이다.

흔들리는 마음 버리기 | 오제키 소엔 지음 | 김지연 옮김 | 큰나무 펴냄 | 1만2000원

이나은 기자

군대 선임을 스승 삼아 살라… 법륜 스님의 군생활 지침서

최근 발생한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의 주된 원인은 '군대 내 따돌림'이었다. 사회와 단절된 공간에서 군내 내의 선·후임과의 불편한 관계가 결국 참극으로 이어진 것이다. 군대 내의 사건과 사고는 비단 오늘일 만이 아니다. 탈영, 자살, 총기사고 등 군대 내 사고소식은 늘 상 끊이지 않았다.

군 장병들은 가족과 친구들과 떨어져 사회와 단절된 공간에서 새롭게 인간관계를 맺고, 인생을 설계해 생활해야 한다. 대부분의 장병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외로움과 선·후임과의 관계, 불안한 미래, 연애문제 등에 힘들어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군 생활을 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일까.

법륜 스님은 군부대에서 고민하는 병사들을 위해 포켓용 미니북 〈힘내라 청춘〉을 발간했다. 책은 병사들의 다양한 고민거리에 응답한 내용으로, 발간 전부터 군인들의 공감과 지휘관들의 극찬을 받았다.



실제로 스님의 상담내용 중에는 군대 선임이 자꾸 괴롭혀 군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한 이들이 많다. 한 장병은 나름 군 생활을 열심히 잘 적응하려고 하는데, 유독 자신을 괴롭히는 선임이 있어 힘들다고 말했다. 아무리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으며, 심지어 괴롭힐 때 표정이 안 좋으면 '표정이 썩었다' 라며 화를 내기 일쑤며, 심할 때는 때리기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럴 때마다 이 장병은 스트레스와 짜증으로 심할 때는 그를 때리고 싶고,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륜 스님은 이런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어떻게 해도 나는 그 사람에게 '화가 나지 않는다' 라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는 그 정도 안 넘어가, 뭐 그런 정도에 넘어가나' 라고 자신의 수행테스트 시간으로 삼으라고 말한다.

"스승은 훌륭해서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공부로 삼으면 스승이 되는 것이다"라며, "선임을 스승으로 공부 삼아 수행의 기회로 삼으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책은 '내 삶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것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연애·관계·진로에 대해 새롭게 인생을 설계하라 수 있는 방법들을 말해준다. 책은 군인들 뿐 아니라 2030청춘들 모두에게 전하는 행복의 메시지다.

힘내라 청춘 | 법륜 지음 | 정토출판 펴냄 | 3000원

이은정 기자

詩처럼 읽는 붓다의 가르침

진정한 삶의 지혜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데 엮어졌다. 미국불교의 가장 존경받는 교사 중 하나인 잭 콘필드는 인도, 티베트, 중국, 일본 등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읽히는 저술들 중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가르침들을 가려 뽑았다.

책은 본래 책을 번역한 이현주 목사가 엮은 시리즈 물 중 4권에 해당하는 〈지혜의 우물〉이다. 책은 인도 문헌과 티베트 스승들의 시, 명상에 대한 선사들의 노래를 두루 포함시켜 불교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편의 시집처럼 엮었다.



붓다의 가르침|잭 콘필드 지음|이현주 옮김|아침이슬 펴냄|9000원

이은정 기자

명쾌한 깨달음

저자 백창우는 어릴 적부터 딱히 내세울 것 없는 그저 그런 삶을 살다가, 나이가 40중반을 넘으면서 불현듯 어릴 때 풀리지 않던 질문이 떠올랐다. 처음엔 미미하게 시작하더니 점차로 가슴을 가득 메웠다. 왠지 이 질문을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저자를 공부하도록 만들었다. 처음엔 선공부를 한 저자는 공부할수록 점점 더 모호해졌다.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책을 읽고 갑자기 머리가 빙글 돌더니 답을 얻었고 깨달음을 얻었다.



저자는 제대로 발심만 된 사람이면 누구나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해 블로그와 인터넷카페를 통해서 매일 글을 썼고 이를 〈명쾌한 깨달음〉으로 엮었다.

명쾌한 깨달음 | 백창우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5000원

현공풍수학 연구의 결정판

현공학(玄空學)은 중국 명나라 말기~청나라 초기에 장대홍의 저서 〈지리변정(地理辨正)〉을 통해 세상에 소개됐다. 지리학의 진위(眞僞)와 사정(邪正)을 분별하는 법을 담았다는 책의 등장은 수백년간 논쟁을 잇게 만들었다.

장태상 석좌교수(동방대학원대학)는 개정판 〈풍수총론〉을 펴냈다. 저자는 책을 통해 현공학의 심오한 비밀을 풀어 국내에 처음 소개하고 있다.



풍수총론 | 장태상 지음 | 도서출판 정산 | 3만7000원 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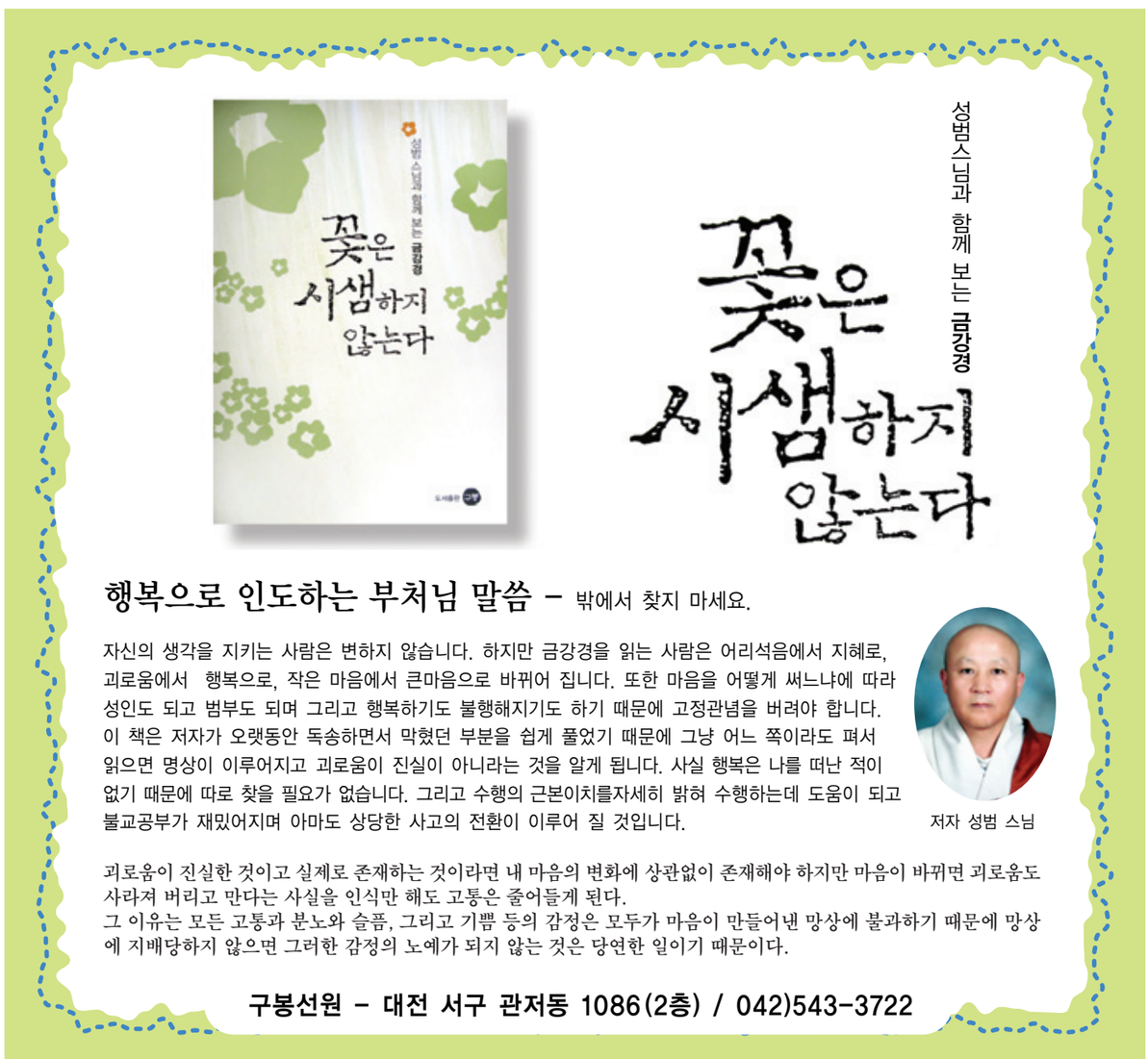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2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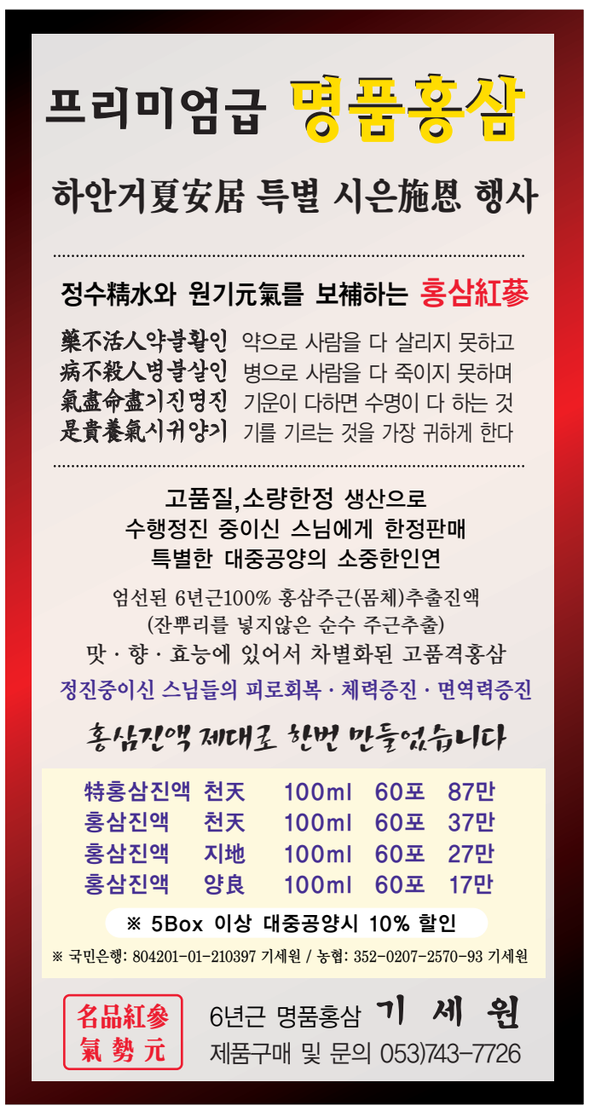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스님은 사춘기	명진	이솔
3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	이진영	불광출판사
4	하루 한 가지 마음공부법	우학	조화로운삶
5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6	어떤 그리움으로 우린 다시 만났을까	성전	마음의숲
7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8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김승동	민족사
9	명쾌한 깨달음	백창우	운주사
10	현재 이 순간에 머물기	인경	명상상담연구원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간절했던 국모의 염원은 저문 해와 함께 종소리가 되고



⓫ 공주 신원사(新元寺)

발끝에 산길이 익숙해질 때 쯤 산길은 끝이 나고, 눈앞에 나타난 돌계단 위엔 사천왕문이 산문을 열고 있다. 꽃길이었을 길이 탐전까지 사뿐히 닿아있고, 석탑 너머엔 법당 그림자가 파란 잔디 위에 누어있다. 숲엔 오래 된 석탑이 하나 자라있고, 장맛비가 지나간 매화당 툇마루엔 스님 세 분 스님이 선명하게 도량을 채우고 있다. 신원사다.

절이 주는 매력 중의 하나는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속세에서 멀어지는 것일 것이다. 일주문이나 사천왕문에 들어서며 합장을 하는 순간 속세는 멀어지고, 연산의 개념을 벗어난 시간과 자리가 가슴으로 다가온다. 그 절이 세상에 덜 알려진 절일수록 그 매력은 더해진다. 신원사가 그렇다. 계룡산이 품은 명찰 중의 하나이면서도 신원사는 다른 절이 비해 세인의 발길이 적다.

공주 마곡사의 말사인 신원사는 백제 의자왕 11년(651) 열반종(涅槃宗)의 개조인 보덕(普德) 스님이 창건했다. 고려 충렬왕 때(1298) 무기(無寄) 스님이 중건을, 조선 태조 때 무학 스님이 삼창을 했다. 전각들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후 다시 창건됐다. 경내에는 한국 최고(最高)의 산신각인 중악단(보물 제 1293호)이 있다. 1394년에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세운 중악단은 효종 2년(1651)에 폐지됐다가 고종 16년(1879)에 명성황후 민비가 재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천인공노할 결말로 인해 인생 전체가 '비운의 왕비'로 축약된 민비. 그는 그 시절 중악단에 앉아 무엇을 염원했을까. 일본 낭인들의 칼 끝에 사라진 왕비. 그녀는 그렇게 가고 없고, 그녀가 앉았던 중악단엔 백발의 할머니가 앉아 있다. 우리는 끊임없는 염원 속에서 살고 있는 듯하다. 늘 바라고 또 바라며 살고 있다. 왕비의 자리에 앉아서도 산신각을 지어야 했으니 말이다. 그리고 그녀의 염원은 무엇이었기에 비운의 왕비가 됐을까.

발끝에 산문의 흙바닥이 익숙해질 때 쯤 산문의 하루는 저물고, 종각에선 저녁 종소리가 들려온다. 비운의 왕비가 걸었을 길이 사천왕문까지 사뿐히 닿아있고, 사천왕문 너머에선 멀어졌던 속세의 시간과 자리가 기다린다. 종소리가 숲으로 숲으로 날아가고, 포행하고 돌아온 노스님이 매화당 돌계단을 오른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한국 최고(最高)의 산신각 중악단(보물 제1293호)

30년 전통의 멋과 아름다움이 있는 주얼드림

은(銀)의 모든것 총집합

염주, 단주, 금강저, 반지, 목걸이, 핸드폰줄, 자수정, 호안석, 백옥, 청옥





주얼드림 본사 공장 및 영업부 :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793-2번지
031)969-9495 / 070-4128-9495 / 011-441-9495

NAVER 주얼드림 검색 www.jeweldream.co.kr

* 책자(카다로그)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신청해주세요.
농협 356-0400-2307-43 예금주 : 주얼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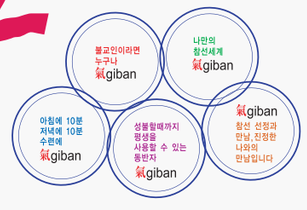


6번 20,500 | 7번 39,000 | 8번 30,000 | 9번 32,000 | 10번 20,500 | 11번 20,500 | 12번 61,000 | 13번 20,500 | 14번 48,000 | 15번 62,000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미얀마문화원·현대불교신문사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덕분에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게 됐어요

붓다자비봉사단 미얀마 고아원 방문, 후원금 전달 및 자원봉사

미얀마문화원(원장 목탁)과 현대불교신문사는 미얀마 현실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1년 3월부터 미얀마 불자 지원 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으로 미얀마문화원 소속 붓다자비봉사단은 지난 3개월간 불자님들이 보내주신 후원금을 모아 미얀마 현지의 극빈지역 고아원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미얀마문화원과 현대불교신문사는 앞으로도 미얀마 후원에 관심 있는 불자 및 봉사자들을 모집할 계획이다. 모금된 후원금은 미얀마 양곤에 건설 진행 중인 종합기술대학 건립, 극빈지역 공동우물 파기, 극빈지역 고아원 및 학교, 불우가정, 신뿌의식(재가출가의식) 등에 지원되며 미얀마문화원 봉사단의 정기적인 현지 방문 시 후원물품과 함께 전달된다.

후원: 예금주)국제불교지도자협회 농협 301-0016-0537-91 (02)733-5670

이나은 기자



①2008년 미얀마에 발생한 태풍 '나르기스'로 부모를 잃은 3800여명의 어린이들이 아유디가 고아원에 머물고 있다.



②



③



④



⑤

② 불자회원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띤간준지 우물 ③ 아유디가 고아원은 교실이 5개 밖에 되지 않아 사방으로 칠판을 놓고 수업을 하고 있다.④ 아유디가 고아원 원장 우 애리아 완따 스님(70) ⑤ 고아원에서 교육 자원봉사를 맡고 있는 메두 교사(28)

미얀마문화원(원장 목탁)과 붓다자비봉사단 20여 명은 6월 14~19일 미얀마 밍갈라동시에 위치한 '아유디가' 고아원(원장 우 애리아 완따 스님, 아유디가 사원 주지)을 방문했다.

봉사단은 우 애리아 완따 스님에게 미화 5000달러 전달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옷 10박스, 학용품 5박스, 과자 6박스 등을 지원했다.

봉사단원들은 현장 구석구석을 돌아 본 후 위생적인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해 목욕, 청소, 소독 등 봉사활동을 했다.

현재 아유디가 사원은 사찰 한 켠에 아이들의 방이 있는 건물을 증축하고 있다. 이 건물이 완성되면 500여 명의 아이들을 더 수용할 수 있다. 붓다자비봉사단이 전달한 지원금 미화 5000달러는 건물 증축 및 고아원 운영비용에 보태진다.

우 애리아 완따 스님은 "매번 보내주는 학용품과 옷, 후원금은 아이들에게 생명수와도 같다. 하지만 몇 년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다. 재정난으로 정들었던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했다"며 "그런데 한국 불자님들과 인연이 돼 많은 힘을 얻고 있다. 내 마음도 더욱 강해져 용기를 얻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의 후원은 이번 증축에 보탬이 돼 500명의 아이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애리아 완따 스님은 10세에 출가해 20세에 삥마삔에 아유디가 사원을 세웠다. 1976년부터 가난한 어린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스님은 미얀마 사람들에게 정신적 지주로 추앙받고 있다.

아유디가 고아원은?

불교국가답게 5만여 사찰이 있는 미얀마에는 수많은 사찰 중 눈에 띄는 사찰이 있다.

5000명 고아들을 위해 사찰을 개조해 고아원을 만든 아유디가 고아원(원장 우 애리아 완따 스님)이다.

여느 사찰과 다르지 않았던 아유디가 고아원은 현재 수행과 봉사를 함께하는 이 지역 최대의 고아원이 됐다. 고아원 어린이들의 아버지이자 운영자인 우 애리아 완따 스님의 원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얀마는 2008년 5월 발생한 태풍 '나르기스'로 인해 7개 도시가 폐허로 변하고 3만여 명의 사망자와 5만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극빈지역인 밍글라동시는 이때의 피해로 부모를 잃은 수 많은 어린아이들이 발생했고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상황이었다.

이를 보다 못한 '우 애리아 완따' 스님은 2년 전 삥마삔 마을에 있던 사찰을 개조해 고아원을 만들고 고아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고아원은 2년새 500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하기에 이르렀으나 어려움이 많다.

미얀마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고아원은 예산 전체를 신도들의 후원으로 간신히 꾸려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2006년 미얀마의 수도가 네삐도로 바뀌면서 아유디가 고아원을 후원하던 신도들이 밍글라동시를 떠나 후원이 점점 줄어들게 된 것.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고아원 운영이 힘에 부치게 되자 스님은 수 천명의 아이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급기야 주변 사찰과 고아원으로 아이들을 보내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다른 곳으로 보내진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스님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아유디가 고아원은 3800여 어린이들이 생활하기에는 매우 좁고 열악한 환경이다. 교실 5개에 선생님은 8명. 교사 1명당 475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셈이다. 학생 수가 넘쳐나다보니 교사들은 교실 동서남북 사방에 칠판을 걸고 중구난방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교사들 중 7명은 우리나라 돈으로 월 3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지만(미얀마 공무원의 평균급여는 15만원 정도이다.) 고아원 사정상 선생님들을 더 이상 채용할 수 없다.

그래서 몇몇 스님들과 자원봉사자인 메두 교사(28)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메두 선생님은 중학교때 부모를 잃고 고아원으로 들어왔다. 아유디가에서 성장해 도시에서 대학까지 마친 후 다시 아유디가로 돌아온 그는 무료교육 봉사로 스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있다.

메두 교사는 "매일같이 서서 아이들을 가르쳐도 아이들에겐 공부가 부족하지만 한국 불자들의 관심으로 아이들이 더 밝아지고 희망을 가지게 됐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1회성 생색내기 봉사 단체로 오해받으며… 지속적인 지원 다짐해

아유디가 고아원에 도착한 봉사단은 법당에 들어가 삼배를 올리고 일행들과 고아원과 동네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현재 3500여명의 아이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었다. 아이들의 숙소는 비좁고 습하고 어두웠다. 너무도 비참한 환경이었다. 성인은 누울 수조차 없는 좁은 공간이 이곳 아이들의 잠자리이며 생활공간이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 미얀마는 쓰레기에 대한 정부의 그 어떤 조치도 없단다. 음식물이건 플라스틱이건 비닐봉투이건 그냥 뒹굴면서 썩어간다. 썩어 고인 물들은 다시 웅덩이를 만들고 그 물들은 다시 강가나 저수지 등으로 흘러 들어간다. 아이들은 이런 곳에서 물 한 바가지로 샤워를 한다. 그래서 머리며 온 몸통에는 피부병이 심각하다.

아이들 공부하는 곳으로 발길을 돌려보았다. 이런! 교실 동서남북으로 칠판이 걸려있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학생들이 사방으로 나뉘어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교실 부족에 선생님 부족 탓으로 이런 방법을 쓰고 계신다고 한다.

서로들 공부해야 하는 수준들이 다르다 보니 임시방편으로 사용하신다고 한다. 그런데 선생님이 두 분이다. 두 분이 칠판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다.

며칠간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모기와 파리와 개미떼에 항복하고 호텔로 옮겨야 하나 싶다. 아이들이 걱정됐다. 아이들은 늘상 있는 일이라고 웃어 넘긴다. 참으로 마음이 아팠다.

'짧은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봉사활동 마치고 돌아가자' 하고 맘을 다잡았다. 생각했던 것 보다 일손이 많이 부족했다.

일단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의식수준이 다르다보니 소독을 함에도 현지인들과 함께 하기엔 어려움이 많았다. 내키지 않나보다. 그저 굶주린 배 만 채워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설명을 하니 그제서야 이해를 했다. 다행이다.

이곳 고아원은 아이들이 많다보니 주지스님께서는 항상 끼니 걱정을 하신다.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분인데 너무 힘들어 보이신다. 더 달라고 조르기만 했던 내가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아이들과 며칠간 함께 생활하니 이제는 아이들과 주변 어른들도 경계심을 풀고 대해주신다.

1회성 생색내기 봉사 단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 말씀이 아픔으로 각인됐다.

붓다자비봉사단은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나는 매번 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약속을 드리고 5일간의 봉사를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봉사는 현지의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진정 그들을 이해하고 돌아왔다는 데에서 의미가 깊다.

최정연(42 · 붓다자비봉사단 회원)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 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 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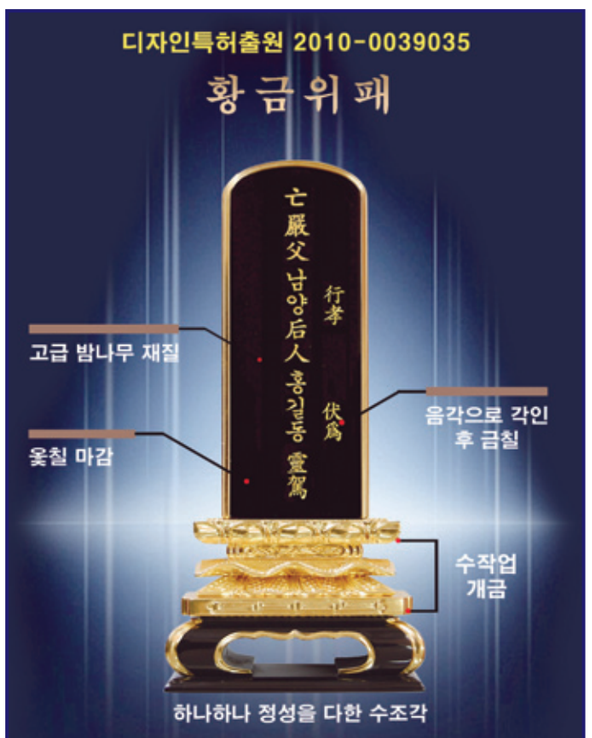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디자인특허출원 2010-0039035
황금위패



• 규 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 흑옥위패
• 흑단위패

위패전문기업 (주) 대 양
대표전화 : 02-966-9650
팩 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6-1 1층



석길암의
고려불교인물 〈7〉
원융국사 결응
(圓融國師 決凝; 964~1053) 上

화엄의 종취 지킨 부석사의 종장

故 김지견 선생은 일찍이 〈균여전 재고(均如傳 再考)〉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고려 왕실과 불교 간의 관계를 평한 적이 있다.

"광종이 중국의 선종오가(禪宗五家) 중 맨 나중에 성립한 법안종에 주목해 지종 등 30여 인을 파견해 이를 수입, 고려에 부식(扶植)시키고자 한 것은 바로 신라 말의 구산선문을 재편해 환골탈태시키고자 한 또 하나의 시도였던 것이다. 그러나 광종의 이와 같은 성급한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구산문의 개산조는 거의가 입당 전에 북악(北岳, 신라 말의 의상계 화엄을 말한다)의 부석사에서 화엄을 공부한 이들이었다. 그들은 입당(入唐)하여 새로운 선풍을 전래했지만 위앙이든 조동이든 이를 새로운 선풍으로 독립시킨 실례가 없다. 아무리 새로운 선풍이라 할지라도 어김없이 그것을 선사(先師)의 산문에 귀속시키는 것이 그들의 확고한 전통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구산의 완강한 전통 앞에 당연히 수입의 법안종은, 그리고 그 수입에 앞장섰던 광종의 왕권은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호에 법안종의 원공국사 지종이 끝내 도읍을 떠나지 못했던 사정을 잠깐 언급했었는데, 광종의 후원을 받아 고려 왕실의 정책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불교를 이식하고자 했던 원공국사 지종은 끝내 자신의 바람을 실현하지 못하고 입적을 코앞에 두고 낙향을 택하고 말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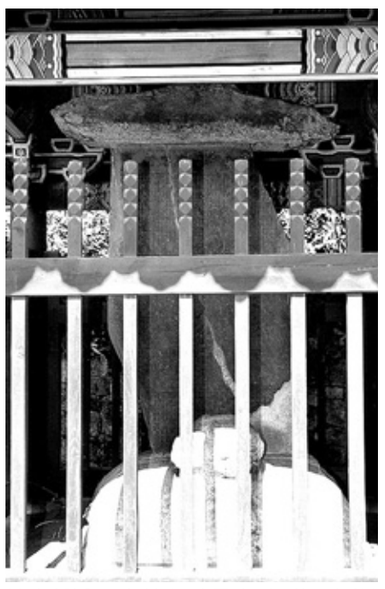
그런 광종의 급진적인 개혁정책에 희생당한 또 하나의 인물이 바로 저 유명한 균여이다. 균여의 입장이 광종의 불교정책과 엇갈리면서, 균여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된

지종, 광종의 급진 개혁 희생양
결응 스님, 정치적 안정기인
의상계 화엄종 주도적으로 이끌어

다. 혁련정이 저술한 〈균여전〉에는 광종과 균여의 엇갈림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노하여서 스님(師, 균여)을 불러들여 해하고자 하였다가, 스님이 궐내에 이르러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 땅에 엎드리자, 그 정상을 보고 잘못이 없다 여기고 명령을 번복하여 의관 두 사람으로 하여금 부축하여서 내보냈다."

명령을 번복하여 내보냈다지만, 이제 막 50대에 불과했던 균여 스님이 의관 두 사람의 부축을 받고 나서야 했을 정도였으니, 실은 고문을 받고서 감당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로써 균여를 대표자로 내세워 고려의 중앙부에 화려하게 등장했던 의상계 화엄은 중앙에서 일시 퇴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균여의 공백을 비의상계 화엄종 승려로 여겨지는 탄문이 국사로서 메웠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탄문의 뒤를 막 귀국한 원공국사 지종이 채우게 된다. 그러나 원공국사는 고려왕실을 지탱할 새 불교를 바라는 왕실의 후원을 받으면서 개경 도읍 40년을 머물고도, 신라적 불교와 고려 왕실을 간극을 극복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부석사원융국사비(浮石寺圓融國師碑),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27호. 부석사 한켠에 지어진 비각 안에 놓여 있는 비로, 원융국사 결응을 기리고 있다.

이후 고려는 성종의 치세를 맞이하면서 정치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기는 하지만, 왕들이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귀족 세력에 의해 견제를 당하면서 일종의 균형을 이루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라 불교를 대변하던 법상종과 의상계 화엄종 세력이 다시 부상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융국사 결응은 바로 그러한 시기에 고려의 의상계 화엄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이다. 결응 스님은 964년에 태어났는데, 그의 선조는 명주(溟州)의 호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스님의 자는 혜일(慧日)이고, 속성은 김씨이다. 집안이 한나라 때의 만석군 부자였던 석분(石奮)에 비교될 정도로 부유했던 호족 가문의 출신이었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 교수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24 시종(時宗)의 조사 잇펜 상인(一遍上人) 上

정토불교를 대표하는 결정판

중생구제를 위한 잇펜(一遍; 1239~1289)의 평생의 삶은 오늘날 일본 정토불교계를 대표하는 지행(知行)의 결정판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전국을 행각하던 중 만난 모든 중생을 아미타불의 대자대비의 품안으로 인도하고자 했다. 평생을 버림으로 일관했기에 그를 스테히지리[捨聖]라고도 한다.

잇펜은 에히메현의 무사 호족 집안 출신이었다. 그가 태어났을 때는 죠큐(承久)의 난(1221)을 계기로 무사정권인 막부가 왕위 결정을 비롯해 왕실 전체의 권력마저 장악하던 시기였다.

잇펜의 가문은 전쟁에서 패한 왕실 쪽에 섰던 바람에 몰락해 권세를 잃어버린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 그는 정토종 사원에 들어가 수학하고, 10살 무렵에 출가해 '치신(智眞)'이라는 불명을 받았다.

그는 수행 도중 25세에 아버지의 죽

평생을 버림으로 일관
이하백도 그려 정토신앙 드러내
가족을 데리고 염불포교 나서

음으로 가계를 잇기 위해 환속했다. 그러나 남겨진 재산을 놓고 일족이 싸우는 모습에 다시 출가를 결심했다.

잇펜은 32세였던 1271년, 오카야마현에 있는 젠코지(善光寺)에 들어가 아마타불 신앙을 깊이 체험하고는 '이하백도(二河白道)'의 그림을 그렸다. '이하백도'란 중국 정토교의 조사인 선도(善導)의 〈관무량수경소〉에 기술된 것으로 왕생정토를 원하는 자가 미혹으로부터 벗어나 극락에 이르는 노정을 설명한 것이다.

남쪽에는 불의 강, 북쪽에는 물의 강이 있으며, 이 가운데는 서쪽으로 향한 백도가 있다. 이 길을 가는 도중 양옆에서는 수화가 덮치거나 뒤에서 도적들과 괴수들이 쫓아온다. 진퇴양난 중 동쪽 기슭에서는 죽음의 재앙은 없으니 빨리 건너라는 고함과 서쪽 기슭으로부터는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목소리가 들려와 믿음과 힘을 얻어 길을 무사히 건넌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동쪽은 사바세계, 서쪽은 정토



〈잇펜상인상, 에히메현 호곤지(寶嚴寺) 소장〉

극락, 도적들과 괴수들은 고통으로 가득 찬 중생의 세계, 불의 강은 성냄과 증오, 물의 강은 애착과 욕망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에 놓인 백도는 정토왕생에 대한 서원의 길이며, 동쪽에서는 석가의 교법이, 서쪽에서는 아미타불의 본원으로부터 발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러한 장면의 설정을 통해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통해 이 백도를 건너 안락세계에 이른다는 내용이다. 잇펜은 이 그림을 통해 자신의 정토신앙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이하백도를 본존으로 하고 3년간 염불정진해 체득한 바를 '십일불이송(十一不二頌; 十劫正覺衆生界 一念應生彌陀國 十一不二証無生 國界平等大會坐)'으로 나타냈다. 그 내용을 풀면 다음과 같다.

법장보살은 오랜 과거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서원을 세워 아미타불이 됐으며 이로 인해 모든 중생은 이미 제도됐다. 따라서 미혹에 젖은 우리 중생들도 지금 일념으로 염불을 하면 아미타불의 나라에 왕생할 수 있다.

미타불의 정각과 중생의 일념은 둘이 아니므로 무생(無生)의 세계를 증득해 아미타불과 일체가 될 수 있다. 아미타불과 인간은 평등해 일념의 염불로써 극락정토에 함께 안주할 수 있다.

잇펜은 이러한 깨달음을 계기로 처와 딸, 제자를 데리고 염불포교의 유행(遊行)에 나섰으며, 특히 나무아미타불이 쓰인 패를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러다가 어떤 승려로부터 자신은 신심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 패를 받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번뇌가 일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경 봉 스님이야기 – 삼소굴의 향성⑭

경봉 스님 일지와 편지에는 대중과의 법거량 담겨있어

경봉 스님이 남긴 〈삼소굴일지〉와 〈삼소굴소식〉을 통해 당시 사회적 환경과 그 시대 선사(禪師)들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다. 이번호부터는 '일지'와 '편지'를 통해 선사들의 법거량과 제자들을 지도하는 내용, 불교계의 중요한 사건, 수행일과 등을 살펴본다.

스님의 일기는 1910년(19세)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경봉 스님은 그렇게 시작한 일기를 1976년(85세)까지 무려 67년간이나 썼으니 얼마나 성실하셨는지 그 성품을 알 수 있다.

이 일지의 서문을 쓴 법정(法頂) 스님의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1920~1970년대에 이르는 동안 누구 누구라고 그 이름을 들출 것도 없이 제방(諸方)의 눈푸른 납자(衲子)와 선지식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일지를 통해 찾아보게 된다. 그리고 그 당시 승가(僧伽)의 가풍이며 절 살림살이의 양상도 넘어다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기록은 단순히 사적(私的)인 기록의 영역을 넘어 현대 한국불교사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요즘의 불교계와 비교해볼 때 진짜와 가짜의 갈림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 눈으로 가려볼 수 있다."

물론 〈삼소굴일지〉는 경봉 스님의 일기를 모두 모은 책은 아니다. 이 책은 통도사 극락암 선원장인 명정 스님에 의해 편집된 것으로 경봉 스님이 삼소굴에서 쓴 일기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삼소굴소식〉은 '한국 근세 고승서간문집'으로 경허(鏡虛, 1849~1912)스님으로부터 경봉 스님에 이르기까지 177명의 등장인물과 편지 246통이 들어 있다. 명정 스님에 의해 정리·번역된 책은 가마니로 두 가마니 분량이나 됐다고 한다. 〈삼소굴소식〉에는 경봉 스님이 삼소굴에서 주고받은 편지가 중심이지만 경봉 스님과 주고 받지 않은 귀중한 서간문도 포함돼 있다. 대개는 선사들 간의 교류된 편지이지만 거사들과 주고받은 내용도 있고, 간혹 선원 등 단체와 주고받은 내용도 있다.

경봉 스님이 보낸 편지를 보면 스님이 38명, 선원이 2곳 재가가 5명으로 모두 65통이다. 경봉 스님이 받은 편지는 스님이 69명, 선원이 4곳, 재가 12명으로 84명 157통에 이른다. 스님은 불교계의 중요사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일지에 기록을 남겼다. 1945년 8월 16일 일지를 보면,

"14일 일본천황이 조서(詔書)로써 사국선언(四國宣言)을 수락하고 만세(萬世)에 태평을 연다는 방송이 있었고, 8월 15일 전쟁은 휴전이 되었다 한다"고 기록했다. 또 1953년 1월 20일자에는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 취임하던 날이다"라고 적었고,

1961년 5월 16일자 일지에는 "오전 4시를 전후해서 장도영(張都映) 중장이 지휘하는 혁명군사에서 쿠테타가 발생해 요충지를 점령하고 중앙청 방송국 경찰을 완전 장악하고 6개조의 성명을 발표했다.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한다고 한다"라고 기록했다.

이 같이 스님의 일기는 시대적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경봉 스님의 일지에 실린 인물은 424명(중복 포함 565명)에 이른다. 여기에 선사, 정치인, 경제인, 공사인부 등 다양한 사람들이 망라되어 있어 다채로운 자료가 된다.



정도 스님(동국대 외래교수)

당신도 설법을 연수하면
설법을 잘할 수 있다 ???

교육내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최면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40년 노하우, 전문가인 원장 직접 지도

교육일정
❖ 종 합 반 : 10인 이내
❖ 개인지도 : 환영, 특별지도

연수안내
❖ 기 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 강 의 : 종 합 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
개인지도 – 직접 상담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우불 철학박사 김 철 회
사)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韓 國 說 法 硏 修 院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1. 3. 5호선 종로 3가역 1번 출구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 (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 (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1-545-5060

정확도 효과성 제일
전국 교보 · 영풍 · 반디앤루니스 · 인터파크 · 예스24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육임 학습서 ◆
· 효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 · 하 권 45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 5만원
· 효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5만원 이상3종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련본 1권 5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이상8종

◆ 육임 및 각 오행술 분개 CD프로그램 ◆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종합) 350만원
· 효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
· 효사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별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효사일상생활감정법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 효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련 제3판본 1권수록 30만원
· 효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련판 수록 5만원
· 토정비결수록 5만원
· 꿈해몽 5만원
이상 13종

◆ 기 타 ◆
· 효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전통1권 / 전순별6권, B4 / 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효사활인천역집2011완결최종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정가350만원
· 효사육임강의CD100개 정가 120만원
· 한국육임학회 인터넷강의 동영상 매1회 (24시간수강) 7천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농 협 301-0071-8027-01/ 육임나라㈜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가능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천부경 6의 비밀-운명과학으로 풀어내는 〈新학문〉
신비의 예지법 강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동시개강)

○ 운명, 운세, 인연법을 동시에 해결
○ 평생운, 해운, 년운(일년신수), 월운 까지
○ 택일 – 결혼, 이사, 행사, 제왕절개 수술일자, 묘이장
○ 궁합 – 운세궁합, 인연궁합도 함께 풀이
○ 진로상담 – 공부, 학업, 전공, 대학, 직장, 취업상담법
○ 장사 & 사업 – 장소, 인연, 업종, 개업시기, 장사운
○ 개운상담법 – 어려움을 해결하여, 신비의 개운법
○ 개운기도법 – 개운의 비법, 개운행사법, 특수수련법 등

〈 특수 교육강좌 〉
◈ 천부경 성명학 & 작명법(15주)
◈ 천부경 타로카드 상담법(3주)
◈ 천부경 운세감정법(10주 완성)
◈ 천부경 숫자풀이법(5주 완성)
◈ 천부경 진로상담법(장사/사업 포함)

스님, 종교인 특별반 운영 (10주 완성)
* 무한리필교육 – 완벽상담시까지

▣ 서울 • 부산교육원 (010)-9171-3001
▣ 대 전 교 육 원 (010)-6476-1021
▣ 대 구 교 육 원 (010)-6251-5776

천부경 6의 비밀 – http://cafe.daum.net/cheonbu6



한국구술인물사⑫ / 전 재 성 빠알리성전협회 회장

가명 쓰며 '민중불교론' 기고해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1977년 〈대화〉 폐간호(10월호) 표지에는 큼지막하게 〈민중불교론〉이 보인다. 월간 〈대화〉는 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 발행한 잡지이다.

요주의 인물인 전재성 이름을 피해 전서암이라는 필명을 사용했다. 글의 파급효과는 예상외로 컸다. 민주화운동의 불모지였던 불교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던 것이다. 유신독재에 항거하는 민주화운동에 비로소 불교인들이 뛰어들기 시작한 계기를 제공했다.

1970년대 중반 대불련 활동을 통해 '민중' 개념이 수용된 과정을 전재성의 구술에서 들어본다. 다음 구술은 민청학련 가담 후 석방돼 대불련 회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서클활동이나 조직 활동은 원래는 체질에 안 맞아요. 싫어했는데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회적인 대학생 일반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정의랄까 이런 10월 유신 이후에 장기 집권 음모라든가 또는 비민주화되는 그런 사회적인 이런데 민감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든 제가 또 거기에서 활동을 하다가 (감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뭐 전부 와가지고 불교 쪽에서는 제가 회장이 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는 선거운동에 자원봉사자가 너무 많았어요. 대불련 (회장) 선거운동을 그 때 광주에서 했는데 그때 서울대 불교학생회니 또 서울 지역에 있는 고대나 다른데 불교학생회 동대 이런데서 다 와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데 그 가담을 저를 위해서 다 선거운동을 했죠.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제가 대불련 회장이 된 거예요."

대불련 회장이 된 전재성은 1975년 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민청학련을 주도했던 여익구가 석방됐다. 전재성은 강창일의 소개로 여익구를 만났다. 이 때부터 전재성은 70년대 중반 불교운동이 싹트는 현장에 있게 된다. 여익구 등과 함께 고려대 부근의 안암동 대원암에서 자주 모였다. 이른바 '민중불교회' 서클이다.



민중불교론. 1976년 8월 발표.

전재성은 대불련 회장 자격으로 고은, 황석영, 고준환 등과 함께 독서클럽에 참여했다. 또 전재성은 상계동 정우 스님(현 구룡사 주지)이 주지로 있던 작은 사찰에서 여익구, 고준환 등과 함께 시국에 관해 토론했다고 구술한다.

특히 4월에는 서울대 농대생 김상진이 할복해 자살하는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했다. 김상진은 수원에 위치한 서울대 집회에서 민주화를 외치며 준비한 칼로 자신의 배를 찔러 자살했다.

대원암 탄허 스님을 중심으로 여익구와 함께 고은, 황석영, 전재성 등 모임이 이어지자 수사 당국은 처음부터 이를 면밀히 관찰했다. 당국은 국가변란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여익구와 전재성 두 사람을 다시 구금했다.

"개운사(대원암)에서 좀 몇 차례 모임을 가졌죠. 가졌는데 그 때도 뭐 구체적으로 활동했다기 보다는 불교가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자각들이 있었고 뭐 그래서 모였는데 긴급조치나 민청 관련된 사람들이 모이니까 당국에서 주시를 한 거예요. 주시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게 모인 걸 그걸 또 이렇게 종교단체가 무슨 뭐 연합을 해가지고 무슨 뭐 국가적인 그런 뭐 그 변란을 꾀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엮은 거죠. 잘못 엮어진 건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또 저하고 아마 여익구씨하고 중부서에서 한 두 달 있었던 거 같아요. 중부서에서."

제석(帝釋)과 함께 떠나는 신화(神話) 여행④

제석의 탄생 2

암바팔리에 비해 제석의 전생은 다소 심심하다. 제석의 전생을 궁금해 한 이는 릿짜비 족의 왕자 마할리였다. 부처님께서 바이살리에 계실 때 설법을 들으러 왔던 그는 부처님이 제석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처님께서 설법 하실 때마다 제석은 하늘에서 일가친척들을 싹 데리고 내려와 들었다거나, 설법을 마친 뒤 경전을 수호하기를 맹세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경전마다 등장한다. 그러니 부처님 생전에도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가 부처님께 여쭈어 본 것은 요즘 식으로 하자면, "부처님, 하느님하고 만나신 적 있지요? 어떤 분인가요? 무슨 복을 지어서 하느님이 되셨나요?" 정도였다. 진심으로 스스로도 복을 받는 방법을 알고 싶어 제석처럼 큰 복을 받은 이의 과거가 궁금했을 뿐, 딱히 부처님을 곤란하게 만들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왕자라는 신분이 다소 유치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의 질문에 약간의 무게감을 실어주었을지도 모른다.

부처님은 그의 마음을 마치 안 것처럼 거리낌 없이 말씀해준다.

"마할리야, 나는 제석천을 잘 안다. 또 그가 어떻게 제석천이 되었는지도 잘 안다."

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 답변인가. 귀를 쫑긋 세우자 부처님께서는 술술 다음 이야기도 생생하게 말씀해주신다.

도리천의 주인이자 신들의 왕인 제석의 전생은 마짤라라는 마을에 살던 젊은 청년 '마가'였다. 마가는 마짤라 마을의 길을 닦아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고, 청소를 하기도 하고, 누구나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다.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남을 위해 기꺼이 기쁘게 이 일을 했다.

하루는 열심히 길을 청소하는 마가를 눈여겨 본 젊은이들이 그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마가가 대답했다.

"나는 지금 천국으로 가는 길을 닦고 있습니다."

마가의 대답에 한 마디로 꽂혀버린 32명의 젊은이들이 그를 따랐다. 또한 마가는 스스로 7개의 계율을 정해 평생 그것을 지켰다. 그 7개의 계율은 이랬다.

첫째, 부모님을 봉양한다.



삽화 · 김영수

둘째, 웃어른을 존경한다.

셋째, 점잖게 말한다.

넷째, 험담하지 않는다.

다섯째, 탐욕을 갖지 않으며, 인심을 후하게 한다.

여섯째, 진실을 말한다.

일곱째, 성내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억제한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의 한 페이지를 읽는 것처럼 구구절절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막상 나 자신의 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이며 자신과의 약속을 흐트러짐 없이 지키기란 생각보다 어렵다. 마가는 이것을 평생 지켰고 32명의 젊은 청년들의 모범이 되어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은 세상이었지만, 마가는 스스로 양심을 걸고 이런 선행과 바른 행동을 실천한 덕분에 죽은 뒤 신들의 왕 제석으로 환생한다.

부처님은 마가 시절의 제석을 만난 적이 없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 이를 알아주는 부처님이 있어 도리천에서 나른하게 행복한 생활을 누리던 제석도 새삼할 일이 생기고, 더 좋은 일을 하여 복을 받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앞으로도 본인이 하기 나름이라는 촌철살인의 한 마디로 그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마가는 선한 일을 하며 깨어있어서 신들의 왕이 되었다. 깨어있으면 언제나 칭송받으며, 그러나 흐트러지면 언제나 비난 받는다."

조민기 작가 · 칼럼니스트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㉟ 화엄사상

의상의 화엄종과 화엄십찰

통일신라시대에 가장 화려했던 불교사상은 화엄사상이다. 의상 대사의 중국 유학을 통해 이 땅에 전해진 화엄사상은 불교의 새롭고 화려한 모습을 보여준다. 태백산의 부석사(浮石寺), 원주의 비마라사(毘摩羅寺), 가야산의 해인사(海印寺), 비슬산 옥천사(玉泉寺), 금정산 범어사(梵魚寺), 남악산 화엄사(華嚴寺)등이 바로 그러한 흔적들이다.

화엄사상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신앙적 내용이다. 화엄사상의 중심사찰인 부석사에는 〈화엄경〉의 주존불인 비로자나불이 아닌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다. 이는 화엄사상이 서민불교를 지향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신라불교의 특징은 '신라유연국토설(有緣國土)' 또는 '신라불국토설(新羅佛國土)'으로 말한다. 이는 신라가 오랫동안 불교와 인연을 맺고 부처님 나라라는 신라인들의 믿음과 더불어 불교가 원효와 의상 대사를 통해서 일반 서민층에 열려있었다는 사실과 많은 연관이 있다.

신라 화엄사상 서민불교 지향
부석사는 무량수불, 동해 낙산 관음 도량 통해 확인 가능

신라의 화엄사상은 중국의 화엄종과는 다른 실천을 기반으로 한 불교신앙이었다. 이는 신라가 화엄십찰을 전국에 세운 것과 더불어 부석사에 정통신앙을 보여주는 무량수불을 모시고, 동해 낙산에는 관음의 도량을 세우는 모습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상 대사가 문무왕의 명으로 676년에 창건한 부석사는 그의 사상과 신앙이 숨 쉬고 있다. 부석사는 의상 대사가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때, 그를 흠모한 여인 선묘가 용으로 변해 이곳까지 따라와 줄곧 의상 대사를 보호하면서 절을 지을 수 있게 도왔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부석(浮石)'이라는 이름은 이곳에 숨어 있던 도적떼에 선묘가 바위로 변해 이들을 물리친 후 무량수전 뒤에 내려앉았다는 데서 유래됐다.

한국의 고건축을 대표하는 무량수전은 신라 문무왕(재위 661~681) 때 건립됐지만, 현재에는 전하지 않는다. 지금의 건물은 고려 우왕 2년(1376)에 다시 건립돼, 광해군 때 새로 단청한 것이다. 이어 1916년에 해체·수리 공사를 했다. 규모는 앞면 5칸, 옆면 3칸으로 지붕은 옆면이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이다. 특히 지붕 처마를 받치기 기둥은 주심포 양식을 취해, 주심포 양식의 대표적인 건물로 평가 받고 있다.


황복사지 삼층석탑.

의상 대사의 흔적은 경주 황복사 터에서도 찾을 수 있다. 황복사는 의상 대사가 출가한 사찰이자, 부석사를 세우기 전에 머문 곳이다. 이곳에는 시대는 뒤지지만 통일신라 초반의 대표적인 황복사지 삼층석탑이 남아 있다. 탑은 의상 대사가 이곳에 머물 때, 지어지지 않았다. 탑은 의상 대사 이후 효소왕 1년(692)에 세워지고, 효소왕의 뒤를 이은 성덕왕이 즉위한 지 5년만인 706년에 사리와 불상 등을 다시 탑 안에 넣어 왕실의 번영과 태평성대를 기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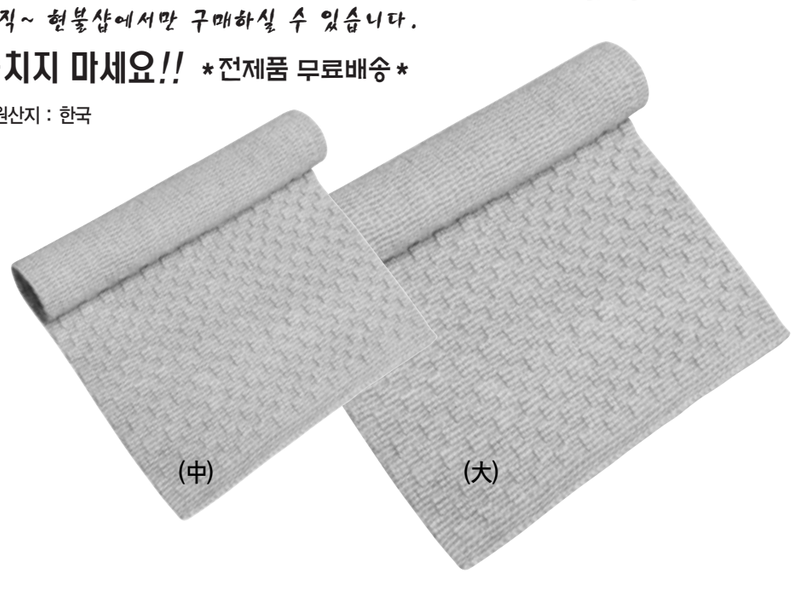
1943년 탑을 해체하면서 발견된 금동 사리함 뚜껑 안쪽에 탑을 건립하게 된 경위와 발견된 유물의 성격이 기록돼 있다. 의상 대사와 관련된 탑은 자취는 볼 수 없지만, 황복사 터를 찾을 때마다 의상 대사가 떠오른다. 백성을 걱정해 신라 서라벌에 외성을 쌓지 못하게 하고, 수도를 떠나 태백산에서 화엄을 전한 그의 자취는 이 땅 불교의 진정한 시금석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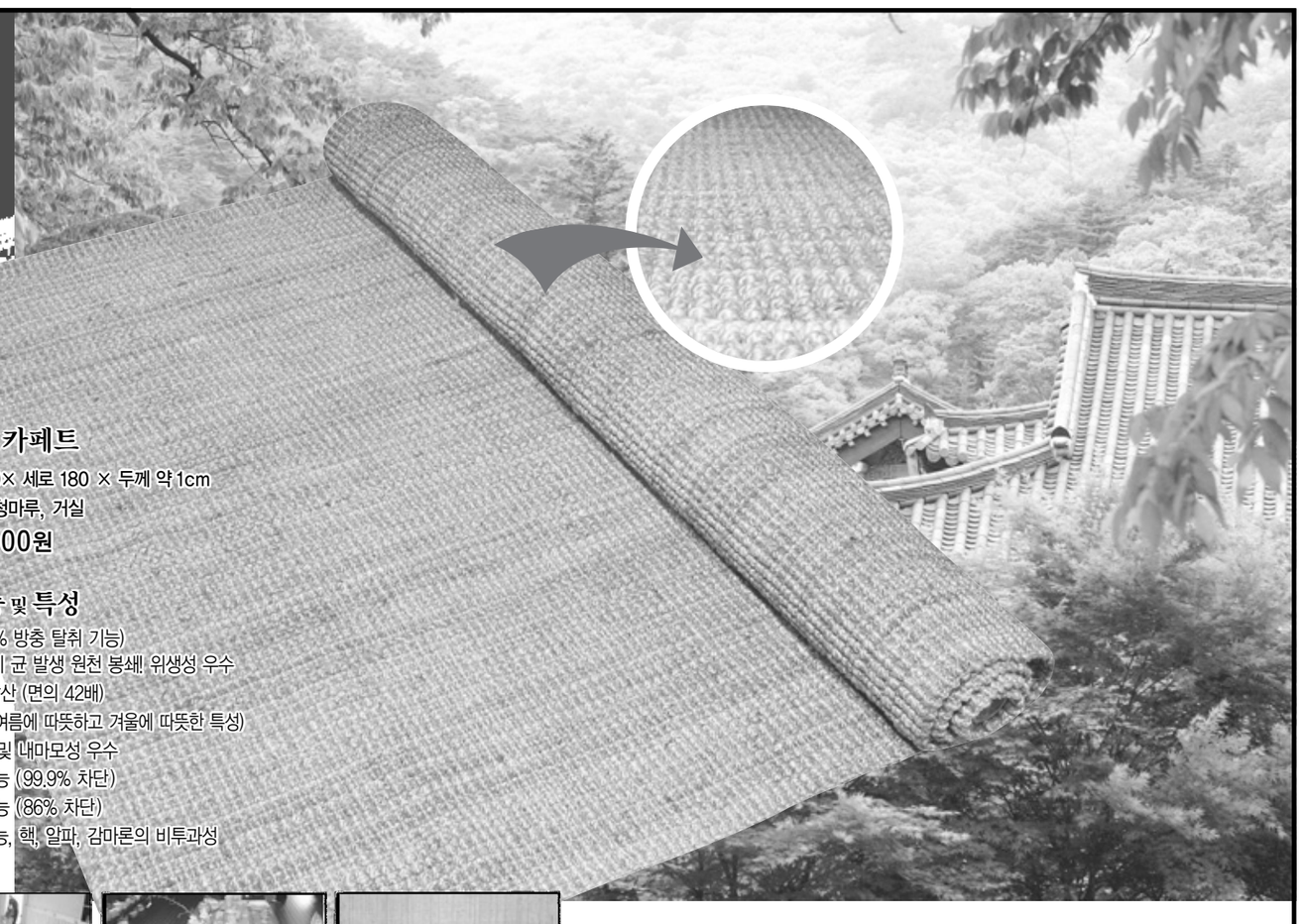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4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네츄럴 삼베 멍석 카페트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 원산지 : 한국


(中) (大)

■ 삼베 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 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 (공통)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 삼베 멍석 카페트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론의 비투과성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 문 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상단 돌출 150,000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600만원

011-742-84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외곽 / 위치 : 마산 / 위치 : 인천
- 법당 : 30평 / 법당 : 17평 / 법당 : 50 평
- 요사 : 100평 / 요사 : 55평 / 요사 : 45평
- 부지 : 2,500평 / 부지 : 100평 / 부지 : 420평
- 가액 : 15억 / 가액 : 3억 8천 / 가액 : 18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전망 좋은 절

- 총대지 :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 바다 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
- 가액: 7억 8천만원

선원 및 토굴 (밀양)

- 총대지 : 약 2,000평(종교용지 포함)
- 법당 및 용왕, 산신, 요사
- 마당 넓은 사찰
- 심산유곡, 야생화 만발
- 가액: 4억 5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도심속에사찰안내

- 위치 : 청주 상당구 우암동,
- 대지 62평 2동, 요사채 1동, 법당 25평 1동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 지장탱화고불,
- 산신 한자반, 금동관세음 108불, 대형 16나전
- 방4, 주방1, 욕실2, 창고2개, 스튜디오방송녹음실포함
- 마당에 작은 연못, 옥상휴게실
- 스튜디오녹음실은 불자가수녹음, 스님들 음반 현재 스님들께서 음반출시, 음반작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 모든 포함 4억 2천만원
- 직접방문설명, 절충가능하며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010-5883-2255

임 법 당 안 내

- 위치 :인천시 동구 송림동 주택가 아파트 밀집지역
- 대지 50평, 건평 30평
- 법당, 접견실1, 방3, 부엌2개
- 총액: 1억 6천 5백만원 (6천5백융자)

010-4908-257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양천구 신월동 곰달래길
- 4층중 2층 사용
- 현재 운영중 (뜸, 대체의학 , 상담)위주로 하실분
- 삼존불,탱화,에어컨구비되어있음
- 시설비 無
-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10-6425-3885

암 자 (급)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에서 원주가는 국도변
- 평수 : 총 600평
- 법당, 지장전(같은조물) 약 20평 요사 15평
- 총계 1억 8천 5백만원 (현시세는 2억5천이상)

010-2763-3816

전원주택 및 토굴 안내

- 인제원통 터미널에서15분거리. 산중턱
- 전원주택겸 토굴로 사용가능
- 마당까지 차진입가능
- 이중 흑벽돌, 심야보일러
- 총 1,400평, 대지 300평
- 건평 25평, 밭 잘가꾸어져 있음
- 앞에는 큰강 산세 수려
- 가액: 3억 3천만원(가격절충)

010-3337-9736

사 찰 안 내

- 밀양군 무안면 운정리 노리실 부근
- 대지 450평, 법당 50평, 요사채 20평
- 가액 : 9,500만원

055)356-5322
051)254-3016
016-832-5114

사 찰 안 내

- 충남공주시유구읍연종리21-6번지 세종시에서 40분거리
- 임야 840평, 대지 종교용지 683평, 전 150평 - 계 1673평
- 대웅전,목조 , 외5포, 내7포, 설선당, 삼성각,석굴암,기타참고 해우소등
- 2006년 신축 경관 화려
- 가액: 6억 5천

041)551-8672
011-9413-804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왜관 낙동강변 동향
- 부지 954평(도로포함), 공유 500평
- 법당: 목조단청 10평, 임법당 35평
- 요사 24평(2층), 부속건물 40여평
- 교통 : 왜관 10분, 구미, 대구 30분
- 전망 낙동강정비 후 경관 최고 예상
- 가액: 3억 8천 5백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10-4600-0408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화북면
- 임야 14000평, 법당(조립식)15평
- 와벽돌요사채 65평, • 세면장,화장실 10평
- 부속건물 110평허가남
- 2000여평대지로 전환된 상태 , 청송 군위 경계선에 보현산을 마주하고 산세수려함
- 가액: 2억5천만원

033)563-8007/011-9560-6437
010-3918-033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연못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 가액: 1억 3천만원

011-9004-1492

암자(급)안내

- 위치 : 충남 소재 매우 오래된 사찰
- 평수 : 종교용지 1800평
- 절묘한 도량으로 산기운이 강한 기도터이므로 신심이 돈독하신 분으로 마음공부나 기도정진하실분 외에는 전화사절 합니다
- 지병관계로 급히 인연을 찾고 있습니다
- 가액: 8억 6천만원

010-2034-77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 남산사찰
- 대지 450평
- 목조건물 3동
- 마당앞 보물 신라쌍석탑2기
- 가액:8억(절충가능)

010-5561-004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3 방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기도처로 최고명당
- 가액 : 2억

010-3138-489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암동 새마을 5거리
- 3층건물 2층, 법당 42평
- 삼존불, 산신, 각탱화, 소불 270불(지장, 관음)
- 위치 최상, 깨끗한 동네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3500만원
- 즉시법회 가능, 집기류일체

010-2224-8967

사찰, 양도(임대) 안내

- 양평군병산리 878-50,산 168-2
- 대지 19,217㎡(5,830평)
- 건물 4개동(법당, 요사채 외 2동)
- 수미단(부처님 3불) 소불, 약사불 등
- 장기임대에서 매매전환가능함

02)403-3333
010-4225-0012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시에서 10분거리
- 평수 : 535평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 주차장 30대 주차가능
- 가액: 6억 5천만원

010-9889-3188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기 군포시 당동
- 가액: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최저양도
- 면적 65평 방8개 법당공양간 및 시설완비
- 주지소임관계로 급 양도

031)427-474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명석면
- 진주시내에서 10km거리
- 건물 : 법당(목조토기와) 20평
- 시멘트벽돌 슬라브 40평
- 38평(2동) 외 2동(30평)
- 토지: 종교용지(850평)
- 임야: 4,000여평 (수련원, 복지시설 태양열 발전 납골당 등 적지)
- 가액 : 8억(조절가능)

010-3822-4565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오창에서 천안시 중간
- 부지 2000여평
- 법당: 목조 30평, 관음전 목조 25평
- 요사채 2층 건물 1동
- 1층건물 3동 (방 많음)
-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1억
- 꼭 사실분만 전화주세요

011-412-2464

66년 된 토굴(무허가)

- 위치 : 부산
- 법당1동,공양간1동,
- 요사채 1동 , 산신각
- 나한적 각 1동

※법당에 약물 나오는 용궁 있음

010-7309-7307

사찰(급)안내

- 경북 김천시(시내에서 7분거리)
- 대지171평,건물단청,수미단,영단
- 법당,종무소 : 20평씩 2층건물 1동
- 요사채,공양간 : 30평씩 2층건물 1동
- 마을 산아래 조용하고 깨끗한 도량
- 주차공간 넓고, 텃밭도 있음
- 가액 : 1억7천5백만원(융자1억포함)

※새로 불사점안을 하실분에 한함
010-7144-006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시내
-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곳
- 법당 30평, 요사채 40평
- 창고 10평, 주차장 넓고 텃밭도 있음
- 가액: 3억 5천만원

010-4601-788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3동
- 60평, 단층건물
-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90만원

시설비 4300만원

02)916-29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 최고위치, 최고시설
- 법당, 방2개, 거실, 주방
- 평수 30여평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1800만원

(꼭 필요하신 분 전화바랍니다)

055)277-014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시내
-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곳
- 법당 30평, 요사채 40평
- 창고 10평, 주차장 넓고 텃밭도 있음
- 가액: 3억 5천만원

010-4601-7881

농가주택(급)안내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서
차로 5분거리 계곡과
도로접한 작은한옥 11평,
대지 30평을
가액 1900만원에 영영매도함

010-3538-2211
주 인 직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 근처
- 기도도량으로 최고 적지
- 산세 수려하고 물도 흐름
- 총평수: 대지 600평, 임야 약 1천평
- 대웅전 30평, 산신각, 요사채 2동 50평씩
- 조경완비, 주차장 넓고 텃밭 준비
- 가액: 4억 8천만원,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010-8837-4843

선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광안3동 75-27(2층)
- 평수: 38평(백령선원) (아미타불 및 3존불)
- 대통 왕 쑥찜질방 영업중
- 살림가능
- 전세 1,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없음

011-859-5550

새롭게 꾸며진 법당으로 포교에 원력을 갖고 개원하실 비구니스님 환영합니다.

- 위치 : 대구시 비산동 서문시장2지구
- 2층건물 2층위치(약40평)
- 법당,방2,주방1,다용도실2,욕실
- CCTV 등 보안시설 갖춤
- 보증금200만원,월2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010-3693-5543

영 천 토 굴 터

- 위치 : 영천시 고경면 시내에서 10분 이내 2차선에서 100M 이내
- 남향이며 마을 끝, 산자락에 붙어 있어 조용하고 양명한곳
- 기와집 1동, 황토집 1동, 대지 500평
- 가액: 8천만원

011-505-6505

사 찰 (급) 안 내

- 위치: 강원도 강릉시
- 부지: 2,500평
- 별도부지 230평(심야보일러) 사용가능
- 신축임법당 30평 외 3동
- 천연 약수 있음
- 가액: 2억 7천(급양도)
-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1-373-0697
011-9901-3530

토 굴 안 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용전마을
- 건물 두채, 임법당, 입식부엌, 방3칸
- 텃밭 50평, 묵은논 1017평
- 가액: 4년 임대료 8백만원

011-9393-4965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 임야 전답 총 15000평
- 법당 25평
- 요사채 10평
- 가액 1억 9천만원

010-9967-9832

포교원(불교대학)

- 위치 : 경북 문경시 시내 중심
- 3층건물 3층 (옥상 단독 사용)
- 평수 50평, 방3, 주방1, 거실 등
- 시설: 아미타불, 108약사소불 108탑인등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1300만원

※시청, 시외터미널, 홈플러스등 교통요지로써 접화가능 스님이나 종단사무실 요망

010-5258-1147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위치 : 경기
- 부지 : 80평 / 부지 : 1700평
- 법당 : 40평 / 법당 : 60평
- 요사 : 90평 / 요사 : 60평
- 가액 : 8억 5천 / 가액 : 30억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매물접수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 1층 요사채 30평
- 2층 요사채 24평
- 3층 법당 24평
- 주차가능, 즉시법회가능
- 대지 82평

010-2637-6144

납골공원 및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시내에서 10분거리
- 면적 2만평, 법당까지 도로포장
- 극락전 50평, 법당 45평, 요사채 50평 2동, 용궁100평
- 종각30평-산신각 10평(목조단청), 연못, 폭포수
- 상황버섯 재배, 표고버섯 재배, 장뇌산삼 10년근 약 100만주
- 사회복지 법인, 입불지장전 도량 약 300평, 농장 2천평 . 백년송 소나무 경치좋음
- 가액: 70억, 꼭 하실분만 연락

011-1703-2770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진구 서면 지하철 출구 앞
- 4층에 3층, 법당 4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부처님 삼불 청동, 시설완비
- 즉시법회가능

010-8126-1525

포교원 및 명상원(급)안내

- 위치 :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6층건물 3층
- 평수: 80평
- 보증금: 4,000만원 / 월70만원
- 약만이천세대 아파트밀집지역에 있는 메인 대상가.
- 포교활동 최상급 지역(주변 불자 많음)
- 인연되시는분 상담후 형편에 맞게 절충 가능

010-2425-042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 50평(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 남녀 화장실 별도
-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
- 시설비 별도 (최고시설)

010-4668-7380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분당인접
- 대지 면적 약 2500평
- 건물평수 50평짜리 2동
- 등산로 인접, 전망, 터 최고
- 국유지 약 2만평 인접
- 산책로로 사용가능
- 가액: 건물포함 평당 95만원 (융자 10억)
- 중환자 숲속, 요양의집으로도 적격

011-726-4711

사찰납골당부지안내 (노인요양원 최적지)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 총면적 1만 5천평
- 대지 2천평, 토목공사 됐음
- (대지 허가 남)
- 관리지역, 산세 수려하고 배산임수 명당터임,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노인요양원으로 최적지임
- 가액: 차후 전화상담 후 결정

010-8545-654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진구 범천1동
- 지하철 범일 12번 출구
- 4층 건물에 2층, 30평
- 삼존불, 후불, 집기일체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조금
- 모든 시설 완벽, 즉시법회가능

051)633-759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인천 계양구 계산동
- 평수 : 40평. 4층건물 3층
- 법당, 방3, 주방, 삼존불 및 각종탱화 외 소불 52불
- 보증금 1000만원, 월6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6310-3335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대지 90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1억 6천 5백만원

011-297-9149

암 자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시내
- 대지 190평
- 산신각, 용왕당 대웅전(23평), 종각 요사채
- 가액: 1억 7천 5백 (시설비 포함)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6787-6624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분당인접
- 대지 면적 약 2500평
- 건물평수 50평짜리 2동
- 등산로 인접, 전망, 터 최고
- 국유지 약 2만평 인접
- 산책로로 사용가능
- 가액: 건물포함 평당 95만원 (융자 10억)
- 중환자 숲속, 요양의집으로도 적격

011-726-4711

대형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역세권
- 대형포교원(10년 운영)
- 4층중 2개층 사용, 140평
- 옥상 80평 (지소대, 텃밭, 창고)
- 차고 有, 주차 100대 可
- 現불교대학, 서실, 다실운영중
- 큰방 5(초 특급)생활불교가능
- 보증금 3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6천만원(가격절충)

010-6797-3223

둘 다 잡아먹히면 안되니까, 좀 떨어져 있자

수리아의 검-Ⅲ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사막의 세 머리 용 (9)



삽화 · 김홍인

"어쩐지 마음에 드는 녀석인데? 그렇지?"

줄에서 몸을 빼낸 무니가 수고했다는 듯 말의 목덜미를 툭툭 두드려주며 말했다. 먼저 내린 난다는 바닥의 열기에 잔뜩 인상을 찡그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앗! 뜨거."

뒤이어 내려온 무니 역시 팔짝 뛰었다. 발끝을 세워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너무 뜨거웠다.

"그런데 어디서 그 용을 찾지?"

무니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난다는 사르나트의 바퀴를 꺼내 들었다.

"아. 그거! 사르나트의 바퀴? 그 이름 맞아?"

무니의 눈이 반짝거렸다. 난다가 말했다.

"응. 그런데 사전에도 간단한 설명뿐이었어. 이 수레바퀴는 지혜로운 자만이 제대로 읽을 수 있다는 거야. 말이나 글로는 이걸 설명할 수 없다고 써있더라고. 그리고 완전한 지혜를 체득하면 이 세 바퀴 전부를 움직일 수도 있대."

"도대체 무슨 소리야? 없는 거 빼고 다 있는 책이라더니. 뭐 대단한 내용도 없잖아."

" '없는 거 빼고' 라고 했잖아. 아무튼 아까부터 나무 바퀴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 이 근처에 뭔가 있기는 있어. 일단 걸어가 보자."

그들은 최대한 발을 땅에 덜 대려 노력하며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흩날리는 재와 열기에 맞서며 한참을 걸어가자 일정한 속도로 돌던 바퀴가 점점 더 빨라지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증기 같은 게 새어나오는 소리가 났다.

"갑자기 공기가 축축해지지 않았어? 점점 더 더워져."

무니가 땀을 닦으며 말했다. 정말 그랬다. 이마에 살짝 배어나올 정도였던 땀이 옷 안으로 줄줄 흐르기 시작했다. 눈꺼풀로 땀방울이 떨어질 정도였다. 그들은 증기가 나오는 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그리고, 용을 발견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생전 처음 보는 용의 생김새와 그 거대함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다. 한 눈에 도저히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다. 소년들이 이제까지 접한 '새로움'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이었다. 둘 다 넋이 나간 표정으로 한참동안 용을 바라보기만 했다. 다행히 용은 잠든 것처럼 보였다. 그 거대한 생명체는 숨 쉴 때마다 가까이 다가가기 힘들 정도의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사전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는데."

난다가 말했다.

"몸통이 커다란 뱀 같다. 기억나지? 우리 어릴 때 유리 영감이 딱 한 번 보여줬잖아."

무니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다. 전체적으로 청색을 띤 용의 몸통은 정말 그들이 언젠가 보았던 뱀 껍질처럼 청색과 녹색의 번들거리는 비늘로 덮여있었고 등 쪽으로 갈수록 그 색깔이 더 짙어졌다. 얼핏 보이는 붉은 색의 배 밑으로는 검고 날카로운 발톱도 감춰져 있었다. 난다는 호기심에 반짝이는 눈빛으로 점점 더 용 곁으로 다가갔다.

"봤어? 날개도 있어. 덩치에 비해서는 좀 작은 거 같은데, 저걸로 날 수는 있으려나."

"야. 근데 지금 날개가 좀 움찔한 거 같지 않았어?"

난다 뒤를 따라 걸어가던 무니가 멈칫하며 말했다.

"응, 방금. 땅이 살짝 울린 거 같아."

난다 역시 긴장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들의 느낌은 맞았다. 잠시 후,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땅이 요동치더니 용이 서서히 몸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다. 서로를 꼭 붙잡고 있던 무니와 난다의 눈이 점점 더 커다래졌다. 완전히 일어선 용의 크기가 놀라워서가 아니었다. 잠에서 깬 용이 마치 기지개를 켜듯 몸을 뒤틀자 각기 다른 방향에서 세 개의 머리가 동시에 꿈틀거렸기 때문이었다.

"머리가…… 세 개야!"

무니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건 고개를 한껏 뒤로 젖히고 있던 난다도 마찬가지였다. 먼저 정신을 차린 무니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꼭 쥐며 물었다.

"이렇게 되면 저 중에 누구 입으로 이 약초를 가지고 들어가야 해?"

두 사람이 생각했던 용은 머리가 세 개가 아니었던 까닭에 당황스러웠다. 그들의 계획은 용을 잠재운 다음, 불을 뿜는 기관을 찾아내 잘라 버리는 것이었다.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 난다는 언제나 그런 계획을 좋아했다. 이번엔 애초의 계획이 확실함과 거리가 멀었다는게 문제였다. '이제 어쩌지?' 난다는 밤에 책에서 찾아봤던 항목 중 용에 관한 것들을 기억해내려고 애썼지만 불을 뿜는 기관 말고는 아무 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난다는 정신을 차리자는 듯 머리를 흔들고는 다급하게 사르나트의 바퀴를 다시 꺼냈다. 나무 바퀴는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난다는 그 의미를 읽을 수가 없었다. 책에서 찾아봤을 때 나무 바퀴의 의미는 '예지' 와 '판단' 이었다. 할아버지는 나무바퀴가 가리키는 것은 주로 위기, 나아가서는 죽음에 관한 것일 경우가 많다고 했었다. 그것이 아마 예지의 기능일 것이다. 하지만 판단이라니, 무엇을?

"모르겠어. 읽을 수가 없어. 어차피 몸은 하나니까, 누구 입에 들어가든 상관없지 않을까."

난다가 고개를 들어 무니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얼어붙은 듯 한곳을 향하고 있었다. 용의 머리 중의 하나와 시선이 마주치고 만 것이다. 그가 내 뿜는 뜨거운 숨결에 옷과 머리카락이 펄럭거렸다.

"둘 다 잡아먹히면 안 되니까, 좀 떨어져 있자."

용과 마주친 시선을 피하지 못한 채 무니가 말했다. 그 말에 난다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숨을 곳이 있을 리 없었다. 용이 모조리 태워버린 곳은 이미 다 사막이 되어 있었다. 멀찍이 말이 보이긴 했지만, 그 쪽으로 뛰어가다가 용의 발에 밟히기라도 하면 큰 일이었다. 그 때 무니와 시선이 마주쳤던 용이 그들을 보며 희한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무니가 난다를 툭툭 치며 말했다.

"우리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 거 같은데?"

정말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은 웅얼거림이었다.

"덩치도 큰 주제에 무슨 목소리가 저렇게 작아. 난다, 넌 들려?"

"쉿! 조용해봐."

난다는 용이 내는 소리에 최대한 정신을 집중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입을 열었다.

"아! 이거 고대 잠부어야!"

무니가 난다를 쳐다봤다.

"기다려봐. 좀 더 이야길 들어볼게."

난다가 다시 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다른 쪽에 있던 머리가 그들을 향하자 용의 말이 끊기고 말았다. 그 틈을 타 무니가 물었다.

"뭐라고 해?"

"흠. 다는 못 알아들었는데, 뭔가를 없애달라는 말도 하고, 질문에 답을 하라는 말도 했 어."

"말이 많은 거 같던데, 고작 그것뿐이야?"

"고대어라서 말이야. 게다가 목소리도 작고."

난다가 다시 용의 모습을 살피며 대답했다. 아까 말을 했던 용과 뒤늦게 고개를 돌렸던 용이 뭐라고 대화를 나누는 거 같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세 개의 머리 중, 두 개는 얼굴이 같았는데 나머지 하나는 전혀 다르게 생긴 거 같았다. 게다가 그 다르게 생긴 용만 여전히 자고 있는 듯 눈을 감고 있었다. 순간 난다의 머릿속에 언젠가 용에 대해 읽었던 내용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아! 머리가 두 개인 용이 고대에 살았다는 건 읽은 적 있다. 이름이, 이름이……, 비리토 라? 비리토라! 그래. 그거였어. 하나는 차가운 진실을 또 다른 하나는 뜨거운 거짓을 상징 한다고. 하지만 그 용은 아주 오래 전에 신에 의해 죽었다고 했는데… 게다가 저건 머리가 세 개잖아."

난다는 머리를 부여잡았다. 그때 그들을 향해 또 다시 뜨거운 바람이 훅 하고 불어왔다. 용이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엔 다른 용도 끼어들었다. 난다는 정신을 모으고, 목소리를 가다듬은 다음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비리토라. 우리 이름을 알고 있구나."

"네. 책에서 읽었어요. 그런데 그럼 왜 머리가, 아니 머리님이 세 개인가요?"

"우리도 전혀 모르는 일이야. 네가 읽은 그 책에 나왔는지 모르겠다만, 우린 현세에 있으면 안 돼. 아주 오래 전에 우린 죽었거든."

"맞아. 루드라가 탄생하기도 전에 우린 죽었어."

나중에 끼어든 용이 말했다. 그 둘은 자신들을 '우리' 라고 지칭했다.

"그럼 지금, 왜, 어떻게?"

아직 고대어 구사능력이 유창하지 못한 난다가 짧은 단어로 묻자, 용들 역시 간단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건 우리도 몰라. 우린 다시 태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었어."

"맞아. 그러나 우린 다시 태어났지."

"우리 사이에 머리도 하나 더 생겼어."

"맞아. 우린 이 녀석을 싫어해."

이 말을 할 때 용들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다. 그러더니 용들은 난다에게 이제까지 있어왔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사찰(급)안내

■ 경북 포항시 (서포항IC 10분거리)2차선 갓길 호조건
■ 사찰 전시관(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징: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앉고 계신 목불(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 위주 전시) 전시관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 불가능하며 참배하신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바 있음
■**총 2500평중 성취관 내 일체 고 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중공양실, 종각, 2~3십만원 땅 2500평 무료제공함**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명**
■**가액 : 30억원 (총 55억중 30억원 매매)**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 010-4504-0174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⑬**

매화(梅花), 그 그윽한 향기

경상도 문경지역 깊은 산골을 지나다가 산골 장터에 묘목상이 팔러 나온 3년생 설중매 홍매를 보고 강릉의 아는 스님 절에 심어놓은 적이 있다.

강릉의 기후와 날씨는 매화, 특히 설중매(雪中梅)를 키우기에 아주 좋은 날씨이기에 그 절 마당 한 켠에 땅을 파고 심어놓았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꽃과 아름다운 화초들을 보았어도 매화처럼 사람의 마음을 잡아이끄는 꽃나무는 전혀 본적이 없다.

키가 겨우 3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매화가 가지에 수많은 홍매꽃을 달고 사람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전생에 사랑하던 사람을 만난 듯 했다. 그런 경험은 난생처음이었다.

지난 겨울에는 강릉에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지 그 절에 있다가 눈이 요사채 벽을 넘어 출입문을 막는 바람에 눈 속에 갇혀서 며칠간을 실내에서 지냈다. 먹고사는 걱정은 별로 없었지만 마당에 심어 놓은지 1년이 채 안된 작은 홍매 때문에 걱정이 돼 안절부절한 기억이 있다.

눈이 그친 틈을 타 눈을 치우고 나와 보니 조그만 홍매는 마당전체에 쌓인 2m가 넘는 눈 속에 갇혀서 눈삽으로 꺼내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그냥 놔두었다. 눈이 녹고 몇 달이 지난 후에 가보니 홍매는 여전히 건강히 살아있어서 마음이 무척 기뻤던 기억이 난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보면, 매화에 관한 기록(1145년)이 나온다. 매화는 유교와 대승불교가 왕성하게 퍼진 한국, 일본, 중국에서 사는 대표적인 관상목이다.

연꽃이 불교를 대표하는 꽃이라면, 매화를 유교를 대표하는 꽃으로 보면 어떨지 모르겠다. 청렴한 선비는 그윽한 매화향을 품고 살던 고귀한 기품이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예서로서 500년 전에 쓰인 〈양화소록(養花素綠)〉이란 책에서 "매화는 천하에 으뜸가는 꽃이다. 원예를 배우는 선비들이 반드시 매화를 먼저 심으매 아무리 많이 있어도 싫어하지 않았다. 매화는 운치가 있고 품격이 있으므로 고상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한 것을 보면 매화는 선비의 꽃임이 틀림없다.

강희안(姜希顔)은 〈양화소록(養花小錄)〉의 화목9등품론에서 매화를 1품으로 분류했다.

매화는 만물이 추위에 떨고 있을 때, 꽃을 피워 봄을 가장 먼저 알려줌으로써, 불의(不義)에 굴하지 않는 선비정신의 표상으로 삼았고, 회춘(回春)을 상징했다. 또한 사랑을 상징하는 꽃 중 으뜸으로 시나 그림의 소재로 많이 등장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매화는 고려말기의 문신인 통정(通亭) 강회백(1357~1402)이 심었다는 기록이 있는 정당매(政堂梅)인데 수령이 약 630년 정도 된 백매이다. 경남 산청의 단속사지(斷俗寺地)에 지금도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전기(田琦)의 '매화초옥도(梅花草屋圖)' (19세기, 종이에 수묵담채, 29×33㎝)

매화는 유교, 대승불교 유행한
한 · 중 · 일 대표적 관상목
추위에 가장먼저 꽃 피워 불의에
굴하지 않는 선비정신과 회춘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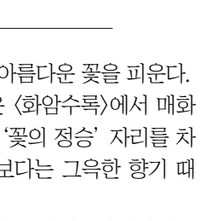
조선시대 원예가 유박은 〈화암수록〉에서 매화가 만화지상(萬花之上)인 '꽃의 정승' 자리를 차지한 까닭은 화사한 꽃잎보다는 그윽한 향기 때문이라고 했다.

매화향은 겨울을 견뎌낸 꽃답게 '가난하다고 해서 향기를 팔지도 않는다[梅花一生寒不賣香]'며, 은일(隱逸)하는 선비다.

포저 조익(浦渚 趙翼; 1579~1655)은 〈포저집〉의 '애매설(愛梅說)'에서 "수많은 꽃들이 제 아무리 화려한 모습을 보여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법인데, 매화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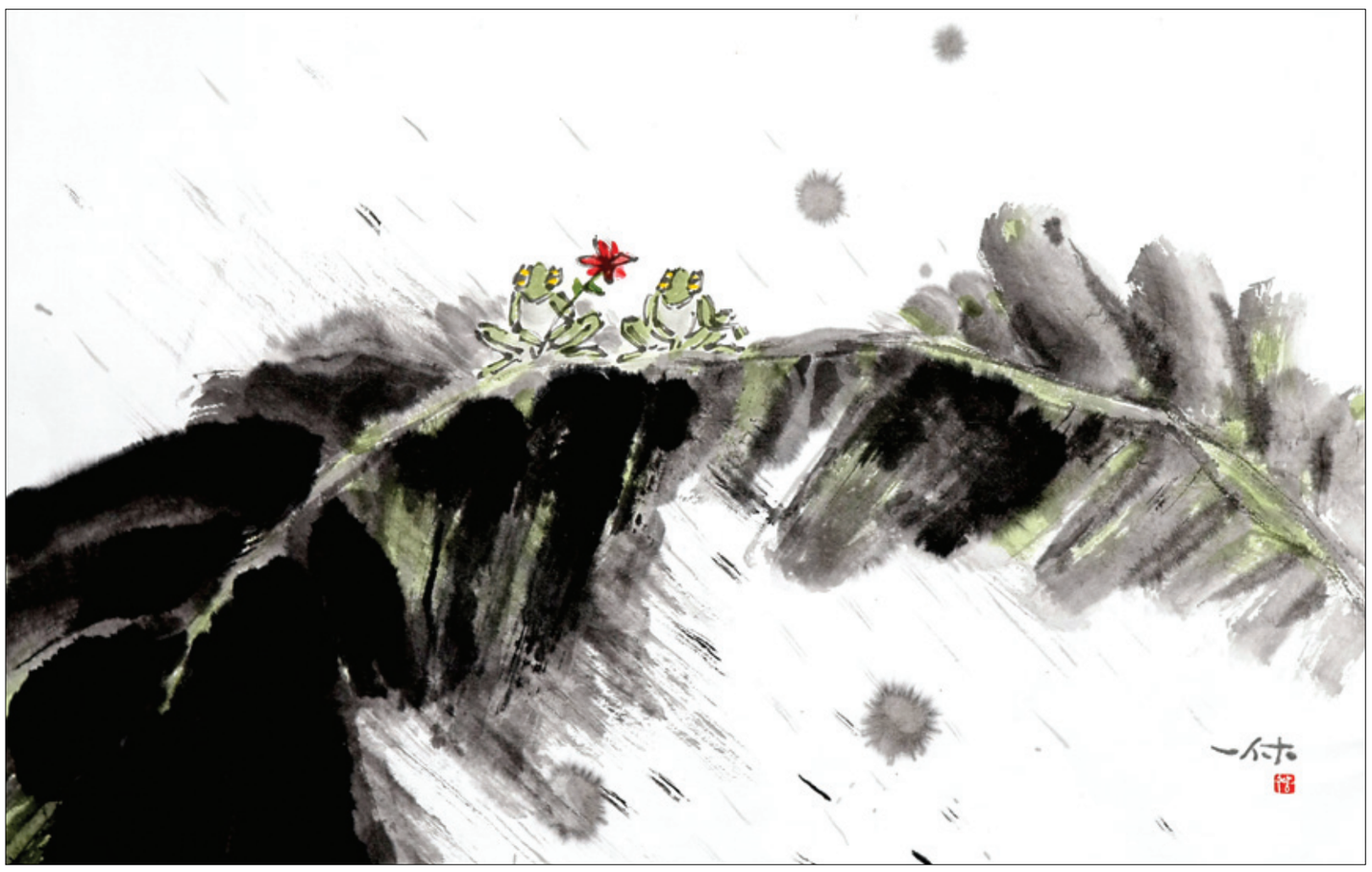
'시경'에서 '그것으로 인해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기이하기 때문이다[誠不以富 亦祗以異]' 라고 한 것을 보면, 이를 통해 곧고 깨끗하여 맑은 향기를 발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파했다.

매화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퇴계는 매화가 피는 섣달 초순에 운명했다. 그는 운명에 앞서 기르던 "분매(盆梅)에 물을 주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퇴계의 마음을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서, 언제나 우리 한국 불교계는 매화향기 그윽한 아침을 맞이할까 기다려진다.



동화사 포교국장

김양수의 **선화(禪畵) 읽기**



오늘 하루

비가 오면 비를 즐기고
햇살 좋은날은 햇살과 흰 구름을 즐겨보자
하루를 맞이하는 것은 경이로운 일
모두 덕분에 덕분에 감사를….



한국화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

한국의 **선시감상⑰** **조선 중관해안 선사의 '용문에 한가로이 머물며[龍門閑居]'**

선과 화엄의 미학

山前風動心搖樹 (산전풍동심요수)
天末雲飛性起塵 (천말운비성기진)
坐覺虛空生大覺 (좌각허공생대각)
丈夫於世孰爲親 (장부어세숙위친)

산 앞 바람이 불어오니 마음이 나무를 흔들고
하늘 끝 구름이 날자 본성은 먼지를 일으키네.
잠깐 텅 빔을 알아차리면 큰 깨달음을 낳노니
장부는 세상에서 무엇과 친해야 하리

중관해안(中觀海眼;1567~?) 스님의 이 시는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고 구름에 먼지가 일어난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무너뜨리고 모든 것은 내 마음의 부림이라는 '일체유심조'를 시적으로 표현해 내고 있다. 이 이야기는 선문에 그 유래가 전해진다.

당나라 때 유명한 강사인 인종(印宗)스님이 하루는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었다. 마침 바람이 불어 깃발이 나부꼈다. 학인들 사이에 바람에 깃발이 흔들리는지, 깃발에 바람이 흔들리는지 논쟁이 일어났다. 인종 스님은 여기에 답을 내어놓지 못했다. 그때 혜능(慧能)스님이 '바로 그대들의 마음이 흔들린다'고 일갈했다.

앞의 두 구에서는 〈화엄경〉에 "마음은 그림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능히 모든 세간을 만들어 낸다"는 화엄사상을 대구를 써서 간명하게 드러내 보였다. 제 3구는 잠깐이라도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 단지 대상에 반연해 일으키는 것임을 알아차린다면 그 자리가 바로 큰 깨달음임을 보였다. 이러한 큰 깨달음을 이룬 대장부가 과연 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용문에서 한가하게 머무는 삶 그것 이상이 아닌 것이다.

조선시대는 특히 선적 깨달음이 곧 화엄의 세계라고 하는 선과 화엄의 원융사상이 큰 주류를 이루게 됐다. 이시는 그야말로 선시로 빚어낸 '선과 화엄의 미학'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곧 잘 '남 때문에' 혹은 '환경이 여의찮아서' 등으로 자신을 옹호한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누구누구는 어떻다는 것이 과연 그 사람 자체인지, 내가 만든 그림인지 알아차려 보자. 마음의 꼭두각시노릇에서 벗어날 것이다.



원법 스님(운문사 · 문학박사)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건선·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을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체질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접 방문하시면 1회에 한하여 무료치유 체험(씻는 방법 시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까페 '아토피체험방'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
여 래 원 원장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

(주)현대에너텍 2011년 최신형
농협융자지정업체
농협융자 1년거치 7년분할상환
(농수산물건조기, 저온냉장 · 냉동)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본사공장직영점. 0502-228-1510 HP.011-673-2623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지리산 돼지감자로 만든 판매!
"지리산 야생국우차"
자연이 만든 인슐린 돼지감자란?

당뇨병, 류마티스, 골절, 타박상, 해열, 지열, 비만증, 다이어트, 변비에 효과가 있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우는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눌린'은 칼로리가 없으며,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 장으로 내려가므로 혈당이나 혈중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 단 음식을 먹을 때 신경쓰시고 조절하셔야 하는 분
• 식이섬유 섭취 및 몸매관리를 원하실 때
•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몸이 뜨끈뜨끈 해지시는 분
• 부모님 선물로 최고, 어린이 비만치료에 좋습니다.

돼지감자차 판매 문의 남원 선원사
☎ 0502-337-0108/ 0502-338-0108 www.seonwonsa.kr
농협 301-0041-7701-11(지리산 청소년 예술제)



대행 스님

천당도 지옥도 바로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림 · 최주현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 만약에 내 몸이 이 선원에 와서 마음공부 하기 이전부터 병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몸이 없어지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즉 집은 망가져서 헐어 버려야 될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새로 짓는 집을 잘 지어야 하니까요. 그 안의 주인이 삼라만상 대천세계를 다 쥐고 자유스럽게 건질 수 있고, 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새 집을 지어야 하니까, 지금 집이, 오두막집이 아주 헐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를 겁내지 말고 대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훌떡 벗어 버리면 됩니다.

마음대로 입을 수도 없고, 벗어 버릴 수도 없고,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이렇다면 이 공부 하나마나죠. 사실은 마음대로 못 사는 것도 마음대로 사는 거고, 하하하…, 마음대로 사는 것도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을 포착만 한다면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감사함과 더불어 크나큰…, '하이고!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하고서…, 허, 그건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육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마음이 말입니다, 육을 살리기 위해서 육 속에 있는 중생들을 먹여야 됩니다, 이제. 하하하…. 그래서 안으로는 먹이고 거죽으로는 살리고자 해서, 지금 먹여 살리려면 어떠한 짓이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용기를 바로 내면에다 두세요. 지금 세상에 육신이 못 먹어서 죽을까 봐 애쓸 필요는 별로 없다고 봐요. 전 그걸 고문 받듯이 많이 배웠어요. 하하하….

옛날에, 하다못해 콩 한 알갱이 이렇게 따서…, 다 거둬 가고 줄기에 콩이 하나든지 둘이든지 붙어 있어요, 다 베어 가고 나머지가요. 고춧잎과 고추를 다 따 간 뒤에도 조그만 고추들이 붙어 있죠. 이슬 맞기 전에도 그렇고 이슬 맞고도 그렇고. 그거를 무심코 따서 입에 넣었다가 이 공부에 대해서, 지금 내가 말했던 이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았죠. '너, 누구를 먹여 살리려고 그러느냐? 너를 먹여 살리려고 그러느냐, 네 육 속에 있는 생명들을 살리려고 그러느냐? 어떤 것을 살리려고 그러느냐? 남의 것을 따서 내 육을 살리려고 그러느냐?' 이런 고문 말이에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먹느냐? 그렇지 않으면 욕심에서 그러느냐?' 그런 문제 등등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야, 참! 죽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내가 있다고도 볼 수 없고 없다고도 볼 수 없고, 이건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러그러합디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께서도 '가리지 않고 벌어서, 어떠한 나쁜 일이라도 가리지 않고 해서 잘 먹고 잘 먹이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은 갖지 마세요. '너만이 스스로 우리 가정을 다 살릴 수 있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부지런히 옳게 뛰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이 마음속에서 다 응해 주는 겁니다.

마음이 요상한 게 뭐냐 하면 마음이 천차만별로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인 줄 아시죠? 하하하…. 마음은 하나인데 말입니다, 에너지 통은 하나인데 말입니다,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용(用)은 너무 많습니다. 이렇다고 끌어다 쓰고 저렇다고 끌어다 쓰고, 이거를 돌린다고 끌어다 쓰고 이거를 한다고 끌어다 쓰고, 밥을 지어 먹는다고 끌어다 쓰고 이러죠? 천차만별의 끌어다 쓰는 그 용은 지금 우리의 에너지 속에서 그대로 다 나오는 거니까요. 그 양도 용도에 따라 정도에 맞춰서 나오고, 요런 그릇에다 밥을 지으면 그 그릇에 맞게 에너지가 다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마음대로 마음낼 수가 있는 건데 왜 마음대로 마음을 낼 수가 없느냐는 얘깁니다. 참 요상하고 이상하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는 이 관습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거죠. 수억겁을 진화해 오면서 그 모든 사람이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살아나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정신을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이러면서 또 삽니다. 그러한 습관이 잔뜩 담겨 있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나는 이렇게 되면 죽는다, 내가 돈을 못 벌면 우리 가정이 망한다, 이런 압박감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하질 않나 이렇게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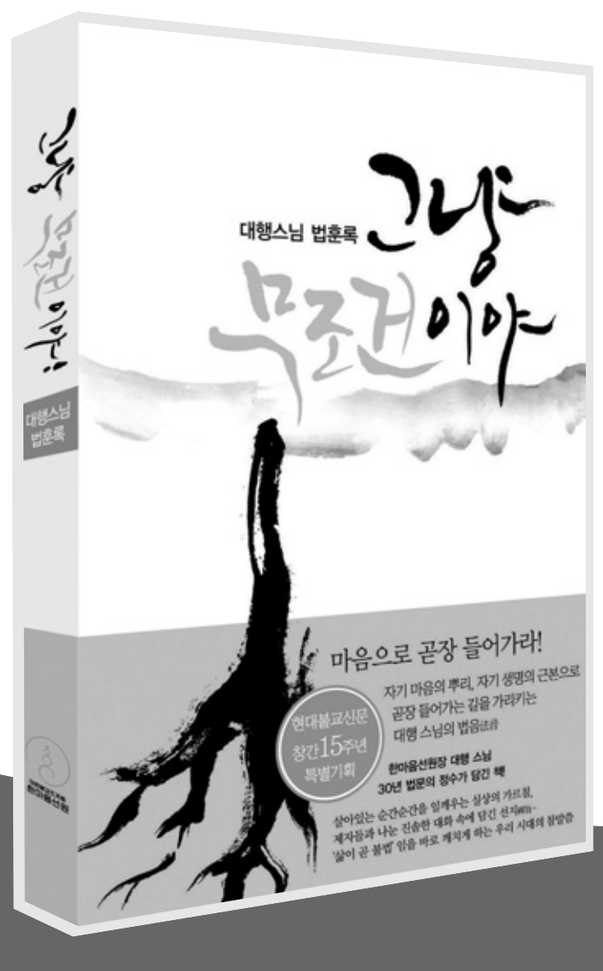
그렇다면 진짜로 뛰는 사람을 믿어라 이겁니다. 발 없는 발로 뛰고, 손 없는 손으로 하고, 모든 거를 두뇌 아닌 누진으로써 안으로 통신을 하고 바깥으로 통신을 해서 모두 작용을 하는 그놈을 믿어라 이거죠. 나는 뛰어 봤자, 한 걸음 밖엔 못 뛰어! 그러나 '진짜 나'는 여기서 미국을 뛰려도 한 걸음이요, 태양계를 뛰려도 한 걸음이요, 은하계를 뛰려도 한 걸음이요, 어느 혹성을 뛰려도 한 걸음밖에 안 되니까, 체가 있는 우리 육신의 걸음 한 걸음과는 아주 천지 차이니까요.

마음! 고놈이 아니라면…, 고놈이라고 한다고 해서 고놈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또. 고놈도 될 수 있고,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친구도 될 수 있고, 부처도 될 수 있고 법신도 될 수 있고, 화신도 될 수 있고 약사도 될 수 있고, 물에 가서는 용신도 될 수 있고 들에 갈 때는 지신도 될 수 있고, 내가 가는 대로 내 용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거는 바뀌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위로도 아래로도, 높게도 낮게도 보지 말고 그냥 아주 떼려야 뗄 수 없는 친구로 생각해도 돼요. 세상에 고놈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딴 데서 갖다 줍니까, 뺏어 갑니까? 내가 하는 대로 입력이 되었다가 나오는데 남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서 병난 것은 마음속에서 해결해야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모르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영계성'이라는 것도 대부분 내 몸속의 악업 선업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든지 나를 좋게 해 주려고 그렇든지 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끄달려서 돌아가지 말고 속지 마라. 네 마음이 있지 않느냐. 마음으로써 그렇게 일어나는 그것을 다 잠재워라. 이 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을 한마음으로써 대치를 해라. '모든 거는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을 해라.' 하고, 속지 말고 잘 다스리며 나가라 이거죠.

속는다 하면…, 옛날에 내가 그런 얘기도 했죠. 수좌들이 동짓날 팥죽을 쑤는데 팥죽이 가마솥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그냥 방울이 나오죠. 이걸 내가 몇 차례씩 얘기합니다. 부글부글 끓어서 방울이 나오는 거를 '요것도 문수란 놈, 요것도 문수 놈, 요것도 문수 놈!' 아, 이러고 주걱으로 들이쳤다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안 해도 자기는 알고 있지만, 다른 수좌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죠. '네 몸속이 즉 팥죽이다. 네 몸뚱이는 팥죽 솥이다.' 그러면 네 몸뚱이 속에서 그렇게 끓어서 나오는 것을, 한군데서 나오는 것을, 나오는 대로 각각인 줄 알고, 나에게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를 곧이듣고 자꾸 휘말리니까 '요것도 그놈,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www.hyunbulshop.com

자기 의식에 속지 말고 한마음으로써 잘 다스리며 나아가라

☞ 29면에서 계속

요것도 그놈. 문수란 놈!' 하는 거죠. 이게 생각을 내는 거니까 문수거든. 법이거든요. 생각을 내기 이전은 부처지만 생각을 낼 때는 반드시 이게 작용을 하는 거니까, 팥죽이 끓어오르는 것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문수, 조것도 문수!' 이렇게 쳤답니다.

그러니 한 몸 속에서 나오는 그 작용을 어떻게 이것이 따로 있고 저것이 따로 있다고 봅니까. 모두 하나 속에서 나오는 거를요. 그러니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을 해야잖아!' 하고 거기다 그냥 되맡겨 놓으면 되입력을 하는 거죠. 입력이 됐던 거에다 입력을 다시 하는 게 되니까 앞서 입력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속지 말고 모든 걸 거기다가 놓을 때 해결되는 거죠. 또 생활을 할 때는 모든 걸…,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다는 어떠한 물이 들어와도 다 받아들이죠. 받아들인단 말도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받는 거죠? 받으면 그대로 바닷물이지, 이 물 저 물 섞였다 해서 딴 물이라고 이름 지어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들어갔다 하면.

그러니 이름이 다른 데서 나오고 행동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천차만별의 행동, 말,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전부 내 몸속의 업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다 그냥 마음으로 다스려서 거기다 맡겨 놓고 좋은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놓고, 언짢은 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하고 놓고, 이렇게 마음을 돌려서 자꾸 대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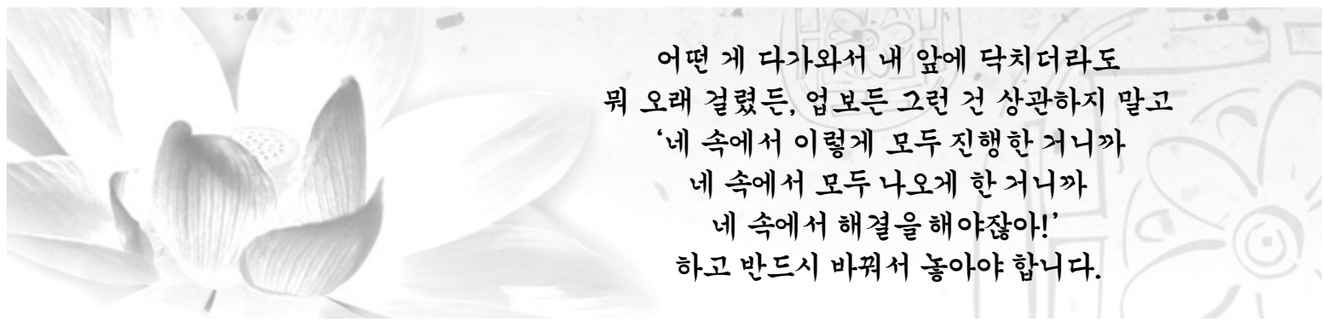
질문자1(남): 무더운 여름에 법형제 여러 법우님들을 위해서 무상법문을 설해 주시니 무척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항상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를 큰스님께 말씀드리고 가르침을 받고자 나왔습니다.

요새 시중에 모 스님의 수필집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제목이 『여보게,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책의 제목을 대했을 때 순간 생각이 '저승에 갈 때 가지고 가기는 뭘 가지고 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여 분 지나서 집에 오는 도중에 들판에 매어져 있는 염소를 보는 순간 '아, 저게 바로 지옥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지옥이 따로 없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주인공 자리에 넣고 다시 '아, 바로 이 느낌이, 공부가 되는 느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잊어버린 상태에서 시간이 한 한 달 정도 흘렀는데, 어느 날 아침 식사하기 전에 세수하러 나왔는데 불현듯 '저승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지?' 하는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제가 '이승도 없는데 무슨 저승이 있어?' 하고 대답을 하고 보니까 제 스스로 '아, 이게 공부가 돼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진짜 스스럼없이 튀어나온 말이지만 이 책의 제목을 통해서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이 공부가 되어 가는 한 과정으로 보아야 되는지요? 그래서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제가 느낀, 이승이 없기 때문에 저승 또한 없는 것인지, 그런 개념 자체도 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어 나왔습니다.

큰스님: 마음이라는 마음을 요상하게 생각을 해서 끌고 가지 마시구요, 아주 그렇게, 소탈하고 아주 깨끗하게요. 이승도 없는데 저승이 어딨습니까? 지옥도 없는데 천당이 어딨습니까? 여러분이 마음먹고 행하고 사는 데에 바로 지옥도 천당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가능치 않은 게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그렇습니다. 딴 데서 태어납니까? 이 자리에서 태어나시죠? 죽는 것도 이 자리에서 죽죠? 그러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데에 인과로써 업식만 짊어지고서 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근본과 더불어 같이 부합이 돼서, 정자 난자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면 그것이 바로 업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고(苦)라는 소리가 나온 것이 바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이 주어진 대로 이 현실에 자꾸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천당도 지옥도 바로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거죠. 그러니 내가 없는데 가져갈 것은 어딨으며 가져올 게 어딨습니까?



질문자2(남): 오늘 큰스님께 가르침을 청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과거에 했던 일이 오늘에 와서 과보로 나타날 때 그 과보가 오늘의 나에게 바람직한 일이라면 몰라도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깊은 회한에 잠기게 됩니다. 큰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그것도 놓고 가라." 하십니다. 그러나 당면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궁리 저 궁리를 하기 마련인데 그럴수록 과거에 대한 회한은 짙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에, 이 일 저 일 궁리하는 것과 놓고 가는 도리는 생활 가운데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그런데 과거라고 하지만 어저께도 과거고, 한 시간 전도 과거고, 삼천 년 전도 과거입니다. 그런데 삼천 년 전과 어저께와 한 시간 전이 같습니다. 이게 한 찰나입니다. 내가 항상 구정물을 바꿔 쓰라고 그러죠? 그냥 거기다 놓으란다고 그냥 맡겨 놓기만 해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기계를 잘 고쳐서 끼워야 될 텐데 기계를 고치지도 않고 그냥 갖다 끼우면 이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고쳐서 끼워야죠, 고장이 난 거는요. 그와 같이, 그렇게 다가와서 내 앞에 닥칠 때는 과거든, 뭐 오래 걸렸든, 업보든 그런 건 상관하지 말고 '네 속에서 이렇게 모두 진행한 거니까, 네 속에서 모두 나오게 한 거니까 네 속에서 해결을 해야잖아!' 하고 반드시 바꿔서 놓는 겁니다. 바꿔 끼우는 거죠. 바꿔 끼우고 믿어야 되죠. 고놈을 믿어야죠.

안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어떠한 문제든지 용도에 따라서 통신을 하고…, 이 인간에게도 대기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자인 마음속에서 모두 분자로, 입자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음파라고 하죠. 빛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무전 통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다 이것을 판단을…, 판단이라기보다도 법으로 진행을 해 버려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백이 있는 놈 한테 다 맡겨 놔요! 그렇게 바꿔서만 맡겨 놔요. 이렇게 심부름을 시킬 때 "이거를 이렇게 해서 너 바꿔 가지고 오너라.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사 가지고 오너라." 해야지, 이거를 주고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냥 놔져만 있는 거지, 그게 중용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정물이 들어오는 거니까 맑은 물로 대치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돌려 놔야 되겠죠. 이런 것까지 이렇게 힌트를 주고 가르쳐서 말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하하하….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그 다음, 마음공부에 관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째는 성품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참성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둘째는 성품을 본 후에도 걸림이 있다 할 때는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요. 가르침을 청하옵니다.

큰스님: 이게 여러분이 아리송해서 몰라서 그러시지, 우리가 잘못하든 잘하든 그냥 거기서 생각나서 한 것은 후회를 마세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냥 자기 성품 속에서…, 그릇이 작은 데서 나왔든 큰 데서 나왔든, 잘못하는 마음으로 나왔든 잘하는 마음으로 나왔든, 자기가 잘하고 못하고를 모르니까 그냥 그 마음이 나온 거거든요. 내가 잘 보고 잘 듣고 판단을 해서 한다는 게 그만 그렇게 잘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속에서 다 나온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을 땐 '아이구,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거를 이럭하지 말아야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고 후회를 하죠. 그러면 거기서 알아지는 게 있죠. '이건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앎이 생기죠.

그러니까 잘못 나왔든 잘 나왔든 그것이 우리 인생관에 의해서 자기를 리드해 나가고, 즉 말하자면 잘 배우게끔 이끌어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을 잘 생각을 못 해서 내가 이렇구나. 잘 생각을 할 것을….' 이렇게 후회를 하지 마세요. '아, 그걸로 인해서 내가 배움이, 느낀 것이 참 많았다. 경험이 많았다. 그러니 이 경험을 준 것도 참 감사하구나.' 하고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그러한 마음이 생겨서 구덩이에 빠지게끔 하지를 않아요. 모를 때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아주 자동적으로 그냥 이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게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이렇게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부에서 심안으로 이렇게, 육안을 통해서 보게끔 만들거든요. 심안으로 듣게끔 만들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주, 잘못됨이 없는 그런 진로로 이끌어 가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맡겨서 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품은 그렇게 쓰는 성품이나 이렇게 쓰는 성품이나 성품은 둘이 아니에요. 마음내기 이전은 똑같은데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주어지죠. 그런 거를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둘로 보지 말고 '모든 것을 너로 인해서 경험을 얻었으니 감사하구나.' 이렇게 해서 또 거기다 감사하게 놓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내가 육안으로 보게끔 하지 말고 심안으로 보게, 네가 보고 네가 할 수 있게끔 해라.' 하고 거기다 맡겨 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그것으로 족하죠. 그 성품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악도 거기서 나오고 선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요.

질문자2(남): 참, 더우신데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좋은 가르침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슴 깊이 새기고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렇게 하셔야죠.

질문자2(남): 예.

큰스님: 그렇게 해서 누굴 줍니까? 자기가 갖는 건데…. 하하하…. 또 질문할 사람 없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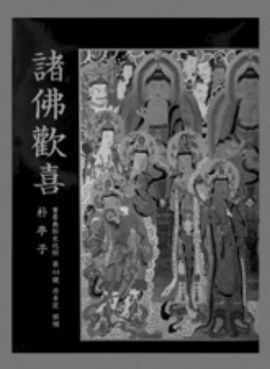
사회자: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큰스님: 그러면 내가 한마디 하고 끝내죠. 이거요,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세워 보이시고) '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라는 두 글자가 고정되게 주어져 있지 않구나!'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난 아무개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다. 아무개 남편만 되는 것도 아니다. 아무개 아들만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없구나! 나는 없으니까 어떠한 업보가 걸릴 것도 없고, 어떤 애고가 생길 것도 없고, 아무것도 붙을 자리가 없구나.' 이런 것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을 20년을 앓다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낫겠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만날 되풀이하는 사람이 그랬대요. 하하하…. "아, 병 붙을 자리가 있어야 병을 고치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즉시로 병 붙을 자리가 없다는 걸, 자기가 없다는 걸 알고는 병이 그냥, 가는 중에 나았더래요. 하하하….

※위 법문은 1993년 7월 4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불환희

B4양장/247쪽/100,000원/한국전통불화연구원
지난 1986년 전승공예대전에서 「금니金泥 부모은중경」 병풍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금어의 맥통을 이어 받았음을 입증한 박정자 선생의 사불수행 25년과 신심에서 우러나온 불보살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운주사
- 불교서적·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박정자 선생님의 사불교본 시리즈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국내 최대 크기(4절) 사불 안내서
초를 전부 새로 그려 사불을 하는 모든 분들이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

사불교본(1)
탱화정초, 대부모은중경, 팔상도, 비천도
4절지/249쪽/50,000원/한국전통불화연구원
영산회상도를 시작으로 부모은중경의 내용과 팔상도의 내용을 실었으며 비천도의 내용도 담고 있다.



사불교본(2) 관세음보살, 53불도
4절지/269쪽/55,000원/한국전통불화연구원
수월관음도를 포함 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여러 모습으로 나투신 모습과 나무보광불에서 나무일체법상만왕불까지 53불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불교본(3) 만다라
4절지/89쪽/20,000원/한국전통불화연구원
만다라화는 연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상화하여 단청이나 불화에 문양을 넣어서 상서로운 길상의 의미로 사용한다. 약 40종의 만다라화를 담고 있다.



사불교본(4) 삼신불, 팔대보살
4절지/55쪽/15,000원/한국전통불화연구원
비로자나불을 포함한 삼신불과 관세음보살로 시작되는 팔대보살의 모습을 비롯해서 화엄성중과 시왕의 모습을 사불할 수 있게 하였다.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www.unjusa.com

불자 세상보기

2018 평창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정념 스님
평창 월정사 주지

평창이 인류의 집결지로 결정됐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염원했던 평창이 선택됐다. 우선 지역주민에게 축하를 드리며, 국민 모두의 성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 그동안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헌신해 온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두 번의 실패와 거듭된 좌절감을 딛고 10여 년 험난한 여정 끝에 마침내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따뜻한 햇살을 마주하였다. 그 세월에 서려있는 역경을 어찌 말로 형언하겠는가. 두 번의 실패, 거듭된 좌절감을 딛고 일어선 세 번째 도전이었기에 더 간절했다. 시련에 겨워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는 일은 더 괴로웠을 테다. 유럽의 프라하, 남아메리카 과테말라에서 연이어 눈물을 삼키고, 이번에는 아프리카 더반으로 날아가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그 여여한 심정을 꺼내 놨다. 하여 비로소 동의를 얻어냈으니 철수개화(鐵樹開花), 화리생환(火裏生還)이 아니겠는가.

이번 유치전에서 독일 뮌헨은 '뿌리로 돌아가자(Back to the Roots)'는 문구를 앞세워 동계스포츠의 역사와 문명적 인프라를 강조했다. 프랑스 안시는 '눈, 얼음 그리고 당신(Snow, Ice and You)'을 내세워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했다.

평창은 '새로운 지평(New Horizons)'을 앞세웠다. 세 곳의 슬로건에 깔려 있는 의미를 헤아려 보자. 유럽의 두 도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평창은 희망찬 미래 창조를 다짐하고 있지 않은가.

평창은 처음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서면서 IOC(국제올림픽위원회)와 약속한 드림프로그램 운영을 8년간 성실히 이행하여 왔다.

눈과 얼음을 즐길 수 없는 나라의 어린이들을 초청해 자연의 오묘한 이치와 숭고함을 일깨워줬으며, 아시아 전역과 아프리카 등으로 동계스포츠를 확대하여 전 세계에 꿈을 함께 나누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것이 평창이 추구하는 인류애이고 올림픽 정신의 실천이다.

이러한 약속의 이행과 실천이 전 세계인을 감동시켰고,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이것은 강원도민을 비롯한 온 국민의 힘인 것이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대회에 국한되지 않는다. 민족의 정체성과 역량을 총체적으로 펼쳐내는 문화축전이다. 우리는 근래에 있었던 토리노 동계올림픽, 베이징하계올림픽, 밴쿠버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개최국의 민족문화를 분명히 목격했다. 특히 베이징올림픽에서는 중화민족의 공명한 고동(鼓動)을 충격적으로 실감했다. 우리는 2018년 2월 9일에 우리 국민의 가슴에 흐르는 역사와 문화, 정신을 담은 문화를 보여주어야 한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단기간에 형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온고지신(溫故知新)이요, 법고창신(法古創新)이다. 백두대간의 심장, 오대산과 그 품에 안겨 있는 문화유산과 민족정신에 기댈 수밖에 없지 않은가. 다행히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에는 세계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와 한민족 아리랑의 모태인 정선아리랑이 있다. 그리고 아직은 제자리인 평창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찾아온 세계기록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실의궤' 오대산본이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과 자원들이 제자리로 돌아와 2018년 동계올림픽이 문화올림픽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문화올림픽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감은 물론 반만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내어 전 세계인의 가슴에 환희와 감동을 안겨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계올림픽 유치에 노고가 많았던 만큼 쾌거를 한껏 즐기시라.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스스로 경계할 것이니 이내 옷깃을 다시 여미고 웅비(雄飛)를 준비할 일이다.

다시 한 번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남과 북, 세계 평화와 인류 공존과 번영의 길이 활짝 열리길 기원한다.

사부대중 칼럼

한여름 환경을 바꾸는 부채



법상 스님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얼마 전에 필자는 교수아사리 연찬회에서 교육원의 교육원장님으로부터 부채를 선물로 받았다. 부채를 선물 받고 한동안 연찬에서 그 의미를 잠시 생각한 적이 있다.

요즘처럼 선풍기나 에어컨이 만연한 시절에 부채를 선물하신 의미가 무엇일까? 아마도 원장스님은 각자의 노력으로 교육의 시원한 바람을 일으켜 교육 불사를 원만히 하도록 배려하신 것이라 짐작해 보았다. 그러면 불자에게 부채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전달하는 시원한 바람일 것이다.

우리 인간은 환경을 조성하는 주체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우리 자신들이 만든 것이다. 요즘 급변하는 기상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만든 것이다. 만연한 에너지 과소비가 불러들인 환경오염과 기존의 이상 기류는 우리의 탓이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는 책임도 우리들에게 달려 있다.

한여름에 무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려 지겹게 하고, 태풍이나 가뭄 등은 삶의 주체들에게 불안을 조성한다.

원인과 결과의 내용으로 보면 한여름의 무더위는 우리의 탐욕이요, 지겨운 장마는 번뇌의 유출이며, 태풍은 성냄의 발산이요, 가뭄은 우리의 인색함이다. 하지만 마음을 돌이켜 생각하면 무더위는 알알이 영글어가는 곡물들에겐 반드시 필요한 자양분이고, 기승을 부리는 장마는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는 행위이며, 태풍 역시 오염된 공기를 맑혀 주는 부채질이요, 가뭄은 오염된 대지를 청소하여 정화하는 보살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러한 한여름에 벌어지는 환경의 작용들은 지구촌을 아름답게 바꾸는 보살행인 우주의 활동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나친 환경의 발산에 대한 책임은 어쩌면 오만한 우리 인간 마음의 부조화된 표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시원한 바람으로 뜨거운 여름을 식히는 부채의 역할이 필요하다.

지구촌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보다 겸허함과 만족할 줄 아는 마음가짐으로 몸과 마음을 순화하는 행위가 요청된다.

우선 우리는 계절의 환경이 내게 맞추어 주길 바라지 말아야 하며 조화를 이루는 인간 삼독의 정화로써 부채질을 해야 한다. 탐욕의 과소비를 줄이고, 성냄의 무더위를 식히고, 무지의 인색함을 베푸는 넉넉함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바람이어야 한다. 너와 나, 우리가 기뻐하는 예절과 진실한 말을 나누며 예우하면서 즐거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순간의 삶을 영원으로 지향하는 진실하고 소박한 생명의 살림과 꾸준한 노력의 대가 외에 바람이 없는 행동과 절제된 사랑을 하면서 더불어 기쁨을 주고받는 삶을 시원하게 부채질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부채의 역할일 것이다. 여름날 넉넉한 자비와 기쁨과 평등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장마처럼 부처님의 가르침과 여건에 맞는 물질과 두려움 없는 텅 빈 가슴을 베풀고, 짜증스런 계절의 권태를 환희로운 바람들로 채우는 부채가 되며, 어떤 몸짓이든 태풍처럼 허공을 맑히는 이익을 주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기쁨의 빗물로 채운다.

모든 것이 공공의 소유임에 무집착의 무소유로 베푸는 바람이고, 너와 나, 우리가 에티켓을 지키면서, 사바에서 공존하는 기쁨이 바로 절제된 인내의 바람을 일으켜서 삶의 파노라마가 늘 열반의 메시지로 펄럭이는 부채의 몸짓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태양의 지혜로 늘 역동하는 것임을 올바로 직시하면서 나날이 기쁨의 시원한 바람을 불러일으킨다.

이제 우리는 고달픈 여름에 집착을 놓고 변화하는 무상을 즐기며 지구촌의 열반이란 부채의 몸짓임을 자각한다. 그리고 본래 나라는 것이 없는 내게 계절의 환경이 바로 모든 생명의 몸짓임을 자인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여름 계절의 부채질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시원하게 하는 우주적 동력임을 자각한다.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무아의 실현이기에 이 계절에 맞추어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린다. 우리가 만든 주어진 환경에 '나'라는 관념이 없기에 더욱 즐거운 삶을 엮어갈 수 있는 부채이다.

우리는 모두 함께 지구촌의 설계를 실현하는 절대 필요한 존재이기에 에너지의 과소비를 줄여서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는 정원사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환경이 그대를 괴롭힐지라도 고달파하거나 노하지 않는 계절의 부채가 되어서 멀지 않는 결실의 계절을 위해 주어진 한여름 환경을 아름답게 바꾸는 부채질을 한다.

이 부채의 몸짓이 바로 불자가 수행하는 보살도이고 시원한 법신의 나타남이 아닐까?

社說

결사추진본부가 성공하려면

조계종은 7월 4일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의 현판식을 개최했다. 5일에는 '자성과 쇄신 결사, 중앙종무기관 3차 100일 정진 계획'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제3차 100일 정진 계획에서 정진대회활동과 부서 등 단위별 결사와 나눔 활동이 중점이라고 했다. 안타깝게도 살을 에는 추위 속에 3000배를 올리던 열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눔이 중점이라는 말도 걸린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사는 역대 총무원장 때도 있어왔다. 前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연탄을 나르던 부암동이 백사마을로 장소만 바뀐 것 아닌가. 108배 동참 역시 아름다운동행이 진행해 온 행사에 동참하는 수준이다. 나머지 중 눈에 뜨이는 계획이라고는 뇌성마비 장애인과의 친선경기뿐이다.

결사추진본부 출범에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별도의 조직을 세운 것인지, 결사가 흐지부지될 경우 책임회피를 위해 완충지대를 만들어둔 것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다. 거대 여당인 화엄·법화회의 화려한 맨파워는 어쩌고, 왜 종권의 아웃사이더 격인 도법 스님이 본부장에 임명됐는지도 의문이다.

불자들은 제3차 정진계획의 진부함이나, 결사추진본부의 출범에 있을지 모를 정치적 포석에도 불구하고 '자성과 쇄신의 5대 결사'를 믿고 지지하고 싶다. 실천하고 싶다.

조계종이 이들의 바람에 호응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출범시킨 결사추진본부의 위상에 걸맞는 권한을 성문화하고,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된다.

평창의 환경 문제도 살펴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결정됐다. 조계종 등 불교계에서는 일제히 환영 논평을 발표하며 이를 축하했다.

이번 동계올림픽 유치에서 라이벌이던 뮌헨이 친환경을 주창한 반면에 평창은 개발을 강조했다. 평창을 홍보하는 동영상에서는 KTX가 설원을 누비는 장면이 있었다. KTX는 주행 특성상 상·하·좌·우로 철로의 편차가 클 수 없다. 채산성은 차치하고 곧아야만 하는 철로 탓에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KTX가 지나는 길에 천년고찰이 없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는가. 이 정권은 새 도로명 사업을 빌미로 땅이름에서 불교의 혼을 빼앗는 정권 아니던가.

조계종 등 불교계는 그동안 수행환경을 중시해 왔다. 1400년을 넘게 사찰림을 가꾸고 지켜왔을 뿐만 아니라, 천성산·사패산 터널 등 길이 뚫리는 곳에서는 수행환경을 명분 삼아 대자연의 편에 서왔다. 내가 하면 불사고, 남이 하면 수행환경 파괴라는 비아냥 속에서도 불교계는 수행환경 수호 의지를 다졌다. 환경보살로 화현한 수경·지율 스님 등의 정진은 개발 논리에 매몰된 우리를 깨우는 장군죽비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불교계가 축하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살펴봐야 한다. 중생의 기쁨은 함께 나눠도 다가올 재앙에 눈감아서는 안된다. 40여 년 숙원인 관계법령 개정이 가져다 줄 '개발의 자유' 때문은 아닌지 돌이켜 봐야한다.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 평창의 그늘에 침묵해서는 안된다. 그러려면 제대로 된 자성과 쇄신의 결사가 필요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게재·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이 재 진	051)632-0064 / 011-488-77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옻네 절대 옻이 타지 않는 옻의 원조 농업법인 (주)옻가네

참옻식품의 원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인증받은 절대 옻안타는 제품입니다.

2010년 대한민국식품 발명대상 "최우수상 수상" (12월 17일)

헐은 위, 지친 간 토종참옻으로 다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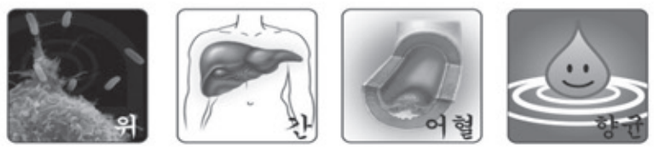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전 KBS 아나운서 이창호입니다.
잦은 방송으로 지친몸, 옻가네 참옻진액으로
언제나 활기차고 거뜬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옻타지 않는 옻으로 유명한 옻가네 참옻진액
자신있게 권합니다.
전 KBS 아나운서 이 창 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20년 동안 진행)

십년묵은 체증도 녹이는 참옻

위와 장을 편안하게 속을 따뜻하게

피를 맑게, 냉적(冷積), 적취를 풀어주는 참옻



손발이 차고, 저리고, 추위나 더위를 많이 타십니까?

원인을 모르는 반복되는 고통…
냉적(冷積)이 아닐까?

우리 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냉적(冷積)이란, 차가운 것이 뭉쳐있는 것인데 위장, 대장, 자궁이 냉하여 순환이 안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자궁과 장이 딱딱하게 굳어진상태를 말합니다.

1)자궁에 차가운 기운이 쌓여 있으면 혈액 순환이 안되고 어혈이 생겨 자궁물혹, 근종, 생리통, 냉대하 등의 각종 여성 질환이 유발되고

2)위와 장이 차가우면 소화기능 뿐만 아니라 장의 연동운동도 안되서 배변장애가 생긴다.

3)복부비만의 가장중요한 원인도 복부에 냉적(차가운 기운)이 있어서 대사기능이 떨어지고, 붓고, 저리고, 비만을 유발 하는 하체 순환장애의 원인이 된다.

우리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즉 냉적은 각종질환 특히 여성질환을 유발하며 만성 소화장애, 비만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특히 복부비만과 하체비만, 여성의 생리통 냉대하 등의 경우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여 하체의 순환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

농업법인 옻가네는 국내산 토종 참옻을 이용하여 누구나 옻이 타지 않고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참옻식품을 개발하여,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 2010년 제천국제 한방바이오 엑스포 공식지정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국내에서는 식약청(KFDA)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며, 그 까다롭기 유명한 미국의 FDA에서도 안전성을 인정한 **검증받은 제품**입니다.

발효기술을 접목한 "발효참옻제조" 특허기술

콩을 그냥 먹어도 좋지만 발효시켜서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먹으면 훨씬 더 몸에 좋듯이 토종참옻도 발효시키면 몸에 이로운 효과가 훨씬 많아집니다. 옻을 식품에 첨가하여 요리하면 독특한 효과가 있는데, 모든 육류에 첨가하면 고기특유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기름기를 녹여 고기맛을 부드럽게 하여 고기맛을 더욱 좋게하며, 건강에 매우 좋고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아주 좋다.
옻은 천연항균, 살균력이 있어 심한 발냄새, 무좀,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좋다.

본초강목

만성위장병	피부 질환, 아토피	부인병, 자궁근종, 생리통	어혈제거, 혈액순환	뼈가 저리고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利小腸(이소장) : 장의 기능을 좋게함.	療咳樹(료해수) : 가래, 기침병	女子疝瘕(여자산구) : 부인병 하복통 치료.	除風(제풍) : 중풍을 다스림.	折傷(절상) : 뼈가 부러지고 다친데.
保中(보중) : 소화기관, 위장병 고침.	風寒濕痺(풍한습비) : 감기, 고뿔, 뼈통증.	主女人經脈不通(주여인경맥불통) : 여자의 생리를 순조롭게 함.	消瘀血痛結腰痛(소어혈비결요통) : 허리 아픈데를 풀어줌.	續筋骨(속근골) : 근육, 뼈, 힘줄을 이어줌.
			削年深堅結之積滯(삭년심견결재적체) : 병덩어리를 없애줌.	九服經身耐老(구복경신내노) :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음.
			破日九凝結之瘀血(파일구응결지어혈) : 피를 맑게 함.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릿속골을 채워줌, 골다골증 치료.

옻이절대 타지(오르지)않는 가족건강 지킴이 토종참옻

- MBC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2010서울국제발명전시회 2010년 대한민국 식품발명대전

(12월 17일)



금상-옻안타는 옻을이용한 숙취해소 음료개발
은상-옻안타는 참옻발효진액 제조 방법 개발

우수발명 기업선정 (2011년 2월 17일)

최우수상 수상



FDA 미국식품안전청 FCS/SD 제조업체등록, 공정거래등록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방송협찬중인 옻가네참옻제품

옻가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체험수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효과를 보신 것에 저희도 무척 놀랐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손발저림, 황금색변 (2011년 3월 28일) 역삼동 에서 세무사 윤ㅇㅇ

저는 50대 중반의 남성이고 어머님은 70대후반의 여성입니다. 평소에 업무상 술을 자주마시는 저는 다음날 화장실은 여러번 다녀오고, 양 엄지 발톱의 무좀으로 고생을 해왔습니다. 또한 어머님은 무릎에 가래가 있는듯한 느낌과 손발 저림으로 고생을 하시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이며, 농삿일을 하시는 관계로 농사철 때는 손바닥과 발바닥에 거북등처럼 갈라져서 고생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님는 체질적으로 옻나무 근방에만 가도 옻이 오르는 알레르기 체질이며, 저는 옻닭집에서 약은 먹고 옻닭을 먹었다가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4대나 맞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옻을 먹어보라는 권유를 받고 손사래를 쳤으나 (주)옻가네에서 개발한 '위간보'라는 제품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에 용기를 가지고 음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간보'라는 제품을 음용한지 3일도 안되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대변의 색깔 부터 황금색으로 변하고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음주를 하지 않은 날과 같아지게 된것 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달쯤 음용한 후에는 발톱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했는바 무좀에 다 허물어진 발톱안쪽에서 전혀 새로운 발톱이 나기 시작했고, 현재 약 2개월정도 음용한 저는 완치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손발저림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님 생각에 여름휴가때 시골에 가서 어머님께 친구라고하고, 처음의 저와 마찬가지로 손사래를 쳤으나 저의 음용결과를 설명드리면서, 우선 한봉지만 드셔보시라는 간청하니 아들의 진심어린 걱정에 보답해준다는 마음으로 음용해보시고, 바로 다음날 저에게 '애비야 목에 있던 가래가 없어진것 같이 상쾌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문해주길 부탁해서 택배로 보내드렸더니 한 열흘정도 드시고 부터는 손발 저림이 완화되고 잠도 잘주무신다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5개월정도 음용하신 결과 손발저림과 손발바닥에 갈라지는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젊은 사람의 손발처럼되어 좋아 하셔서 주변에 사람에게 자랑하시고 친인척에도 자랑하며 이제는 동네주민과 친인척이 모두 (주)옻가네의 제품인 '위간보'의 팬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옻가네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동료 또한 역류성식도염도 저와 같은 권유로 음용후 완치가 되었습니다

"옻 닭" 무더위로 지친 현대인이 즐겨찾는 우리들의 전통보양식!

옻닭요리는 우리의 전통요리로서 중년이상이 즐겨 애용하는 보양식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옻요리가 몸에 좋은 것은 알고 있으나 옻 오름 현상을 두려워하여 기피하고 있습니다. 옻가네 참옻진액은 국내 연구진이 3년동안 연구개발하여 식약청에서 안전성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증명되었고, FDA(미국)에서도 안전성을 인정 받은 제품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옻이 타지 않는 옻닭요리입니다.



[특징]
1. 닭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사라지며, 고기가 부드러우면서도 졸깃할것입니다.
2. 옻이 지병을 분해하여 기름기가 1/3 줄어들어 다이어트Diet(음식으로 치료)도 됩니다.

[요리방법]
1. 토종닭 한마리에 옻액을 500ml~1000ml 넣을 경우, 물은 100ml~500ml 를 추가하고 천일염 1/2 ts넣고 압력솥에서 17~20분간 익힌다.
[예 : 옻액 1000ml +물 500ml / 옻액 700ml +물 800ml / 옻액 500ml + 물 1000ml 등 취향에 따라 다양한 배합비율이 가능하고 한약재를 넣고 만드셔도 됩니다.

독성은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토종참옻 100% 국내산

옻가네 참옻제품 불만족시 100% 환불보장제 실시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패트병 = 1.5L)
6병 93,000원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 민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0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고급형구입시 100명 선착순 한정으로 사은품 토종참옻환을 드립니다.



토종참옻환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

옻네 제천약초특구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080-810-81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